

2003 연구보고서 220-15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여성교육 기능 강화 방안

연구책임자 : 박 성 정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양 병 찬 (객원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 발 간 사

시민들의 삶과 학습의 장으로서 지역사회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평생교육도 지역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지역중심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시·도의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고 지역의 다양한 평생교육기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의 생활에 보다 밀접한 평생학습관은 교육정보 및 상담의 제공,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에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에 구축하고 있는 이러한 평생교육지원체제는 여성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들의 정보를 수합하여 여성들에게 제공하고,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해줌으로써 여성들이 평생교육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이러한 전국적인 평생교육네트워크를 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외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이 성인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여성학습의 장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가 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연구에 협조해주신 중앙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 년 12 월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원 장 장 하 진

## 연구요약

### I. 연구목적

정부는 지역의 다양한 평생교육기관들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교육정보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범주의 평생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중앙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 거점기구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1999년 8월 공포된 「평생교육법」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지역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을 명문화하였다. 2003년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26개 기관, 평생학습관 218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평생학습의 거점기관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제도 도입기라 의도된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방향과 역할을 형성해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 앞으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정체성, 전문성 확립이라는 과제와 함께 이 기구들의 성인지적 운영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향후 이 두 기관에 성 관점을 어떻게 투입시키느냐는 여성평생교육 발전에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분포한 이 시설들을 성인지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지역여성의 평생교육기회 확대와 세력화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실태 분석을 토대로 이 기구의 여성교육 기능 수행 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여성교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기능 및 현황

지역평생교육전담기구의 설치를 규정한 평생교육법에 따라 2000년 3월 29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중앙 단위의 평생교육센터가 설립되었고, 그해 7월 13일 16개 시·도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지정되었으며, 지역별로 평생학습

관 설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2002년 12월 현재 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26개 기관 중 대학 및 전문대학이 11개 기관(4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6개로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과 도서관의 지정 비율이 높은 것은 고등교육기관이 교육시설 확보나 자원 수준에서 다른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앞서 있고, 도서관은 교육청 산하기구로 지정의 편의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여성전문교육기관은 한 곳도 없다.

평생학습관은 218개로 그 중 도서관이 지정된 경우가 63.3%로 가장 많으며 9개의 평생학습관/평생학습원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밖에 대학,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초중등학교, 학생회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고 있다. 평생학습관중 여성기관은 대구 동부여성문화회관, 전국주부교실대전지부, 수원여대 사회교육원,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의 4개(1.8%)에 그치고 있다(2002년 12월 기준).

이와 같이 중앙과 지역 수준에서 평생교육 거점기관이 지정되어 전국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가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여성'이나 '여성평생교육기관'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지는 못하다. 아직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지정과 기본 업무 확립에 급급하고 있는 제도화의 초기 단계로서, 본격적인 기구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듯하다. 이 단계에서 위 기관의 성인지적 운영에 대한 요구는 때 이른 접근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특정 형태와 문화로 자리잡기 전에 '여성의 요구'가 미리 반영되고 통합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Ⅲ. 외국 지역평생교육전담기구의 여성교육 현황

정책개발의 토대로서 외국 지역평생교육전담기구의 여성교육 현황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독일, 일본, 호주의 지역평생교육기구의 현황, 여성교육 기능을 살펴 보았다. 독일은 여성을 목적집단으로

하여 여성문제를 다루고 다양한 여성집단의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일본은 여성센터를 평생학습센터에 복합시설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한 건물내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 호주는 여성을 위한 생애단계별 직업교육훈련의 제공과 공공기관에서의 소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공통적으로 여성의식을 제고하고 여성문제를 다루는 강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고, 생애주기별·대상별 접근을 강화하고 있었으며 소외여성을 중요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국가들의 지역평생교육기구들이 여성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평생교육기관은 여성교육 기능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시민대학을 비롯하여 일본의 공민관, 호주의 성인지역사회교육센터 등의 대표적인 지역 평생교육기관들은 여성교육의 기능을 충실하게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주 고객으로 여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적 관점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의 여성은 가정과 지역사회, 직장에서 새로운 변화와 역할기대, 사회적 위기 등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지역평생교육기관들은 이러한 변화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지역사회나 직장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성을 세력화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 변화의 중심에 지역 여성이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남녀공동참여교육이라는 개념을 통해 남녀의 인식 변화와 협동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이 평생교육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여성 등의 목적 집단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사업 기획이 충실하지 못한 상태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역평생교육기관들도 주 이용고객이며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인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 여성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선진국의 지역평생교육전담기관들은 여성교육적 관점을 통해 사업 및 프로

그램을 제공하면서 지역의 여성센터, 여성교육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여성만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여성을 목표 집단으로 하여 대상 특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센터만을 가지고는 지역 여성들의 교육, 상담, 정보제공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지역평생교육전담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평생교육전담기관은 지역의 여성센터와 협력하여 공동 연수 및 홍보, 프로그램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부분적으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여성회관과의 연계사업이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두 유형의 기관들이 협력함으로써 지역 여성들에 대한 기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평생교육센터와 여성센터의 복합화는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프로그램의 협력을 통한 상호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시설이 잘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여성교육에 시사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전문인력에 의한 기관 운영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과 일본, 호주의 평생교육기관에 고용되는 인력의 전문직화는 우리 평생교육기관 및 여성교육기관에서의 비전문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국가 자격인 평생교육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여전히 비전문 직원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타 기관의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수준이상의 전문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선진국의 평생교육기관과 여성교육기관들이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전문화된 자격 제도를 통해서 훈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기관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공적 기구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에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 그들의 여성교육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IV. 운영실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운영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2002년도 평생교육백서에 게재된 센터 26개, 학습관 218개 총 244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52%인 총127부를 회수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두 영역으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일반적인 실태와 여성교육 실태 및 여성교육 기능 강화 방안과 관련된 질문들을 제시하였다. 127개 응답기관 중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24개, 평생학습관은 91개, 기타가 12개로 분포되어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관의 주 유형은 도서관(45.7%), 교육청(25.2%), 대학(10.2%) 순이었다. 대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기구로서 이는 다양한 부처에 소속된 지역평생교육기관들을 연계하는 사업에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신청 배경에 타율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함으로써 자발적 참여의지에 역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응답 기관의 대다수 참여자는 여성으로 문화, 교양, 취미 교육에 편중된 교육을 하고 있었고, 기존 직원이 부가적으로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70%이상에 달해 업무부담 가중과 함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의 전문성 미흡을 초래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으로의 지정이후 기관의 지명도 및 수강생은 약간 증대하였다고 느끼고 있으나, 재정 안정이나 수익, 연수기회, 운영의 전문성은 별로 증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 조직 성격과 새로 부여된 기구 성격의 이중적 존재로 기관 운영 방향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에 기대되는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기관 교류와 정보 제공 사업이 약간 강화되었고 학습상담 기능 수행은 별로 강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정부의 지원은 재정과 정보에 있어서 약간의 지원이 있었으나 연수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별로 없었고 특히 여성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기관 운영의 애로 사항으로는 전문인력 부족, 자원 부족, 기관 운영 방향의 불명확성 순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시설 및 사업의 빈약, 기관장의 인식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지난 몇 년간 지역 교육문화시설들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고 평생교육정보 DB의 보급과 관계자 연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 평생교육지원체제 구축이 추진되었으나, 아직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기관관계자들에게 확립이 되어 있지 못하여 다른 평생교육기관들과의 차별화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고, 중요 사업인 지역기관 연계교류와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기존 시설에의 부가적 지정으로 직원들의 이중적 업무부담 인식과 새로운 기관 성격 창출의 실패가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평생교육전문기관임에도 전문인력 배치가 매우 미흡하여 기구 운영의 전문성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

여성교육 실태에 있어서는,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포함하는 지역 여성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지도가 미흡하여 여성평생교육기관들과의 연계교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성사회교육정보 DB와 같은 여성정보에의 접근성이 매우 미흡하여 여성들에게 필요한 교육정보를 적절히 제공해 주기 어려운 상태이며, 여성교육에 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연수교육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자들의 여성교육 전문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의식이나 지도력교육, 성평등교육, 취약계층 여성교육도 매우 미흡한 상태이고 전문적인 여성학습상담이나 탁아서비스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응답자들이 향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에서의 여성교육 사업의 필요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지침과 지원이 요구된다. 응답자들은 여성을 위해 필요한 우선 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탁아서비스, 취약계층여성 지원, 여성교육정보와 연수기회 순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여성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관들의 인식 및 상호 신뢰 부족, 경쟁분위기, 교류경험 및 역량 부족 등을 장애로 보고 있었다. 지역여성평생교육 교류의 중심 기관으로는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현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이 여성교육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나 관계자들의 인식의 기반은 긍정적이므로 정책적 독려와 실질적 지원이 있다면 여성교육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 V. 기관유형별 사례

본 연구에서는 센터와 학습관으로 지정된 다양한 기관들의 사례를 독립기관형, 대학부설형, 도서관부설형으로 구분하여 특징을 분석하였다. 사례조사 결과 학습관은 부가성, 비전문성, 폐쇄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파악된다. 기관의 주 기능에 학습관 기능이 부가되어 2차적인 업무로 접근되고 있는 점, 전문직원의 부재로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점, 교육청 산하조직으로 지역기관들과의 폭 넓은 교류와 협조체제 구축이 어렵다는 점 등이 주요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평생학습관들은 대부분 원래 유사한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에 부가 지정된 상태로 본 기관의 운영과 학습관으로서의 이중적 기능 수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관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기관의 기능을 거의 유지하면서 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첨가해야하므로 애로가 많으며, 따라서 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아직 이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운영 지도에까지는 중앙의 힘이 미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가면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평생학습관의 취지와 기능을 이미 수행해오고 있던 기관들(독립적인 평생교육센터형)은 큰 변화없이 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독립적인 교육센터형이 평생학습관으로서 바람직한 듯 하다. 특히 도서관이 장래 지역평생교육정보 제공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필요성이 인정되나 현재로선 학습관 지정이 도서관 업무에 부가적인 업무로 간주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여 평생학습관에 요구되는 정보와 상담 제공

기능을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 사서가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 접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평생교육원형은 대학의 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학습관이나 센터로서의 기능 재정립에 노력하기보다 기존의 평생교육원 운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보인다. 영리를 추구하다보니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 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다.

유형별 문제점 외에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학습관에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는 점이 학습관의 전문적 운영에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단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학습관의 임무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며 정보와 학습상담 부분에 심각한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전문직원 미확보로 학습관 운영의 전문성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연수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전문성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속히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거나 전문적인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학습관관계자 가운데는 평생교육정보DB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여성사회교육정보DB나 지역여성기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인지,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여성에 대한 교육정보서비스에 제한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성들이 여성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여성부는 여성사회교육정보DB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학습관이나 센터에 홍보, 보급 노력을 해야 한다.

학습관은 교육청 산하 조직으로 교육청의 통제만 받으므로 활동범주에 제약이 있다. 도서관은 도서관, 대학은 대학 등 같은 유형의 학습관끼리만 교류하는 경향이 강하며 지역교류의 중심 기능 수행에 별 관심이 없거나 있더라도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학습관과의 기능 차이를 뚜렷이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관계자 연수, 자료집 발간, 지역정보의 수집 등의 사업 외에 평생교육연구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학습관 지원 사업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듯하다. 센터와 학습관의 기능과 사업을 차별화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센터는 학습관에 대한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센터와 학습관의 고유 사업을 선정하여 그에 대한 예

산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센터와 학습관 관계자의 성인지 의식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를 구하여 센터 및 학습관 운영에 영향을 행사하고 여성을 위한 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평생교육을 위한 중앙부처간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하의 일반평생교육과 여성부하의 여성평생교육이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분리와 통합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특화기관들의 활성화와 함께 일반평생교육기관 및 조직들이 성인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VI. 결론 및 정책 제언

### 1. 결론

본 연구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여성교육기능 강화에 관한 것이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나 중앙센터에서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적극적 조치가 개입되지 않는 한 주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평생교육시설의 주 이용자는 조사결과에서도 대다수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난다. 낮 시간대의 운영으로 인해 주 이용자는 주부로 직장여성이나 남성들의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 이용자가 여성임에도 관계자들 대부분은 이 기구가 여성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의 개념 속에 ‘여성’이 함몰되어 여성을 타겟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관계자들의 교육전문성 부족이 주 원인이다. 고객을 추상적으로 설정할 뿐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이해하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접근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을 고객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배려하지 않으면서

추상적인 시민교육 운운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기관의 성인지적 운영 차원에서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남성들의 교육기회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실질적 이용자 집단인 여성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현실에도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기관 담당자들은 현재의 물성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향후 여성에 대한 교육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여성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주요 부서 산하의 평생교육 정책 및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크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노력도 요구되지만 여성부 및 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여성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에 제공함으로써 이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소한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조직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과 긴밀한 연계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여성학습자에게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부서에 산재한 여성교육정보의 통합적 제공과 함께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학습상담 분야이다. 현재 학습상담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론상으로나 실천상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이 매우 취약한 분야이다. 그러나 평생학습을 위해서 전문적인 학습상담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여성의 삶과 경험을 고려한 여성상담과 결합된 전문적 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와 국책연구전문기관의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일선 특히 평생학습관 수준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교육인적자원부나 여성부에서 여성의 의식,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선에 보급할 필요성이 크다. 다른 기관들과 중첩되는 문화, 취미 위주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적인 실적 제고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공공성이 강화된 교육의 제공을 강화하여 교육적 혜택의 확산과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에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탁아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친화적 학습환경의 조성도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 2. 정책 제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여성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방안으로 다음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평생교육 사업의 통합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 ▶ 정부 각 부서 (여성)평생교육관계자 회의 운영
- ▶ 평생교육협의회에 지자체 여성정책담당자, 여성교육기관 대표 참여
- ▶ 현재 학교교육 단계의 여성문제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의 평생교육 사업 강화 또는 평생직업교육국 내에 여성평생교육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 설치
- ▶ 여성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공동으로 평생학습축제 개최

둘째, 중앙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 전담기구와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의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연결되는 여성교육 전담기구 간의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과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협조관계 강화
- ▶ 공동 사업 및 프로그램 기획
- ▶ 평생교육정보 DB와 여성사회교육정보 DB 통합 활용
- ▶ 지역평생교육네트워크에 여성회관의 적극적인 참여 권고

셋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일부는 여성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센터내에 여성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시 여성교육기관 지정

고려

- ▶ 지역교육청에서는 평생학습관 지정시 여성교육기관 지정 비율 제고
-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에 여성센터 부설
- ▶ 여성부는 센터 및 학습관 부설 여성센터 운영 지원

넷째,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는 여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현장에서의 여성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 ▶ 여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여성교육프로그램 공모제 실시
- ▶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다섯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지정후 관계자 연수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이 때 여성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와 여성학습자와 여성교육 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교육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 관계자 연수시 여성교육 강화
- ▶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관계자 연수 실시

여섯째, 평생교육의 전문화를 위하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은 물론 여성교육기관에도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 ▶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화 및 인건비 지원
-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서 여성교육 전문성 강화

일곱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여성친화적 학습환경을 강화해야 한다.

-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에 탁아시설 설치(예산 지원)
-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홍보 강화
- ▶ 여성상담 강화

여덟째, 현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의 평생교육업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여성부서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 ▶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의 평생교육 업무 강화
- ▶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와 여성부서의 협조 강화

아홉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이 기능 차별화를 통해 여성교육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여성평생교육 연수 및 연구 기능 강화
- ▶ 평생학습관의 여성교육프로그램의 공공성 강화

# 목 차

## 연구 요약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4
3. 연구방법 .....	5
4. 연구의 제한점 .....	6
II.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제도화의 배경 .....	7
1. 지역중심 평생교육체제 구축의 필요성 .....	9
2.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기능 및 현황 .....	11
가. 설립 과정 .....	11
나. 기능 .....	13
다. 현황 .....	17
III. 외국 지역평생교육전담기구의 여성교육 현황 .....	23
1. 독일 .....	25
가. 법적, 제도적 기반 .....	25
나. 여성평생교육 현황 .....	27
다. 사례 .....	28
2. 일본 .....	29
가. 법적, 제도적 기반 .....	29
나. 여성평생교육 현황 .....	32
다. 사례 .....	36
3. 호주 .....	45
가. 법적, 제도적 기반 .....	45
나. 여성평생교육 현황 .....	48
다. 사례 .....	50

4. 시사점 .....	53
<b>IV.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운영 실태 .....</b>	<b>57</b>
1. 일반적 실태 .....	59
2. 여성교육 실태 .....	85
3. 소결 .....	108
<b>V. 사례 조사: 기관유형별 사례 .....</b>	<b>111</b>
1. 지역평생교육전담기구 유형 .....	113
2. 유형별 사례 .....	116
가. 독립적인 평생교육센터형 .....	117
나. 대학평생교육원형 .....	121
다. 도서관형 .....	130
3. 소결 .....	136
<b>VI. 결론 및 정책 제언 .....</b>	<b>139</b>
1. 결론 .....	141
2. 정책 제언 .....	144
<b>참고문헌 .....</b>	<b>151</b>
<b>부 록 .....</b>	<b>153</b>

## 표 목 차

<표 II-1> 1, 2차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 현황 .....	18
<표 II-2> 선정 기관의 유형별 분포 .....	19
<표 II-3> 지역별 평생학습관 현황 .....	20
<표 II-4> 평생학습관 기구유형별 현황 .....	20
<표 III-1> 함부르크시민대학의 프로그램 .....	29
<표 III-2> 일본국립여성교육회관의 사업 .....	34
<표 III-3> 일본 여성교육기관 .....	35
<표 III-4> 개설자별 학급·강좌수급 학급생·수강자수 .....	35
<표 III-5> 효고현 평생교육센터의 시설 .....	38
<표 III-6> 효고현 평생교육센터 과별 사업 .....	39
<표 III-7> 2003년 사가현 평생학습센터/남녀공동참여센터(아반세) 주최 사업 ..	42
<표 III-8> 빅토리아 주 성인지역사회교육(ACE) 프로그램별 교육시간 구성 .....	51
<표 IV-1> 응답기관의 유형 .....	60
<표 IV-2> 센터 및 학습관 지원 동기 .....	61
<표 IV-3> 수강생 중 여성 비율 .....	62
<표 IV-4> 기관의 주요 교육영역 .....	62
<표 IV-5> 평생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	63
<표 IV-6> 지명도 변화 .....	64
<표 IV-7> 수강생 변화 .....	64
<표 IV-8> 재정 및 수익 변화 .....	65
<표 IV-9> 연수기회 변화 .....	66
<표 IV-10> 전문성 변화 .....	66
<표 IV-11> 규제 변화 .....	67
<표 IV-12> 업무량 변화 .....	67
<표 IV-13> 기관 성격의 혼란 .....	68
<표 IV-14> 지정이후 기타 변화 .....	69
<표 IV-15> 기관교류 사업 추진정도 .....	71
<표 IV-16>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사업 추진정도 .....	72

<표 IV-17> 정보 수집 및 제공 사업 추진정도	72
<표 IV-18>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정도	73
<표 IV-19> 직원연수 사업 추진정도	73
<표 IV-20> 학습상담 사업 추진정도	74
<표 IV-21> 지역평생학습 기획, 조정 사업 추진정도	74
<표 IV-22> 재정 지원	75
<표 IV-23> 연수 지원	76
<표 IV-24> 프로그램 지원	76
<표 IV-25> 정보 지원	77
<표 IV-26> 여성사업 지원	78
<표 IV-27> 운영상 애로점	78
<표 IV-28> 담당자의 지역여성평생교육기관 인지도	86
<표 IV-29> 담당자의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인지도	86
<표 IV-30> 담당자의 여성사회교육정보 접속 경험	87
<표 IV-31> 담당자의 여성교육 연수기회	88
<표 IV-32> 담당자의 여성교육 이해도	88
<표 IV-33> 여성사업 강화에 대한 담당자의 인식	89
<표 IV-34> 여성평생교육기관과의 교류 경험	89
<표 IV-35> 여성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경험	90
<표 IV-36> 여성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연수기회 제공 경험	91
<표 IV-37> 여성계의 자문 경험	91
<표 IV-38> 여성교육요구 반영	92
<표 IV-39> 여성의식교육 프로그램 운영	93
<표 IV-40> 성평등교육 운영	93
<표 IV-41> 취약계층여성교육 운영	94
<표 IV-42> 지역여성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95
<표 IV-43> 탁아서비스 제공	95
<표 IV-44> 여성학습동아리 지원	96
<표 IV-45> 여성학습상담 제공	96
<표 IV-46> 여성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사업의 필요성	97
<표 IV-47> 여성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의 필요성	98
<표 IV-48> 여성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원 연수사업의 필요성	98

<표 IV-49> 여성평생교육기관과의 교류사업의 필요성 .....	99
<표 IV-50> 취약계층 여성대상 교육 및 지원사업의 필요성 .....	100
<표 IV-51> 여성의식 및 성평등 교육사업의 필요성 .....	100
<표 IV-52> 여성시설 확대의 필요성 .....	101
<표 IV-53> 여성대상 사업의 우선성 .....	101
<표 IV-54> 지역여성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	104
<표 IV-55> 여성교육기관과의 교류 장애 요인 .....	104
<표 IV-56> 지역 여성평생교육교류 중심기관 .....	105
<표 V-1> 사례분석 대상 기관 .....	117

## 그 립 목 차

<그림 II-1> 평생교육 전담 기구의 역할 .....	13
<그림 II-2> 지역평생교육 네트워크 개념도 .....	16
<그림 III-1> 효고현 평생교육센터의 조직 .....	37
<그림 III-2> 사가현 평생학습센터 아반세의 2003년 사업체계도 .....	41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7

---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교육과 달리 자유로운 교육의 영역이었던 사회교육, 성인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평생교육이 새로운 국가교육의 틀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국가제도화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으나, 이미 불가피한 전세계적 흐름의 하나가 되고 있다. 제도화의 과정에서 평생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규제도 증가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 또한 크게 증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 다양한 평생교육기관들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교육정보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범주의 평생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것이 바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설립이다. 중앙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 거점기구의 설립은 학계와 현장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다.

1999년 8월 공포된 「평생교육법」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지역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을 명문화하였다. 동 법 제 13조 3항에서는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의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4조 1항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제 1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평생교육의 정보 제공, 평생학습의 상담 등을 수행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3년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26개 기관, 평생학습관 218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평생학습의 거점 기관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제도 도입기라 의도된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며, 그 방향과 역할을 형성

해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 앞으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정체성, 전문성 확립이라는 과제와 함께 이 기구들의 성인지적 운영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일반 평생교육기관들의 물성적 운영은 이미 다른 연구(박성정, 2001; 2002)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국가차원의 대표적 공공 평생교육기구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물성적 운영 역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향후 이 두 기관에 성 관점을 어떻게 투입시키느냐는 여성평생교육 발전에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국 공무원, 시·도 교육청 담당자, 지자체, 중앙 평생교육센터 담당자들에게 있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을 여성을 위한 교육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식의 부재와 접근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부족으로 이 시설들의 적절한 성인지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초기 제도 정착 단계에 성인지적 접근방향을 제안하여 여성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크다. 전국적으로 분포한 이 시설들을 성인지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지역여성의 평생교육기회 확대와 세력화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실태 분석을 토대로 이 기구의 여성교육 기능 수행 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여성교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 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제도화의 배경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설립이 추진된 배경과 과정을 고찰하고 기대되는 평생교육 기능과 역할,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 나. 외국의 유사제도 및 지역평생교육기구의 여성교육 현황

우리나라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과 유사하게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 기구들을 살펴보고 어떠한 여성교육 기능을 수행하는지 조사하였다.

#### 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여성교육 실태분석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하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일반적 운영 실태와 여성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 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여성교육 기능 강화 방안 제시

조사결과와 외국제도로부터의 시사점 도출,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여성교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3. 연구방법

#### 가. 문헌연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제도화 과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헌자료를 참고하였다.

#### 나. 설문조사

전국 244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회수된 127부를 통계처리하여 일반적 운영 실태와 여성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 다. 사례조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을 세 가지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례조사를 하였다. 기관관계자 면담을 통해 유형별 특성과 여성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 라. 전문가자문회의

1차로 중앙평생교육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운영 실태 및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2차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여성교육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 4. 연구의 제한점

첫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역사가 짧아 아직 충분히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의 기여와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유형별 사례조사에서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였고, 조사사례 수가 충분치 않아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매우 다양하여 관계자 심층면담시 특정 문제에 대한 시각이 다른 면이 있어서, 합치된 의견을 제시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 Ⅱ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제도화의 배경

- 
1. 지역중심 평생교육체제 구축의 필요성 9
  2.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기능 및 현황 11



## 1. 지역중심 평생교육체제 구축의 필요성

최근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 등과 같이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기구인 UNESCO와 OECD를 중심으로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중앙 부처 차원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해서 여성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등의 중앙 부처들이 “국민의 학습권” 내지는 “여성사회교육”, “복지 수준 향상”, “문화향수권 신장”, “직업능력개발” 등과 같이 각기 내세우는 목적은 다르지만, 국민의 평생학습 관련 사업을 정책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앙의 각 부처가 각각의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지역의 관점이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최근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체제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실제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80년대 이후부터 제시되었는데, 1983년 유네스코 교육연구소에 제출된 Knowles(1983)의 워킹페이퍼 “평생학습커뮤니티의 창조”(Creating Lifelong Learning Community)에서 평생학습자원시스템(lifelong learning resource system)을 구축하여 평생학습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개념은 이전과 같이 각 교육체제가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의 여러 교육 자원들과 기능이 통합적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체제화의 사고방식을 제시한다.

주민들은 실제로 일상생활의 공간인 지역사회에서 평생학습을 하게 된다. 따라서 평생학습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 전체를 하나로 보는 통합적 시각이 요구된다. 평생교육의 기반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정책의 주안점을 지역사회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N. Longworth, 2000; 양병찬, 1999).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주거 공간, 경제, 정치 활동 무대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습의 장이다. 지역의 자연·건

물·오락시설·도로·공장·사무실·가옥 등의 생활 환경은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언어·행동·사고방식·감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민들은 그 지역의 역사와 경제적·정치적·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지역사회는 가정, 학교와 함께 나름대로의 교육력과 교육자원을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의 중요한 공간이다. 이같이 지역사회가 평생학습의 공간으로 강조되는 것은 성인들이 일상생활의 거점이 되는 주거지에서 각각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이용해 어느 때든지 필요에 따라 학습을 용이하고 쾌적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정책도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에서 언제나 지속적인 학습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학습 환경과 조건을 정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지역을 하나의 학습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 평생학습의 종합적 추진 정책이 요청된다. 독일의 “시민대학”이나 미국의 “21세기평생학습센터”<sup>1)</sup>, 일본의 “공민관” 등이 추진하는 평생교육 사업은 모두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적 평생교육추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단위 지역에서 평생교육 사업을 하나의 종합적 평생교육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간 사업을 지역의 전담 체제가 상호 협조적 관계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1999년 기존의 사회교육법을 개정한 「평생교육법(법률 제 6003호)」은 평생교육 전담 기관으로서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센터와 시·도 차원의 지역 평생교육 정보센터, 시·군·구 차원의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평생교육의 거점으로서 평생학습관의 설치와 평생교육의 정보 제공 기능, 평생학습의 상담 기능, 지역

1) 클린턴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는 방과후 아동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평생학습 만들기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CCLC), <http://www.ed.gov/21stccclc>.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운영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이 강조되고 있다.

## 2.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기능 및 현황

### 가. 설립 과정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공포된 평생교육법(1999.8.31 법률 제 6003호)은 평생교육을 전담지원하는 기관으로 국가수준의 평생교육센터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3월 29일 평생교육센터가 출범하였으며, 7월 13일 16개 시·도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설치되었고, 이어서 평생학습관의 설치가 진행되었다.

평생교육 전담 지원기구인 중앙단위의 평생교육센터와 지역의 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이 설치 운영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었다. 1991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중 교육부문의 계획안에 ‘사회교육원’을 중앙과 지역단위로 1996년까지 10개원을 설치하려는 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제14대 대통령선거 공약 중 교육부문 공약에도 전국 10개 지역에 ‘종합사회교육원’을 건립하겠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민정부에 들어서도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출한 제3차 교육개혁안 중 사회교육개혁방안(1996.8.20)에서도 사회교육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교육개혁방안에서는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교육 실천 사업을 전담할 기구를 교육부 산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이 기구는 전국의 사회교육을 총괄하는 기능과 함께 제2차 교육개혁안(1995.5.31)에서 제시된 국민교육계좌제도의 발전, 범국가적 종합사회교육프로그램 기획, 사회교육 연수, 사회교육 종합 연구, 평생교육 학술자료·정보센터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사회교육을 유기적으로 조직하고 통합운영하기 위해 지역중심의 ‘사회교육관’을 지정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개혁방안을 기초로 작성된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운영계획(1997.1.18)’에서는 중앙사회교육원과 지방사회교육원으로 분리하여 기구를 설치하며, 중앙의 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행정연수원을 확대 개편하여 신설하고, 시·도 수준에서는 기존의 지역 사회교육기관·시설·단체를 활용하여 지방사회교육원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제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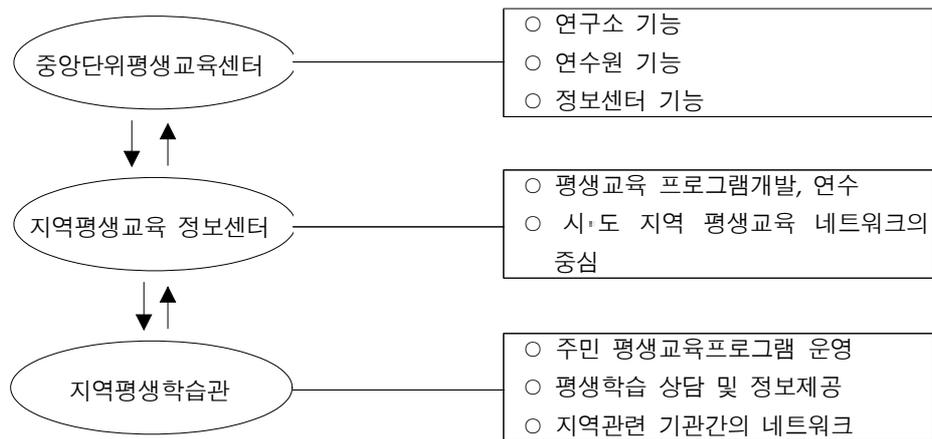
이후 교육부는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개편하면서 이상의 의견을 반영한 평생교육센터 설치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평생교육법 제 13조 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등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 2항에서 교육부장관은 교육·연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교육부는 2000년 2월 15일 한국교육개발원을 평생교육센터의 주관 기관으로 지정하였고, 한국교육개발원은 3월 29일에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지역수준에서는 1996년 11월에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의 주요 사업으로 ‘지역중심 사회교육관 지정·운영’이 채택되어 1997년부터 지역중심 사회교육관을 지정·운영해왔다. 지역수준의 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 설치·운영은 1999년 8월 31일에 공포된 평생교육법에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지역평생학습관 설치·운영을 명문화함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동법 제 13조 3항에서는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14조 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육단체 또는 시설을 지원하여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평생교육의 정보 제공, 평생학습의 상담 등을 수행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를 중심으로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호연계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와 정보제공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0).

### 나. 기능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전담 조직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연수, 연계 거점, 학습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제공 기능을 하는 전담 기구로서 국가 수준에는 평생교육센터를, 시·도 수준에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시·군·구 수준에는 평생학습관을 설치 할 수 있게 되어 현재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에 따라 2000년 3월 29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중앙 단위의 평생교육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그해 7월 13일 16개 시·도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설치되었다. 또한 지역별로 평생학습관 설치의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평생교육 전담 기구가 설치되면서 국가의 평생교육지원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2001). p.28

<그림 II-1> 평생교육 전담 기구의 역할

#### 14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여성교육 기능강화 방안

지역평생교육체제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수직적으로는 평생교육센터·평생학습관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고, 수평적으로는 지역 내 모든 평생교육기관들을 연계하는 구심체가 되도록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13조 3항에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운영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로 도서관, 시·군·구민회관, 문화원 등 기존의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거나 신설하여 지역 단위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평생학습센터로서의 기존의 역할과 아울러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평생교육 전담 지원기관인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역할과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명시된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기능은 평생교육법 제13조와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가 시달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서(2000.7.13)’에서는 동 센터의 기능으로서

- ① 중앙단위의 평생교육센터와 상호연계체제 구축
- ② 지역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호연계체제 구축
- ③ 평생학습관의 기능
- ④ 평생교육의 정보 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 ⑤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연수
- ⑥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다.

평생학습관의 기능으로는

- ①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 ②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 ③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 ④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 ⑤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0)

중앙의 평생교육센터는 국가의 장·단기 평생교육정책 수립과 관련된 연구, 평생교육자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지역의 평생교육 단체 및 시설간 상호연계체제 구축과 중앙 평생교육센터와의 연계체제 구축 등 지역의 평생교육정보 교류지로서 역할이 강조되는 것으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군·구의 평생학습관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학습관으로 연구나 연수기능보다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능이 더 강조되고 있다. 중앙의 평생교육센터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그리고 평생학습관간에는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긴밀한 교류협력이 강조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1).

이상과 같이 중앙평생교육센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지역평생학습관이라는 평생교육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평생교육네트워크를 개념도로 그려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이희수 외, 2002) 수직적으로는 교육부,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으로 이어지는 체제를, 그리고 유관기관의 협의·조정기구로는 인적자원조정회의, 평생교육센터운영위원회,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를, 수평적으로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평생교육법상의 8대 유형과 다른 법률로 정한 평생교육시설을 연계하고 있다.

16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여성교육 기능강화 방안



<그림 II-2> 지역평생교육 네트워크 개념도

출처 : 이희수·양병찬·한승희·이현석·허준(2002). 지역평생학습사회의 실현 방안.

II.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제도화의 배경 17

한국교육개발원. p.30.

## 다. 현황

### (1)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각 교육청으로부터 복수 추천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평생교육법 제14조 1항에 근거하여 1차로 2000년 7월 전국 16개 시·도에 23개 기관이 2년 기한(2000~2001년)으로 선정되었고, 2001년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2002년 1월에 총 26개 기관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선정 및 재지정하였다.

충남, 부산, 인천 등 7개 지역은 단일기관이 아닌 컨소시엄 형태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핵심기능인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간의 연계 역할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이다.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중에는 상호 협력이 원활하여 단일 기관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협력체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다.

한편, 지정된 기관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26개 기관 중 대학 및 전문대학이 11개 기관(4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6개로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과 도서관의 지정 비율이 높은 것은 고등교육기관이 교육시설 확보나 자원 수준에서 다른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앞서 있고, 도서관은 교육청 산하기구로 지정의 편의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여성전문교육기관은 한 곳도 없다.

사업 운영 현황을 보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많고, 교육청 산하 공공 기관 중에도 그동안 지역 중심 평생학습관을 운영해 온 기관이 많기 때문에 센터로서의 기능 수행 외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 평생교육의 거점 및 정보 교류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표 II-1> 1, 2차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 현황

지역	1차 지정기관(2000~2001)	2차 지정기관(2002~2006)
서울	마포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
부산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부산대학교(컨소시엄)
대구	대구시립중앙도서관	대구시립중앙도서관
인천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인하대학교
대전	대전광역시북구도서관, 대덕대학 평생교육원(컨소시엄)	대전대학교
광주	금호교육문화회관, 조선대학교(컨소시엄)	금호교육문화회관, 조선대학교(컨소시엄)
울산	울산남부도서관, 울산대학교(컨소시엄)	울산남부도서관
강원	춘천평생교육정보관	춘천평생교육정보관
경기	수원대 평생교육원	경기교육정보연구원
충북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남	충청남도 학생회관, 공주대, 천안대, 천안외대(컨소시엄)	충청남도 학생회관, 공주대, 천안대, 천안외대(컨소시엄)
전북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남	순천대학교 사회교육원	순천대학교, 동신대평생교육원, 담양공공도서관(컨소시엄)
경북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컨소시엄)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컨소시엄)
경남	경상남도교원연수원	경상남도교원연수원, 거제평생교육원(컨소시엄)
제주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
계	23개기관(컨소시엄 7개기관)	26개기관(컨소시엄 10개기관)

출처: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2). 평생교육백서. p.86.

<표 II-2> 선정 기관의 유형별 분포

분류	국립 대학교	사립 대학교	전문대학	도서관	평생 학습관	연수원	교육 정보원	문화 회관	계
기관수	4(3) 15%	5(3) 19%	2(2) 8%	6 23%	2 8%	1 4%	4(1) 15%	2(1) 8%	26(10) 100%(38%)

\* ( )는 컨소시엄 구성 기관

### (2) 지역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 제1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과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을 위해 교육감이 설립한 기구이다. 다시 말해, 시·군·구나 읍·면·동 단위에 설치된 평생학습관은 지역단위의 평생학습관으로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아울러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연수 및 정보제공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218개의 평생학습관은 해당지역의 실정이나 기관의 설립주체에 따라 사업의 특성이 다소 다를 수도 있겠으나 이 역시 초창기라서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연수·정보 및 상담 제공 사업은 아직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평생학습관의 지역별 현황과 기구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평생학습관은 지역 특성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신설하거나 도서관, 시·군·구민회관, 문화원 등 기존의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218개의 평생학습관이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도서관이 지정된 경우가 63.3%로 가장 많으며 9개의 평생학습관/평생학습원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밖에 대학,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초중등학교, 학생회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고 있다. 평생학습관중 여성기관은 대구 동부여성문화회관, 전국주부교실대전지부, 수원여대 사회교육원,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의 4개(1.8%)에 그치고 있다(2002년 12월 기준).

<표 II-3> 지역별 평생학습관 현황

(2002년 12월 현재)

기관명	기관수	백분율(%)	기관명	기관수	백분율(%)
서울	4	1.8	강원	18	8.3
부산	10	4.6	충북	14	6.4
대구	8	3.7	충남	20	9.2
인천	6	2.8	전북	14	6.4
광주	13	6.0	전남	19	8.7
대전	17	7.8	경북	3	1.4
울산	4	1.8	경남	23	10.6
경기	40	18.3	제주	5	2.3
합계	218				

출처: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2). 평생교육백서. p.88.

<표 II-4> 평생학습관 기구유형별 현황

(2002년 12월 현재)

기관명	기관수	백분율(%)	기관명	기관수	백분율(%)
도서관	138	63.30	고등학교	3	1.37
평생교육관(교육청)	8	3.66	연수원·수련원	2	0.91
대학	15	6.88	초등학교	2	0.91
문화원, 문화회관	10	4.59	박물관	1	0.45
사회복지관	9	4.12	연구원	1	0.45
교육청	8	3.66	중학교	1	0.45
학생회관·복지관	7	3.21	평생학습원(지자체)	1	0.45
지역사회교육협의회	3	1.37	주민자치센터	7	3.21
합계				218	100

출처: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2). 평생교육백서. p.89.

이와 같이 중앙과 지역 수준에서 평생교육 거점기관이 지정되어 전국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가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여성’이나 ‘여성평생교육기관’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지는 못하다. 아직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지정과 기본 업무 확립에 급급하고 있는 제도화의 초기 단계로서, 본격적인 기구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듯하다. 이 단계에서 위 기관의 성인지적 운영에 대한 요구는 때 이른 접근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특정 형태와 문화로 자리잡기 전에 ‘여성의 요구’가 미리 반영되고 통합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정책개발의 토대로서 다음 장에서는 외국 지역평생교육전담기구의 여성교육 현황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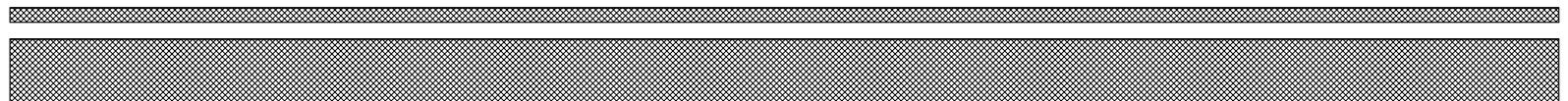
Ⅲ



외국 지역평생교육전담기구의  
여성교육 현황

---

1. 독일	25
2. 일본	29
3. 호주	45
4. 시사점	53



이 장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기구의 외국 사례와 그 기구들의 여성교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과 동일한 체제는 아니지만 각국이 지역주민과 여성을 위해 운영, 지원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1. 독일

### 가. 법적, 제도적 기반

독일은 국가 또는 공적으로 책임을 질만한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인교육<sup>2)</sup>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여 성인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 법적 근거로 독일 헌법에서 “성인교육·계속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본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주별로 법규를 만들어 이 기본권에 대한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원래 독일의 성인교육은 1960년대까지 나치즘시대에 대한 반성으로 특정의 세계관이나 정치관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성인교육시설들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주창하며 자유성인교육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1970년대 이후 “공권력의 관여에 관한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주(州)의 성인교육·계속교육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는 통합적인 성인교육이라는 관점에 근거해서 성인교육·계속교육의 공적 보장과 재정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에 관한 권한이 각 주의 교육학술성에 있기 때문에 성인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도 주마다 각각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성인교육·계속교육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三輪建二, 2002 : 68).

－ 제도의 촉진과 지속성, 질적 보장을 위해서 시설의 기본 구조가 보장된다.

2) 독일에서는 아직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지 않았고, 주로 성인교육(Erwachsenenbildung) 혹은 계속교육(Weiterbildu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노동조합, 고용자협회, 교회 등의 사회단체로부터 독립된 성인교육시설이다.
- 자치체와 주의 여타 교육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 모든 시민과 그룹에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주의 성인교육·계속교육관련법과 함께 주 차원의 교육휴가법, 연방 수준의 직업계속교육관련법(고용촉진법, 1969년; 직업교육법, 1969년; 직업교육촉진법, 1969년, 1994년개정)의 제정을 통해서 모든 국민은 직업능력향상을 위해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1983년에는 연방교육촉진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계속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원격교육에 의한 교육의 촉진과 의무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마친 젊은 청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제2의 교육의 길”을 통해 고등교육의 입학 자격을 취득하는 것 등을 촉진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이러한 제반 법규를 기반으로 독일의 대표적인 평생교육 전담 기관인 시민대학(Volkshochschule ; VHS)은 공적 책임을 갖는 성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여기에 수반되는 재정적 보조를 받아왔다<sup>3)</sup>. 시민대학은 2000년 현재 전국에 본관 998개와 지부 3,537개가 있고, 557,000 이상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가 인원은 60만 명 이상이 된다(DIE, 2001: 10. 25). 국가의 공식적 성인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지역평생교육전담기관(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지역평생학습관)에 해당하는 시민대학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법인체로 독립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성인교육기관 중 그 규모, 시설, 프로그램의 다양성 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며, 그와 동시에 그 참여자의 75%가 여성임을 볼 때, 중요한 여성 성인교육기관이라 평가할 수 있다. 시민대학을 중심으로 독일 여성성인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3) 시민대학을 포함한 성인교육기관들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각 법규 실행규칙이나 기준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이 기준에는 수업시간의 수, 최소 2년간 자체적으로 실시한 성인교육과정, 평생교육사와 같은 전담교육인력의 고용, 성인교육발전방안 등이 포함된다.

## 나. 여성평생교육 현황

성인교육의 공적 지원이 시작되었던 1970년대는 시민단체, 정당활동, 자조모임 등을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에서도 여성성인교육 차원에서 큰 변화의 모티브를 제공하였다. 체제적 측면에서 국가의 공적 지원을 받는 시민대학 등의 성인교육 공적 지원체제가 확립되었으며,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성인교육 프로그램이 여성의 생애를 반영한 새로운 여성교육과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시민대학(Volkshochschule ; VHS)은 물론이고 새롭게 여성센터나 여성의 집 등이 건립되면서 여성성인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여성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 다양화 되었으며 이와 함께 프로그램도 일반교양교육중심에서 직업교육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결혼과 출산에 따른 직업생활의 단절에서 교육을 통한 재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시민대학의 교육과정은 ① 정치-사회-환경, ② 문화-조형, ③ 건강, ④ 언어, ⑤일-직업, ⑥ 학교교육과정(보습교육 및 검정고시과정)으로 구분된다. 수업시간별로 분류할 경우 직업교육이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한다. 그리고 여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남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수업시간의 수에 비하여 현격하게 많다. 시민대학에서 제공된 교육과정에서 1980년 후반기부터 특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137개 시민대학에서의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변화의 연구(Eberhardt, 1994)에서 1968년까지 7개의 시민대학에서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나 1978년에 44개 시민대학이, 1988년 104개 시민대학이, 그리고 1992년 137개 시민대학이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프로그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인아, 2001 : 2-3에서 재인용).

독일 성인교육연구소가 1997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35%가 여성만을 위해 개설된 프로그램이었다. 환경교육(Ukologische Bildung), 건강교육(Gesundheitsbildung)과 함께 여성교육(Frauenbildung)은 시민대학이 미래에 계속 중점을 두게 될 주제이다.

프로그램 구성에서 여성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은 각 시민대학마다

다르다. 여성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경험하는 여성문제를 평생교육에서 다룸으로써 여성의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지위를 향상하고,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면, 여성/아동폭력의 문제, 인종문제, 여성시각에서 본 도시 계획, 여성의 시각과 남성의 시각; 남녀관계, 여성을 위한 건강 증진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한편 대상 집단별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비슷한 문제를 가진 여성들이 함께 학습하여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정주부를 위한 사회교육을 비롯하여 실직여성의 직업교육, 육아 휴직중의 능력개발, 생활보호대상여성의 직업능력향상, 학교교육의 보습과정, 대졸 외국출신 여성의 재취업교육, 고등교육여성을 위한 직업계속교육, 미혼 모진로교육, 모자가정여성을 위한 직업만족향상프로그램, 장애여성, 농촌여성, 싱글여성, 중/고령여성, 자원봉사여성 등을 위한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다. 사례: 함부르크 시민대학

1997년에 독일의 함부르크시에서 제5차 국제성인교육회의가 열렸다. 이 도시의 시민대학의 여성교육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시민대학도 1970년대부터 여성문제·환경문제·평화문제 등의 새로운 학습내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본관을 이전하여 적극적인 지역사회 활동과 외국인노동자에의 지원 활동 등의 목표집단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함부르크시민대학은 본관 이외에 5개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컴퓨터교육센터와 시민대학하우스가 있다. 강좌는 이 시설들에서는 물론이고 지역의 학교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함부르크시민대학의 전임 교육직원은 목표집단활동, 어학, 일반교양, 직업계속교육의 네 가지 프로그램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함부르크시민대학의 동부지역센터는 1996년 겨울 학기에 26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그 중 목표집단 프로그램과 직업계속교육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 가운데 목표집단 활동에 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함부르크시민대학의 프로그램

목표집단	교육내용
여성	중년기의 새로운 길, 중년기의 여성, 여성도 할 수 있다.
고령자	놀이에 의한 기억력 훈련 외
장애인	읽고 쓰기 입문, 계산입문 등
교육휴가자	컴퓨터, 덴마크어, 영어, 전쟁인가 평화인가 외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외국인 노동자와 거주자를 위한 독일어 입문강좌, 외국인 여성을 위한 독일어 입문 외
기초교육	시민대학의 일반 수업이 불가능한 성인 대상프로그램 영어입문, 계산입문, 컴퓨터입문 등
학교수료증	기간학교수료증, 실과학교수료증 등
타문화이해교육	독일인과 비독일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
젊은이를 위한 시민대학	인형극, 기타, 댄스 등

출처 : 三輪建二(2002). 「ドイツの生涯學習」. 東京 : 東海大學出版會. p. 101.

한편, 베를린 교외에 있는 숙박제시민대학 야크토슈로즈 그리니케(VHS Jagdschlo ß Glienicke)는 주로 국제교류프로그램에 특징을 보이는 기관이다. 이 기관의 1998년 하반기 프로그램 가운데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성아카데미]가 있다. 전체 7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아카데미는 예를 들어 “자신을 강하게 : 경건에서 배운다(5회시리즈, 292.75마르크)”, “괴테의 여인들(3일간의 주말세미나와 현장 견학, 292.75마르크)”, “여성과 재력(3일간의 주말세미나, 139.50마르크)” 등의 시리즈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 2. 일본

### 가. 법적, 제도적 기반

일본은 패전 직후인 1949년에 『사회교육법』<sup>4)</sup>을 제정하면서 사회교육에 대

한 공적 지원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일본 교육법 제7조를 근거로 하는 사회교육법은 사회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민관 및 기타 사회교육시설의 설치 운영, 사회교육위원의 위촉, 사회교육전문직화, 자치적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법적 근거로 한 일본 사회교육은 『공민관』(公民館)이라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공적 사회교육의 성격을 견지하여 왔다. 이 법을 공민관법이라고 별칭 할 정도로 공민관에 대한 구상이 일본 사회교육의 공적 정비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었다.

일본 정부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급변하는 국내외 사회·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다. 1987년 임시교육심의회 의 최종 답신을 통해 “평생학습체계의 이행”이라는 구상이 정책화되어 『중앙교육심의회』는 1990년 1월 30일 “평생학습의 기반 정비에 관하여”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sup>5)</sup>. 이로 인하여 기존의 공민관 중심의 공적 사회교육 추진 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교육법과 함께, 1990년 6월에 『생애학습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계의 정비에 관한 법률』(일명 『생애학습진흥법』)<sup>6)</sup>이 제정되었다.

생애학습진흥법은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

4) 그 후 『도서관법』(1950년), 『문화재보호법』(1950년), 『박물관법』(1951년), 『청년학급진흥법』(1953년) 등의 제정을 통해 문부행정상 제도가 정비되어 사회교육 행정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었다.

5) 그 심의회의 중심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의 종합적인 진흥을 위한 평생학습추진체제, 학습정보의 제공, 평생학습에 관한 전문가의 자격, 평생학습 활동의 중점지역에 관한 법적 정비를 행하면서 민간교육사업의 지원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작업을 검토하였다.

둘째, 지역의 평생학습의 중심 기관이 되는 『평생학습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주체적인 강좌 등의 사업을 행하면서 방송대학의 학습센터가 되는 등 각종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꾀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셋째, 평생학습센터에서의 학습과 교육훈련기관의 학습의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학교교육의 학점으로서 전환하는 기본적인 틀과 각종 공적 자격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넷째, 단기대학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 사회적·지역적 요구의 변화 등을 검토하면서 평생학습의 기반 정비에 관한 제 시책과의 관련해 평생학습센터의 개설을 장려하는 등 평생학습기관의 새로운 역할을 검토하였다.

6) 『生涯學習の振興のための施策の推進體制等の整備に關する法律』1990. 2.

학습을 촉진토록 하며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의 제정은 평생학습 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전 부처에서 평생학습을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시켰고,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체제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히 문부대신 및 통상산업대신은 종합적인 평생학습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평생학습시책을 통한 직업능력개발과 사회복지 향상
- 나. 지역주민의 종합적인 생애학습제공을 위한 민간사업자 활용
- 다. 주민의 학습수요조사 및 성과 평가, 학습지도자 연수
- 라. 지역실정에 맞는 강좌 및 학습방법 개발
- 마. 지역단위로 학교, 사회교육기관, 문화기관 및 단체상호간의 연계체제와 상담, 조언, 정보자료 제공, 시청각 미디어 활용
- 바. 생애학습정보시스템과 학습상담체제 구축
- 사. 문부성과 교육위원회에 생애학습심의회 구성
- 아. 민간사업자의 생애학습부담금의 조세특별조치법에 의해 손비처리
- 자. 상공회의소 및 상공회의소 단체 및 회원에 대한 생애학습 기회제공과 협력요구 등이다.

『생애학습진흥법』의 법제화는 “사회교육에 관련된 법령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새롭게 볼” 목적으로 사회교육법제의 전환을 계획하였던 것이다(小林文人·藤岡貞彦, 1990 : 42-43). 『생애학습진흥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평생학습사회의 진흥 단계로 접어들면서 지역에서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정책, 평생학습심의회, 평생학습추진센터 등의 기반 정비가 정부와 민간 부문이 연계·통합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도도부현(都道府縣)·시정촌(市町村)의 평생학습의 추진체제를 정비하는 것과 지역의 평생학습 중심 기관으로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회교육시설은 생활권역의 공민관 중심 체제였으나 이제 광역화된 사회교육시설인 지역별 평생학습센터가 현(縣, 우리나라의 도 수준) 차원과 시 차원에서 계속 설치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편, 정부의 평생학습 관련 조직은 문부성 『사회교육국』이었다가 1988년

6월 문부성의 조직령 개정으로 이 국을 폐지되고 『평생학습국』(生涯學習局)을 문부성의 수석국으로 설치하였다. 8월에는 『평생학습심의회』를 설치하여 평생학습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종래의 사회교육국을 확충·개편하여 설치한 『평생학습국』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가정교육, 학교교육, 스포츠, 문화활동, 남녀공동참여교육, 사회교육 진흥 등에 대하여 종합적 시책으로 기획·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지자체주의, 시설주의, 주민주체주의의 기본 이념에 따른 일본의 대표적인 사회교육시설 공민관과 새로운 평생학습진흥법에 의해 설치되고 있는 거대 시설로서의 평생학습센터가 대표적인 지역기반 시설이다. 패전 직후부터 만들어졌던 공민관은 1999년 현재 18,257개(본관과 분관 합계)로 설치자별로 보면 조합 1개소, 법인 6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정·촌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 한편, 평생학습센터는 도·도·부·현에 42개 관, 시·정·촌에 168개 관이 설치되었다.

## 나. 여성평생교육 현황

1975년 “국제여성의 해”와 그에 이은 “UN여성 10년” 이후 성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움직임이 추진되었다. 또한 1995년 9월, 제4회 세계여성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어 여성 발전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 방침으로서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sup>7)</sup>이 채택되었다. 거기에서 2000년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다룰 분야가 제시되고 각국은 1996년까지 행동프로그램 책정을 마치도록 권고되었다. 일본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남녀공동참여심의회로부터 답신 『남녀공동참여비전-21세기의 새로운 가치의

7) 총 6장 362항으로 되어 있는 북경선언 [행동강령]에서는 정부와 비정부기구(NGO)와 사적 부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다음 12가지의 주요 관심분야에 전략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즉, 여성의 빈곤 부담 가중, 불평등한 교육기회, 불평등한 보건서비스, 여성에 대한 폭력, 전쟁 및 분쟁상황에서 여성들의 피해, 경제참여에서의 불평등, 정책결정과 권력 참여에서의 불평등,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관련 체제의 미흡, 여성인권의 보호와 발전, 여성지위와 관련된 매스미디어의 문제, 여성과 환경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부족, 여자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5).

창조』를 받아들여 1996년 12월에 『남녀공동참획2000년 플랜-남녀공동참획 사회의 형성의 촉진에 관한 2000년까지의 국내행동계획』을 책정하였다.

또한 1999년 6월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을 공포하여 21세기 중요 과제로 남녀공동참여기획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남녀공동참획사회란 “남녀가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친 활동에 참여 기획하는 기회가 확보되고 또한 남녀가 균등하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께 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도도부현(都道府縣) 수준과 시정촌(市町村) 수준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千葉현의 경우는 1996년 『치바새로운시대여성플랜』을 책정하였고 치바현여성정책추진본부를 설치하였고, 치바현여성센터를 치바현평생학습센터인 현민프라자에 복합시설로 개설하였다. 치바현의 松戸(마쯔토)시는 1994년 여성과와 부인회관을 통합하여 여성센터를 설치하였고 1997년에 『마쯔토시남녀공동참획플랜』을 제언하였다. 위의 남녀공동참획 2000년 플랜에서는 남녀공동참획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학습에 강조를 두고 있다. 지자체에서의 참획플랜에서도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일본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은 국립여성교육회관을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여성회관, 여성교육회관, 여성센터 등의 명칭으로 여성교육기관이 전국에 207개가 있다(<표 III-2> 참조). 일본 여성교육 사업은 국립여성교육회관(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을 중심으로 지원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여성교육회관은 1977년 문부성 산하의 국립부인교육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었다가 정부기관의 독립법인 추세에 맞추어 2001년도 독립법인화 되었다. 이 기관의 사업은 연수사업, 교류사업, 조사·연구사업, 정보사업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2002년도의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I-2> 일본국립여성교육회관의 사업

사업명	내 용
연수사업	여성관련시설직원을 위한 세미나 교사를 위한 남녀평등교육세미나 국제여성정보처리연수 여성의 임파워먼트지원세미나 여성의 교육추진세미나 남녀공동참여학습추진포럼 사회교육실습생연수
교류사업	여성학·젠더 연구 포럼 여성정보국제 포럼 NWEC(여성회관약칭)2002·전국교류페스티벌
조사·연구사업	젠더 통계에 관한 조사 연구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평생학습확충에 관한 조사 연구 여성의 학습관심과 학습행동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자녀교육서클 등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NWEC 공개 심포지움 여성 및 가정에 관한 학습정보의 조사 연구
정보사업	여성교육정보센터의 운영 : 여성 및 가족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립·정리·제공 네트워크 지원 : 여성관련시설 등의 정보네트워크 연구협의회, 여성관련시설 직원을 위한 ICT습득 지원프로젝트 자료의 작성·배포 : 국립여성교육회관연구지, 뉴스레터, 여성학·젠더연구포럼보고서 정보발신사업 : Winet정보 제공 및 원격정보발신사업

출처 : 日本國立女性教育會館(NWEC). 2002年度 事業計劃.

이 가운데 “남녀공동참여학습추진포럼”은 지역의 현황과 주민들의 학습 요구에 대응하는 평생학습의 추진과 광역적인 시설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충실히 도모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여성시설 등과 연계하여 개최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이다. 2002년도에는 ①재단법인 秋田현 부인회관(주제 :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성은 인권-), ② 埼玉현남녀공동참여추진센터(주제 : 埼玉현 각 지역의 남녀공동참여를 생각한다), ③ 富山시여성교류센터(주제 : 가정과 지역, 직장에서의 남녀공동참여 어떻게 추진할까), ④ 滋賀현립남녀공동참여센터(주제 : 남녀공동참여에서 배운다, 행동하여 만든 새로운 형태의 삶과 지역만들기)의 4개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표 III-3> 일본 여성교육기관

구분	도도부현	시(구)	정촌	법인	계
1996	13	65	23	124	225
1999	6	73	19	109	207

출처 : 文部省(1998, 2003). 文部統計要覽.(국립여성교육회관 제외).

일본에서는 여성교육 전용시설로서 부인회관, 여성회관, 여성교육회관, 여성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는데 1996년에 225개이던 시설이 1999년 207개로 줄고 있다. 이는 남녀공동참여사회계획에 의해서 지역의 여성담당행정기구와 여성센터를 합쳐 남녀공동참여센터 등으로 명칭을 바꾸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독일의 대표적인 평생교육 기관으로 시민대학을 말할 수 있다면, 일본에는 기초생활권의 평생교육기관으로 공민관이 존재하고 있어 오랫동안 일본 평생교육을 이끌어 가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지역사회교육의 중심인 공민관도 시민대학과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참여율도 높아서 전체 강좌 수 263,798개 중 여성만을 위한 강좌수가 46,736개로 전체의 17.7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부인교육시설에 있는 전체 7,957개의 강좌 중 여성만을 위한 강좌수가 3,905개로 전체의 49.08%를 차지하고 있다.<표 III-4>참조)

<표 III-4> 개설자별 학급·강좌수급 학급생·수강자수

구분	학급·강좌수						수강자수
	계	청소년 대상	성인 일반 대상	여성대상	고령자 대상	기타	
공민관	263,798	31,903	134,328	46,736	27,045	23,786	9,617,393
부인교육시설	7,957	...	...	3,905	...	...	218,172
도도부현	2,320	462	1,347	69	189	253	134,547
구시정촌	104,368	14,611	57,796	11,578	9,844	10,539	6,174,815
계	378,443	46,976	193,471	62,288	37,078	34,578	16,144,927

출처 : 文部科學省(2003). 文部統計要覽.

## 다.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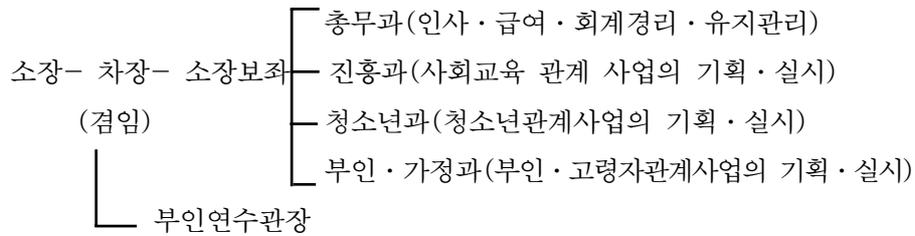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교육체제는 다양하다. 평생학습센터내의 한 부서로서 여성교육센터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독립적인 기구가 서로 복합적인 경우도 있다. 또한 자치단체가 평생교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여 평생교육과 여성교육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하나 관통하고 있는 원리는 시설의 복합화<sup>8)</sup>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기 다른 설치 목적과 시설 기능을 가진 복수의 주민 서비스용 시설을 동일 건물 또는 동일 단지내에 설치해서 건축물로서의 합리화, 효율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결합된 각각 시설의 서비스 기능을 훨씬 더 높이고, 또는 시설 상호간의 협력, 연계, 상호작용에 의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시설의 고기능화, 고성능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시설의 복합화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합된 시설의 독립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자세이다. 1층에서 3층까지는 문부성 보조금에 의한 평생학습센터를, 1층은 도서관의 분관을, 2층은 남녀공동학습센터를, 4층은 노동성 보조금에 의한 일하는 여성의 집 등 교육시설을 연계해서 시설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 (1) 효고현평생교육센터

일본 최초의 평생학습센터인 효고현립우레시노다이(嬉野台) 평생교육센터는 효고현 내륙지방의 시골지역에 위치하여 고베에서 서쪽으로 1시간 이상 걸리는 加東郡 社町에 약 13만평의 넓은 대지에 부인회관, 청소년야영장과 숙박시설을 겸비한 종합교육센터이다. 1979년 7월 1일에 개소한 평생교육센터는 효고현립부인연수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 조직은 평생교육센터 소장 밑에 차장이 부인연수관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총무과, 진흥

8) 시설 복합화는 1) 용지난에 따르는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의도한 건물의 일체화, 고층화 2) 재정난으로 인한 중앙의 여러 부처로부터 시설비보조금과 용자를 모아서 소형시설을 결합해서 적당한 규모로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3) 통폐합에 의하여 생긴 공간의 효율적 다각적인 이용, 4) 시설 집적에 따른 운영비와 직원수의 합리화 5) 서로 다른 시설보조금을 합하여 기념비적 시설을 탄생시키거나 지역 개성적인 시설 조성, 6) 각종 시설을 모아 각 시설의 합리화와 새로운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는 데 취지가 있다.

과, 청소년과, 부인·가정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림 III-1> 효고현 평생교육센터의 조직

출처 : 효고현 평생교육센터 요람(1996)

부인연수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본관과 학습교류동, 성인숙박동, 청소년숙박연수동, 체육관 등 총면적 404,624.05㎡의 거대 시설이다. 기타 시설에는 청소년광장, 테니스코트, 다목적 운동장, 제1캠프장, 서바이블캠프장, 청소년캠프장, 사색의 숲, 모험의 길, 모험의 하천, 잔디광장, 부인의 숲, 효고어머니 숲이 있다.

각 과별로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흥과에서는 26개의 사업을 도민과 평생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있고, 청소년과에서는 4개 사업을 주로 청소년과 청소년 관계자를 대상으로 1년 주기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부인·가정과에서는 여성지도자 연수, 여성세미나, 여성교류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III-5> 효고현 평생교육센터의 시설

건물명	규모·구조	내용
본관 (부인연수관)	철근콘크리트조 2층 연면적 2,713㎡	사무실, 목공실, 도예실, 수예실, 염색실, 유아실, 회의실, 음악실, 연수실(1,2,3 계200명), 제4연수실(50명) 제5연수실(30명), 성인식당, 도서자료실(7519권)
학습교류동	철근콘크리트조 2층 연면적 1,249㎡	강당, 시청각실, 16mm 필름277권, 비디오테이프 830본, 전시코너, 사무실
성인숙박동	철근콘크리트조 2층 연면적 1,083㎡	양실11실, 화실15실 정원58명
청소년숙박연수동	철근콘크리트조 2층 연면적 1,310㎡	10동(1동48인) 정원480명
리더관리동	철근콘크리트조 2층 연면적 382㎡	리더숙박실 4실 정원10명
청소년식당동	연면적 519㎡	
체험공작동	철근 연면적 448㎡	공작실, 기구실, 관리실
체육관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2,713㎡	대체육실780㎡, 소체육실100㎡
스포츠관리동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250㎡	샤워실, 탈의실, 로비

출처 : 효고현 평생교육센터 요람(1996)

<표 III-6> 효고현 평생교육센터 과별 사업

담당	사업명	대상자	기간, 횟수
진흥과	신입사회교육관계직원 등 연수강좌	신입사회교육직원(도, 시, 군)	3박4일 1회
	사회교육주사 등 연수회	사회교육전문직원	2박3일 1회
	양친교육지도자양성강좌	시군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2박3일 2회
	양친교육지도자연수회	양친교육지도자	2회
	시청각교육지도자연수강좌	사회교육관계자 학교교육관계자	2박3일 3회
	시청각도서관운영	시군교육위원회 학교·사회교육관계단체등	
	학습정보제공시스템 정비충실사업	시군관계직원 및 도민	
	학습정보시스템 단말장치조작실기연수회	단말장치를 설치한 기관·시설의 직원	10회
	평생학습자원봉사 활동종합추진사업	평생학습관계자	16회
	학습상담사업	시군사회교육관계직원 및 도민 등	
	우레시노 꽃과 녹음의 축제	도민	1주일
청소년과	효고청소년세미나	초·중·고교생	여름학교(18일) 겨울학교(4일) 봄학교(4일)
	청소년지도자 자원봉사자 육성강좌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담당 직원, 학교 교직원, 청소년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등(18세 이상의 청년)	진흥과 평생 학습 자원봉사 16회 속에 포함
	자원봉사자의 만남	자원봉사 양성강좌의 수강생, PTA관계자, 학교와 관계기관의 담당자 등	1박2일 1회
	청소년 축구대회	초등학교5-6학년 남자로 편성된 16팀	2일
	평생학습자원봉사자 양성강좌(창작활동)(야외활동)(스포츠·레크레이션)(교양·안전)	자원봉사지도자를 목표로 하는 자,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담당 행정직원, 학교교직원, 그룹지도자 및 그룹지도자를 원하는 자	진흥과 평생 학습 자원봉사 16회 속에 포함
부인·가정과	여성학습 지도자 연수	효고현 여성지도자	1회
	여성지도자 국내연수	여성단체의 지도자	1회
	고노토리세미나(양육)	세미나 수강자	수시
	효고현 생활창조 대학 우레시노다이 여성세미나	효고현내의 여성창작교실	67회 (창작교실운영)
	여성교류사업	효고현내외의 여성	1회
	우레시노 학원 평생대학	효고현의 약60세이상의남여	년간 17일
	히가시하리지역 문화활성화 사업	히가시하리마 지역의 문화단체 및 현민	6회
	만남의축전지역문화사업	히가시 하리마지역의 현민	2회
	고향의 마음을 노래하는 히가시하리마 음악제	히가시 하리마지역의 현민	1회
	문화활동추진사업	히가시 하리마지역의 현민	2회

출처 : 효고현 평생교육센터 요람(1996)

## (2) 종합시설 현민프라자의 복합교육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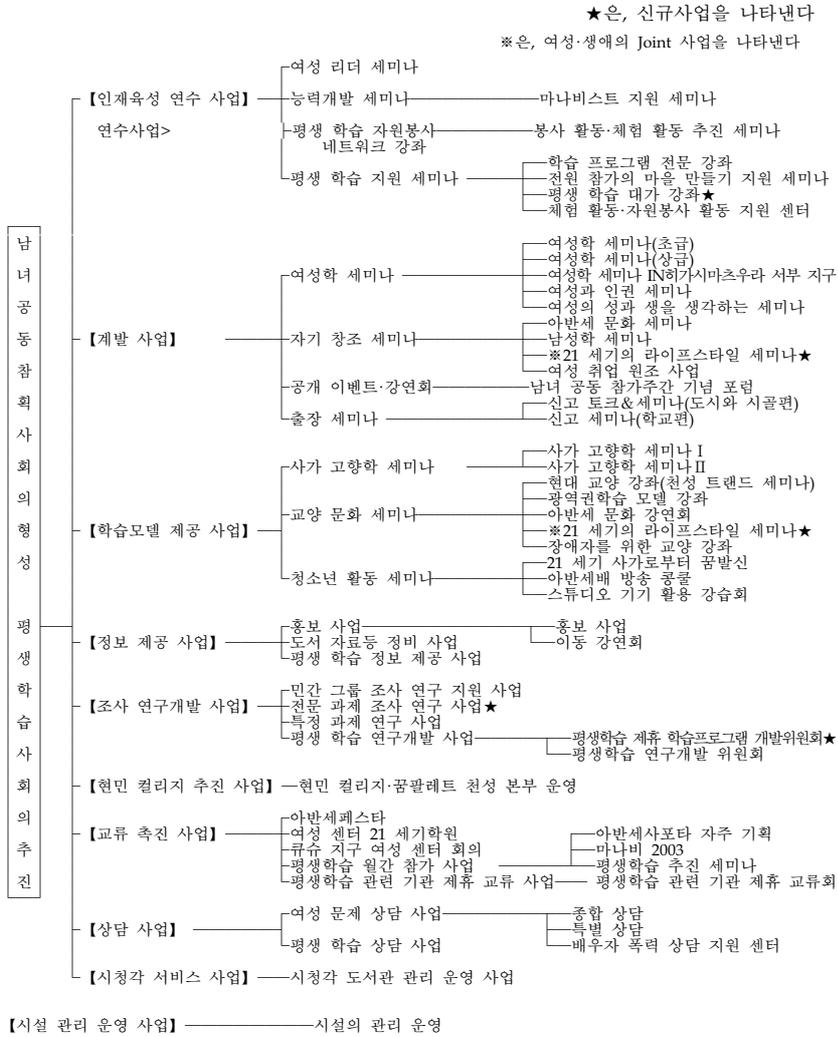
千葉(치바)현은 현민프라자라는 종합시설에 평생학습사업과 여성센터, 문화창작센터, 환경교육코너 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부서가 사업과, 여성센터, 보급과, 연수과, 정보상담과로 나뉘어 있는데 교육영역은 지식교육, 기술교육, 남녀공동참여학습, 예술감상, 자원봉사활동, 체험학습, 건강증진, 이벤트, 각 실습실 이용강습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남녀공동참여센터의 프로그램은 "여성세미나(남녀공동참여기초강좌-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며)", "여성을 위한 재취업세미나(자기를 살리는 일을 만나는 것은)", "여성을 위한 자기표현강좌(연극워크숍 : 일상의 문제를 드라마로!)", "남자가 학습한다, 아빠가 학습한다(남성을 위한 남녀공동참여세미나)", "남녀공동참여주간기념강연회", "교육자가 배운다 남녀평등교육 I, II" 등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佐賀(사가)현의 현민프라자 역시, 종합시설로서 평생학습센터와 여성센터를 복합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반세(avance)<sup>9)</sup>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이 시설은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과 평생학습사회의 추진이라는 기관 목적을 가지고 평생학습센터와 여성센터의 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

9) 스페인어로 "전진"의 의미로,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전진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 사가현 평생학습센터 아반세의 2003년 사업체계도 >



<그림 III-2> 사가현 평생학습센터 아반세의 2003년 사업체계도

출처 : 아반세의 홈페이지 <http://www.saganet.ne.jp/avance/zigyo/zigyo2-1.html>

42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여성교육 기능강화 방안

<표 III-7> 2003년 사가현 평생학습센터/남녀공동참여센터(아반세) 주최 사업

사업명	시기·시간	횟수·대상	내 용
여성취업지원기술강습회	5월-다음해 1월 오전-오후	- 여성	현재 미취업상태로 강습회 수료후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대상임. ① 컴퓨터 3급 : 아반세 5-6월, 11-12월/伊万里市 6-7월/鳥栖市 7월/ 鹿島市 10-11월/ 多久市 1-2월 ② 방문개호원2급 : 아반세 8-9월 ③ 부기3급 : 아반세 10-11월
여성학세미나(초급편)	5월·9월 오전·오후·저녁	4회 누구나	이미 여성학·여성문제를 ----에서...라고 하는 사람, 여성학입문...재입문하고자 하는 분을 위해. 젠더와 성별역할분담 등 여성에 관한 여러 문제들에 관한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사가(佐賀)고향학세미나(지역편)	5-6월 야간	6회 누구나	사가의 역사, 산업, 문화, 자연, 생활 등 여러 분야를 다방면에서 학습해 간다면, 현민 스스로가 '고향으로서의 사가'를 재인식·재발견하여 향토 애고양을 도모한다. 또한 현민칼리지의 '고향학'모델이 되는 강좌를 실시한다. 지역편- 사가의 성(城)
마나비스트(평생학습자)지원세미나	6월-2월 오전·오후	4회 누구나	현민 스스로가 이제까지 학습하였던 성과를 살려서 강좌를 만들고 스스로의 지역 발전과 평생학습추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행동으로서 지원한다.
여성센터 21세기숙(塾)	6월-3월 야간	9회 누구나	여성센터에서 학습한 당신이 주역이다. 초보자도 OK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획·운영에 발휘하고 싶은 당신에게 열려있다. 여성센터에서 학습한 사람들을 위한 주수(follow-up)프로그램으로 참가자 스스로가 기획·운영할 수 있는 기숙(塾)프로그램을 개편한다. 여성센터의 자유공간·자유시간을 당신에게 제공한다.
남녀공동참여주간기념포럼	6월 22일 오후	1회 누구나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남녀공동참여주간'이다. 남녀가 서로 그 인권을 존중하고 기쁨도 책임도 함께 나누고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남녀공동참여사회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학습프로그램전문강좌	6월-12월 오전·오후	12회 市町村교육 정직원 공민관직원	다양하게 고도화되고 있는 학습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참가체험형 방법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전개·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천적·전문적인 기술연수를 행하고 관련 직원의 자질의 향상을 도모한다.
아반세문화강연회	6월-11월 오후	6회 누구나	각계의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현대적 과제에 관해서 강연회를 개최하여 최신 정보 제공과 질 높은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여성리더세미나	6월-11월 야간	10회 여성	아반세가 '인재'를 육성한다!! 세미나로써 리더로서 활약하고 있는 혹은 이제부터 리더로 활약할 여성을 위해서 보다 한층 활성화와 임파워먼트를 도모하게 되는 전문적인 강좌로서 개최한다.
출장 토크와세미나(町村편)	6월-3월 오전-야간	14회 누구나	아반세의 세미나가 당신의 마을에서 열릴 수 있다. 원격지 등에서 가볍게 아반세를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여성에 관한 제문제에 관해서, 강사를 파견하는 출장형의 토크와 세미나이다.
여성의 성과삶을 생각하는 세미나	7월 오전·오후	4회 누구나	성과 생식에 관한 여성의 건강과 권리의 관점에서 서서 여성의 신체와 사고방식 등, 여성의 성과 삶에 관해 생각한다.
여성학세미나 IN 東松浦 서부지구	미정	4회 누구나	東松浦郡上場地區에서 여성학세미나(4회 예정)를 개최합니다. 지역의 여러분 함께 여성에 관한 다양한 과제를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봉사활동·체험활동추진세미나	7월-8월 야간	6회 누구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봉사활동·체험활동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 활동지원자 등의 관계자를 양성한다.
출장세미나(학교편)	7월-2월 오전·오후	10회 초중고교의 아동, 학생	사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생활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학교에 파견한다. 남녀공동참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III. 외국 지역평생교육 전달기구의 여성정책현황 43

사업명	시기·시간	횟수·대상	내 용
평생학습 마이스터강 좌 (신설강좌)	8월-	4회 누구나	평생학습의 성과 활용을 위해 이미 강사·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현민에게는 능력향상이 되며 또는 이제부터 지도자나 강사로서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강좌를 개편한다.
스튜디오기 기 활용 강습회	8월	1회 초중고교의 교사 등	현대의 아동, 학생 등에게 방송을 활용한 문화활동의 향상을 목적으로 아반세의 방송스튜디오를 활용한 방송기기이용의 기본 기술의 강습회를 개편한다.
현대교육강 좌 -새로운 사 업의 가 굴	8월-9월	5회 누구나	정치·경제·정보·국제관계 등 현대적 과제에 관한 교양 강좌를 실시하고 직업인의 평생학습에 관한 의식의 교양을 도모한다.
장애자를 위한 교양강좌	9월 오전·오후	1회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평생학습사회 가운데서 장애인이 보다 풍성한 삶의 보람을 가지고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강좌를 실시한다.
21세기 佐賀로부터 꿈의 발신	미정 오후	8회 고교생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가(佐賀)현 출신자로부터 청소년에게 지금까지 인생의 지침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새로운 세기를 이어갈 청소년의 육성을 도모한다.
아반세문화 세미나	10월 야간	3회 누구나	문화·예술 및 아세아의 여성의 가족관과 생활문화를 젠더의 관점에서 바르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남녀공동참여사회만들기의 의식계발을 도모한다.
평생학습 추진세미나	10월 오후	1회 누구나	풍성한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해 평생학습사회에의 이해를 깊이 하는 것과 함께 그 구조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만들기를 추진한다.
전원참가의 마을만들기 지원세미나 (출장강좌)	미정	3회 부모자식, 성인과 아동 (초중학교)	이제까지 어른들만의 영역이었던 마을만들기를 아동들에게 참가 체험하도록 하는 수법을 통해서 아동과 어른이 함께 마을만들기의 방법을 습득한다.
마나비2003 (평생학습월 간)	10월 오전·오후	1개월 누구나	사가현 교육위원회가 주최하는 평생학습 월간에 맞추어 평생학습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학습 성과를 다채로운 이벤트 형식으로 제공하여 평생학습을 한층 더 확산 보급 계발한다.
21세기의 라이프스타 일세미나(신 설)	10월-11월 야간	6회 누구나	사회구조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 변화를 인식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응하여 자신만의 생존방식을 깊이하는 자기개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여성센터와 조인트세미나)
사가(佐賀) 고향학세미 나(산업편)	11월-12월 야간	6회 누구나	사가의 역사, 산업, 문화, 자연, 생활 등 다양한 분야를 다방면에서 학습함으로써 현민 스스로가 “고향사가”를 재인식·재발견하여 향토애를 높인다. 또한 현민칼리지의 [고향학]모델이 될 수 있는 강좌를 실시한다. 산업편·사가의 의학(醫藥)
여성과 인권 세미나	11월 야간	4회 누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는 운동”을 개최한다. 여성에의 폭력은 여성의 인권 침해이다. 여성만으로는 안되고 남성도 참가를! 여성이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다양한 생존방식이 가능한 사회를 생각해보자. 여성의 인권을 여성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의 관점에서 해부한다.
평생학습관 련기관연계교 류회	11월-12월 오후	3회 교육위원회직 원 사회교육관계 민간단체	평생학습관련 NPO 등의 민간단체와 지방자치체와 학교 등이 협동하여 행하는 활동의 의의에 관해서 이해를 도모하는 것과 함께 지역의 학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과 관의 파트너십의 존재 방식을 생각한다.
광역권학습 모델강좌: 小城郡	11월- 야간	5회 누구나	연구지정모델지역에 있어서 특정과제에 관해서 관계 시·정·촌교육위원회가 행정권역을 초월하여 상호 연계하는 강좌의 개설에 관해서 연구 협의하여 강좌를 실시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의 광역권의 연계 방법을 탐구한다.

44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여성교육 기능강화 방안

사업명	시기·시간	횟수·대상	내 용
여성학세미나 (상급편)	12월 오전·오후	4회 여성	여성학을 깊이 배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녀의 성역할 분담 등 여성에 관한 문제들의 전문적 인식을 심화하는 여성학의 상급 강좌이다.
남성학세미나	1월-2월 야간	3회 남성	남성자신이 지역·가정·직장에서 삶의 방식을 바로하고 종래의 성역할분담의식에 기초한 “남자다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생각하기 위한 강좌이다. 21세기 참여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세미나이다.
아반세배(杯) 방송풍물	2월 오전·오후	1회 초중고교의 학생	아동·학생의 문화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반세의 방송스튜디오와 편집실 등을 활용하여 학교방송교육의 진흥에 자질의 풍물을 개최한다.
아반세 페스타	2월-3월 오전-야간	월간 누구나	아반세페스타는 모든 사람들의 교류와 임파워먼트의 장이다. 페스타의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한다. 강연회, 워크샵, 심포지움 등 남녀공동참여를 생각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월간행사로 하여 개최한다. 여기에 참가해주세요.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 분들과 임파워먼트하고 싶은 분들께 권한다.

• 오전 10:00-12:00      오후 14:00-16:00      야간 19:00-21:00

자료 : 아반세의 홈페이지

<http://www.saganet.ne.jp/avance/zigyo/zigyo2-1.html>

9월 말부터 시작된 [21세기의 라이프스타일 세미나]는 여성센터와 평생학습센터의 협동 기획 프로그램으로 의식주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생활을 다시 보면서 앞으로의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기획 의도이다. 또한 아반세문화세미나도 “왜 일하는 여성은 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가” “부부 밥공기의 탄생, 식생활문화에서 보는 성” “왜 여성은 예술가가 될 수 없었던 것일까” 등 여성적 관점에서의 문화 읽기가 특징이다.

그 밖에 山形(야마가타) 현은 평생학습센터(遊學館)에 현립도서관과 남녀공동참여센터(체리아)가 복합화 되어 고유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생학습센터와 남녀공동참여센터를 현이 출자한 재단법인 山形縣생애학습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남녀공동참여센터는 현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위탁받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 운영의 기본 방침은 “남녀공동참여 사회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보급·개발사업을 행하는 것과 함께 남녀공동참여 사회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그룹의 지원·교류·상담에의 대응·정보수집·제공 등, 현민의 남녀공동참여사회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노력한다”고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된 사업은 ① 학습·연수사업: 각종 강좌·연수회, 출장강의, 강사파견 등, ② 단체활동지원·교류사업: 네트워크회의, 남녀공동참여페스티벌 개최 등, ③ 상담사업: 일반 상담,

전문상담의 실시, ④ 정보수집·제공사업: 도서자료·비디오의 수집·대출, 홍보지의 발행, ⑤ 조사·연구사업: 남녀공동참여사회만들기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이다.

2001년 사업 계획에 따르면, 우선 학습·연수 사업으로 남녀공동인재육성사업, 여성기업가육성·지원사업, 남녀공동참여학습추진강좌의 개최, 출장강좌 등이 있으며, 둘째 단체활동 지원·교류사업은 네트워크를 통한 단체·그룹 활동활성화 사업, 남녀공동참여페스티벌의 개최 등이 있다.

### 3. 호주

#### 가. 법적, 제도적 기반

호주에서 모든 교육은 각 주 정부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져오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역시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다. 연방 정부에 ‘고용·교육·훈련·청소년부’(DEETYA)가 있지만, 각 주에서 독자적인 평생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호주 평생교육은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호주는 다른 서구와는 달리 성인교육 대신 성인지역사회교육(Adult Community Education: A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호주에서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이 평생교육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하여 이 영역을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sup>10)</sup>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 평생교육을 이상과 같이 크게 성인지역사회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의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어느 측면을 강조하는가에 따른 개념적 구분이다. 성인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교육을 중심으로 개념화된 것이라면, 직업교육훈련은 직업기술교육을 중심으로

10)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계속교육(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TAFE)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우리나라 전문대학에 해당되는 공공VET기관을 TAFE college라 명명하여 대부분의 기술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개념화된 것이다.

1970년대 후반에 있었던 경제적 위기로 인한 경제 구조의 개혁, 지식기반 사회와 정보화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국제 경쟁 등으로 인해서 직업교육훈련(VET)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호주의 연방 정부와 주 정부들은 이 영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키고 있다.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정책 방향은 1998년 3월 30일 멜버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1세기 교육”에 관한 UNESCO 국제회의(UNESCO Conference on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in the Asia-Pacific Region)에서 ‘고용·교육·훈련·청소년부’ 장관인 Dr. David Kemp의 연설에 잘 나타났다<sup>11)</sup>. 그는 평생학습은 21세기에 개인이 사회, 경제, 고용 기회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사회와 경제 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데 계속교육이 필요해 질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하였다.

위에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통해서, 호주의 평생교육은 직업교육훈련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화, 지식 경제 시대에 직업세계가 변화하고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이 평생교육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초부터 연방 차원의 직업교육훈련 체계를 세우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호주국가훈련기구(ANTA)를 만들었다.

11) 그는 이 연설에서 평생학습의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는 기초 기술을 위한 환경이고, 나머지는 학교, 일, 계속 교육 사이에 유연한 통로를 제공하는 틀에 대한 요구이다. 평생학습의 맥락에서, 성인 학습자의 기초 기술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성인 문해에 관한 조사에서 호주의 실업 인구의 절반은 미숙한 문해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비숙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초기술 없이는 지구적 정보경제체제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초기술에는 컴퓨터 문해, 분석적 사고 능력, 복잡한 정보 처리 능력 등을 포함한 문해와, 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협동과 상호작용과 같은 사회적 기술 역시 중요하다. 또 한 가지 평생교육의 방향은 일터와 교육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고용주와 개인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일터와 교육의 효과적인 통합이 요구된다. 이는 호주 성인들이 직업 세계에서 밀려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기초 기술 능력을 가지도록 하고 학교, 일터, 계속교육을 통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가훈련기구(ANTA)는 연방 법령인 “Australian National Training Authority Act 1992”에 근거해서 연방정부, 주, 준주 장관들에게 직업교육 훈련 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구이다. 물론 예전과 같이 직업교육훈련은 각 주 정부의 책임 하에서 실시되지만, ANTA는 연방 차원의 직업교육훈련의 방향과 국가 전략 계획을 세우고 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첫 번째 국가 전략 이후에, 새로운 국가 전략- “미래의 가교(A Bridge to the Future)” (1998-2000까지)-이 추진되었는데 각 주와 준주의 훈련기구는 다음 해에 국가 시스템에 기여하는 계획을 해마다 세우고 ANTA는 이 계획에 근거해서 각 주와 준주의 훈련기구에 연방 기금을 배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ANTA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직업능력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만들었다. 이러한 국가 프로그램들에는 산업훈련자문기구(ITABs), 기술센터, 성인지역사회교육, 집단 훈련 회사, 능력 표준, 그리고 그 외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들도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성인지역사회교육(ACE)을 제공하는 기관들로 성인지역사회교육센터/대학(adult and community education centres and colleges) 및 마을회관과 지역센터(neighbourhood houses and community centres), 지역보건소와 노인복지관(community health agencies and aged care providers), 노동자교육협회(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s), 교회와 학교 등이 있다. 성인지역사회교육(ACE)의 전통적인 교육과정은 성인기초문해교육을 비롯하여 외국인을 위한 영어, 직장이나 계속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준비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ANTA, 2000). 한편, 직업교육훈련(VET)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술계속교육(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TAFE) 대학이 있다. 호주에서 가장 큰 성인교육제공 기관으로서 성인교육인구의 약 70%를 점하고 있으며 현재 884여 개에 달하는 TAFE 기관이 있다(김형식, 1997: 329). 빅토리아 주와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경우 다른 기관들이 성인교육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러한 TAFE대학이 주요한 성인교육 제공자이다(McIntyre, 1991: 46).

TAFE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여가교육과 준비교육, 추가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고, 여가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1/3 이상이다(McIntyre, 1991: 51). 한편,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직업교육훈련을 강조하게 되면서 성인지역사회교육(ACE) 기관들 역시 직업교육훈련 영역을 확대시켜오고 있다. 실제로 직업교육훈련(VET)를 제공하는 기관에 성인지역사회교육기관도 속해있고, ACE를 제공하는 기관에 TAFE대학도 속해 있다.

### 나. 여성평생교육 현황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호주의 주요 평생교육기관인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와 지역사회성인교육훈련기관(Adult and community Education : ACE)을 통해 여성평생교육도 이루어진다. 이 두 유형의 기관들을 통해 매년 110만 명에서 130만 명의 성인, 즉 호주 성인인구의 약 7.5%에서 8.5%가 교육을 받는다. 이 중 지역사회성인교육훈련기관(ACE)의 경우 약 400,000명의 성인들이 교육을 받으며, 이 중 여성이 69.5%를 차지하고 있다(고혜원, 2002).

1970년대 지역주민회관(neighborhood house), 지역사회회관(communitiy house) 그리고 지역학습센터(communitiy learning centre) 등의 시설이 등장하면서 성인지역사회교육이 본격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이들 기관 모두 특별한 이용의 제한 사항을 두지 않으나, 학습자의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함으로써, 지역에 여성을 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중심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성인지역사회교육센터 가운데 여성 전용의 여성교육센터, 여성지역센터, 여성정보센터 등이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기관 차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관련 서비스, 여성 관련 정보 제공, 여성을 위한 성인교육 제공 등과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기 위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오전부터 오후까지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주로 언어와 문화적 장벽,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해체 등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받았다고 판단되는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걷기, 글쓰기, 기초 영어회화, 가정내 폭력대응법, 이혼 및 사별후 생활, 조세 관련법 등이 있다. 일자리가 필요한 여성을 위해서 인터넷이나 원격교육 훈련과정을 통해서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학습 참여와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호주 국립훈련기구(Australian National Training Authority : ANTA)의 「국가 여성직업교육훈련 전략」(1996)을 들 수 있다. 이 전략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여성의 수 증가, 모든 직업분야에서 직업교육훈련 자격증을 지닌 여성의 수 증가, 좀 더 광범위한 학문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증가 및 여성 집단의 성과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발간한 보고서 「선택, 참여 그리고 그 성과(Choice, Participation, Outcomes)」(2003)에서는 여성의 직업훈련 교육 부분의 참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취업률 역시 상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그 전략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추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직업훈련교육 참여가 여성 자신의 삶에 가치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여성의 각 생애단계에 맞춰 연구

- ▷ 여성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조성을 위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마케팅 활동, 자료 편찬
- ▷ 직업현장의 훈련가들이 성차별적 사고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함
- ▷ 여성과 그들의 학습에 관련된 연구 수행,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 연구
- ▷ 각 지역사회의 기관간 네트워크 형성과 여성의 지역사회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사회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평생교육 중개기관의 설치
- ▷ 여성의 평생학습을 기업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가를 제시하고, 중소기업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전문화된 훈련 패키지 개발
- ▷ 기존의 ITAB(산업훈련자문기구)<sup>12)</sup>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여성의 요구

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화된 ITAB의 설립

#### 다. 사례: 빅토리아주

지역별로 여성 평생교육 체제가 다양하지만 성인지역사회교육센터와 기술 계속교육대학 등을 중심으로 여성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평생교육의 제공이 각 주와 준주의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체제의 관리·운영을 파악하기 위해서 빅토리아주를 살펴보기로 하자. 성인지역사회교육(ACE)이 강한 빅토리아주의 정부는 성인지역사회계속교육위원회(Adult, Community and Further Education Board)와 지역회의(Regional Councils)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인교육 조직의 일을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와 지역회의는 주 전체의 성인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정부기금을 관리하고 있다(ACFEB, 2000). 빅토리아주에는 성인교육회의(CAE - the Council of Adult Education)가 있으며, 주민회관(Neighbourhood Houses), 그리고 그 밖의 지역사회교육센터를 포함해서, 성인교육을 제공하는 조직이 500여개가 있다. 이러한 조직은 TAFE대학, 성인다문화교육센터(Adult Multicultural Education Centres)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성인지역사회교육(ACE) 조직은 자율적으로 지역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다.

빅토리아주의 성인지역사회교육(ACE)은 사업과 경영기술, 문해와 영어과정, 재교육 또는 빅토리아주 중등학력증(VCE: Victorian Certificate of Education)같은 대학준비교육 과정, 그리고 요가와 웅변과 같은 개인의 성장반 그리고 언어와 예술 같은 문화반을 포함한 일반성인교육과정 등을 제공하고 있다(ACFEB, 2000). 이러한 교육과정은 사람들이 직장을 얻고, 변화하는 작업요구를 충족시키고, 또는 노동현장에 다시 들어가는 데 필요한 기능과 지식, 확신 등을 형성시킨다.

---

12) 산업훈련자문기구(Industry Training Advisory Bodies : ITABs)는 교육훈련시스템과 산업 사이에서 자문과 정보 제공을 하는 핵심 기구이다. 이 기구는 산업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훈련 패키지를 개발하고 유지한다. 특정 산업에서 요구되는 표준, 교육과정, 자격과 학습자원, 평가 수단 등을 엄격한 질 높은 수준에 의해서 개발 관리한다. 이 기구들은 교육훈련 제공은 하지 않는다.

<표 III-8> 빅토리아 주 성인지역사회교육(ACE) 프로그램별 교육시간 구성

교육과정	교육시간	비율(%)
성인문해, 기초교육 (Adult Literacy and Basic Education)	1,573,972	17
제2 언어로서 영어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1,227,463	13
빅토리아주 중등학력(VCE)	298,938	3
일반 준비교육 (General Preparatory)	1,159,649	12
직업교육 (Vocational Education)	2,128,334	23
독서 연구 그룹 (Book Study Group)	591,528	6
일반 성인교육 (General Adult Education)	2,424,471	26
계	9,400,000	100

자료: Adult, Community and Further Education Board: ACFEB(2000).

"What is Adult Community Education".

<http://www.otfe.vic.gov.au/index.htm>.

매년, 백만명 정도의 호주 사람들이 성인지역사회교육(ACE) 기관들이 제공하는 레저, 자기 향상 그리고 일반교육 과정에 참여한다. 한 예로, 1997년 빅토리아 주에서는 309,000명이 ACE 과정에 등록하였고, 교육 시간은 총 9,400,000 시간이었다. 그 시간 구성은 위의 <표 III-7>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여가, 시민성, 그리고 개인 발전의 이유로 성인지역사회교육(ACE) 과정에 참여한다(ANTA, 2000). 호주의 성인지역사회 및 계속교육 위원회의 조사(ACFEB, 2000)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성인교육에 등록한다.

- 직업능력과 전망을 향상시킨다.
- 지식과 이해를 얻거나 나눈다.
- 관계를 증진시킨다.
- 그들의 지역사회에 참여한다.

성인지역사회교육(ACE) 참여자의 약 3/4이 여성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관

의 교사, 행정가들도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성인교육 네트워크는 여성에게 있어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지역사회 활동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ACE는 선행 자격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삶의 기술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일생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역사회에서 성인교육은 학습과 계속교육으로의 중요한 통로이다. 직장이 없는 사람과 초·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학습활동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성인교육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문해반에 등록해서 VCE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TAFE대학이나 일반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ACFEB, 2000). 이러한 성인지역사회교육(ACE)기관들은 학습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인지역사회교육 기관들은 학습의 관리, 내용, 전달과 그 유형 등에 관한 결정에 학습자를 참여시킨다. 이는 학습자의 학습요구를 형식, 무형식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지역사회교육기관들은 학습자에게 가장 잘 맞는 시간, 장소, 방법으로 학습을 제공해온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ANTA, 2000).

다음은 여성 전용 사회교육기관인 애들레이드에 위치한 여성지역센터(Women's Community Centre)와 브리스번의 여성정보센터(Women's Infolink)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고혜원, 2002). 먼저 애들레이드 여성지역센터는 남호주 주정부의 교육훈련고용부(Department of Education Training & Employment)로부터 부분적인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이 기관은 YWCA와 같은 단체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목요일에 걸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주로 여성과 관련된 정보를 무료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여성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는 주로 성폭력 관련 서비스, 여성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을 위한 성인교육으로 요가, 상담, 자연요법, 마사지, 생리반사학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센터는 여성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억압받아 온 그룹의 하나로 인식한다. 따라서 센터는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고 여성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페미니스트적 틀에 입각하여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관의 사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센터의 대상 집단은 가족돌보기에 관한 책임, 신체장애, 언어 및 문화적

장벽, 실업, 경제적 어려움, 개인적 충격, 질병, 가정해체로 인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고 판단되는 모든 여성이다. 2001년 하반기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걷기, 상담, 글쓰기, 건강한 생활, 기초영어회화, 가정내 폭력 대응법, 창조력개발, 이혼 및 사별후 생활, 조세관련법, 요가, 인도요리, 자연요법, 발관리, 마사지 등이 있다.

다음으로 브리스번의 여성정보센터는 퀸즈랜드 주정부의 지역연대국(Community Engagement Divison)내의 여성위원회(Office for Women)가 운영하는 일종의 책임운영기관(agency)이다. 이 센터의 직원은 모두 공무원으로서 현재 6명이 일하고 있다. 이 센터의 대상 집단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주 전체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성정보센터의 성과는 퀸즈랜드지역 여성의 권리 및 선택의 제고와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증진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센터에 대한 참여자수로 성과를 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성정보센터는 주로 여성관련 정보 및 상담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목표분야를 가지고 있다. 첫째, 여성의 안전과 정의 추구, 둘째, 경제적 안정 추구, 셋째, 리더십과 의사결정의 증진, 넷째, 건강과 복지 추구이다. 이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걸쳐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여성정보센터의 이용은 모두 무료이며, 정보는 무료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에 관한 정보제공은 인터넷이나 원격교육훈련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훈련이 필요한 여성에게는 인근의 지역교육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련 교육훈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 4. 시사점

이상에서 독일, 일본, 호주의 지역평생교육기구의 현황, 여성교육 기능을 살펴 보았다. 독일은 여성을 목적집단으로 하여 여성문제를 다루고 다양한 여성

집단의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일본은 여성센터를 평생학습센터에 복합시설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한 건물내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 호주는 여성을 위한 생애단계별 직업교육훈련의 제공과 공공기관에서의 소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공통적으로 여성의식을 제고하고 여성문제를 다루는 강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고, 생애주기별·대상별 접근을 강화하고 있었으며 소외여성을 중요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국가들의 지역평생교육기구들이 여성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평생교육기관은 여성교육 기능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시민대학을 비롯하여 일본의 공민관, 호주의 성인지역사회교육센터 등의 대표적인 지역 평생교육기관들은 여성교육의 기능을 충실하게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주 고객으로 여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적 관점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의 여성은 가정과 지역사회, 직장에서 새로운 변화와 역할기대, 사회적 위기 등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지역평생교육기관들은 이러한 변화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지역사회나 직장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성을 세력화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지역사회 변화의 중심에 지역 여성이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남녀공동참여교육이라는 개념을 통해 남녀의 인식 변화와 협동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이 평생교육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 지역평생교육기관의 여성교육 진흥을 위한 노력에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 지역평생교육전담기관(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지역평생학습관)들은 여성만을 위한 교양취미교육에 만족하고 있다. 고객을 양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가볍고 소비적이라고 평가받는 취미교육 프로그램에만 센터의 역량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 아직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제도화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등의 목적 집단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사업

기획이 충실하지 못한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역평생교육기관들도 주 이용 고객이며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인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프로그램 및 사업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 여성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지역의 평생교육센터와 함께 여성 전용의 시설들이 있어 그곳에서 여성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만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여성을 목표 집단으로 하여 대상특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센터만을 가지고는 지역 여성들의 교육, 상담, 정보제공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지역의 기초생활권에 자리잡고 있는 지역평생교육전담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앞서 소개한 선진국의 지역평생교육전담기관들은 여성교육적 관점을 통해 사업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지역의 여성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지역평생교육전담기관은 지역의 여성센터와 협력하여 공동 연수 및 홍보, 프로그램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부분적으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여성회관과의 연계사업이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두 유형의 기관들이 협력함으로써 지역 여성들에 대한 기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평생교육센터와 여성센터의 복합화는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프로그램의 협력을 통한 상호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여성교육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각각 여성평생교육 및 전국민의 평생교육의 효율적 제공이라는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핵심 시설들이 상호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인력에 의한 기관 운영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과 일본, 호주의 평생교육기관에 고용되는 인력의 전문직화는 우리 평생교육기관 및 여성교육기관에서의 비전문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국가 자격인 평생교육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여전히 비전문 직원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타 기관의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수준이상의 전문적 운영에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선진국의 평생교육기관과 여성교육기관들이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전문화된 자격 제도를 통해서 훈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기관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공적 기구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에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 그들의 여성교육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IV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운영 실태

---

1. 일반적 실태	59
2. 여성교육 실태	85
3. 소결	108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운영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2002년도 평생교육백서에 게재된 센터 26개, 학습관 218개 총 244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52%인 총127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일반적인 실태에 대한 것으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후의 변화 및 주요 사업, 정부 지원, 운영에 관한 질문이다. 두 번째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여성교육 실태 및 여성교육 기능 강화 방안과 관련된 질문들을 제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기관들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지정을 기준으로 응답을 통계처리 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센터와 학습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들도 6개 기관이 응답하였는데, 응답 결과는 기타 사례와 합산하였고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대신 전체 결과를 제시할 때 포함시켰다. 기타라고 응답한 기관들도 있었는데 아마 2002년 재지정과정에서 지정되지 않은 기관들인 것으로 생각된다. 역시 전체 합산 시에만 결과를 논의하였다. 즉, 기본적으로 응답 기관들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의 양 유형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두 기관은 부여된 기능과 역할이 다르므로 비교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아 별도로 조사결과를 기술하였고 통계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았다.

## 1. 일반적 실태

### 가. 현황

127개 응답기관 중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24개, 평생학습관은 91개, 기타가 12개로 분포되어 있다.

### ■ 응답 기관의 유형 분류

<표 IV-1> 응답기관의 유형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대학(전문대 포함)	5/20.8	8/8.8		13/10.2
도서관	10/41.7	43/47.3	5/41.7	58/45.7
문화회관	1/4.2	2/2.2		3/2.4
복지관		8/8.8		8/6.3
지역사회교육협의회		3/3.3		3/2.4
여성단체		1/1.1		1/0.8
초등, 중등, 고등학교		1/1.1		1/0.8
학생회관	1/4.2			1/0.8
교육청	5/20.8	22/24.2	5/41.7	32/25.2
기타	2/8.3	3/3.3	2/16.7	7/5.5
계	24/100	91/100	12/100.1	127

응답기관 중 도서관이 45.7%로 가장 많고 교육청이 25.2%, 대학이 10.2% 순이다. 다수를 차지하는 기관들이 도서관, 교육청, 대학과 같이 교육부 조직 산하의 기관들이라는 사실은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영리단체, 민간단체들과의 지역 네트워크에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은 그 지역 내에서 평생학습의 핵심 기관으로 기능해야 하는데, 배경이 다양한 기관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센터 및 학습관 지원신청의 주요 동기

<표 IV-2> 센터 및 학습관 지원 동기

단위: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지역평생교육의 선도적 역할 희망	16/66.7	13/54.2	2/28.6	31/56.4
재정지원을 기대		2/8.3		2/3.6
외부의 요구 혹은 상부의 명예 의해	7/29.2	9/37.5	5/71.4	21/38.2
명예를 위해				
기타	1/4.2			1/1.8
계	24/100.1	24/100	7/100	55/100

127개 응답 사례 가운데, 이 문항에 대해 72개는 응답하지 않았고, 55개만이 응답하였다. 기관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혹은 평생학습관을 신청하게 된 주요 동기를 묻고 구체적인 4개의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지역평생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희망해서'에 응답한 비율이 56.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요구 혹은 상부의 명예 의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8.2%로 높았다. 질문지의 보기 중 '명예를 위해서'라는 항목에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또한 '재정지원을 기대해서'라는 응답에는 평생학습관의 경우만 가장 낮은 비율의 응답 반응을 보였다. 기관이 외적 보상보다 평생교육 진흥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타율적 신청이 38.2%에 달해 자발적 추진의지가 의문시된다.

평생교육 수강생 중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여성'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남성보다 많은 편' 이라는 응답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두 응답을 합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많거나 대다수인 경우가 92%로, 대다수의 수강생이 여성인 상황에서 여성친화적 운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더불어 남성 학습자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 수강생 중 여성의 비율

<표 IV-3> 수강생 중 여성 비율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대부분 여성	16/69.6	73/81.1	10/83.3	99/79.2
남성보다 많은 편	5/21.7	10/11.1	1/8.3	16/12.8
여성과 남성 비율 비슷	1/4.3	7/7.8		8/6.4
남성보다 적은 편	1/4.3		1/8.3	2/1.6
계	23/99.9	90/100	12/99.9	125

■ 기관의 주요 교육영역

<표 IV-4> 기관의 주요 교육영역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직업교육 (컴퓨터교육 포함)	1/4.2	5/5.6		6/4.8
문화, 교양, 취미교육	20/83.3	78/86.7	12/100	110/87.3
의식교육, 시민교육	1/4.2	4/4.4		5/4.0
어학교육	1/4.2	3/3.3		4/3.2
기타	1/4.2			1/0.8
계	24/100	90/100	12/100	126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문화, 교양, 취미교육’에 편중되어 있음(87.3%)을 알 수 있다.

■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

<표 IV-5> 평생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교육전문인력(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등)	5/20.8	21/23.3	1/8.3	27/21.4
직원의 기존 업무에 부가(사서, 일반직원 등)	14/58.3	65/72.2	10/83.3	89/70.6
기타	5/20.8	4/4.4	1/8.3	10/7.9
계	24/100	90/100	12/99.9	126

평생교육 업무를 누가 주로 담당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기관의 성격에 관계없이 ‘직원의 기존 업무에 부과되어 일을 진행하고 있다’에 전체의 70.6%가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전문인력(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4%이었다. 직원의 기존 업무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가 부과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 전문성이 미흡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으로의 지정 이후의 변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후 기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8개의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요구하였다.

첫째, 지명도가 제고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기관의 지명도 제고 효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경우 ‘약간 그렇다’ (11/47.8%)가 가장 많으며, ‘매우 그렇다’ (9/39.1%)가 다음으로 86.9%가 긍정하고 있다. 평생학습관의 경우도 ‘약간 그렇다’ (42/50%)가 가장 많았지만, ‘별로 그렇지 않다’ (27/32.1%)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학습관보다 센터로의 지정이 지명도 제고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IV-6> 지명도 변화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9/39.1	10/11.9	4/33.3	23/19.3
약간 그렇다	11/47.8	42/50.0	4/33.3	57/47.9
별로 그렇지 않다	3/13.0	27/32.1	3/25.0	33/27.7
전혀 그렇지 않다		5/6.0	1/8.3	6/5.0
계	23/99.9	84/100	12/99.9	119

둘째, 수강생 증대와 관련하여

<표 IV-7> 수강생 변화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5/20.8	10/11.5		15/12.2
약간 그렇다	10/41.7	42/48.3	6/50.0	58/47.2
별로 그렇지 않다	9/37.5	30/34.5	5/41.7	44/35.8
전혀 그렇지 않다		5/5.7	1/8.3	6/4.9
계	24/100	87/100	12/100	123

수강생 증대와 관련하여서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경우 ‘약간 그렇다’ (10/41.7%)가 가장 많고 ‘별로 그렇지 않다’ (9/37.5%)가 그 다음으로 많다. 평생학습관의 경우도 ‘약간 그렇다’ (42/48.3%)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별로 그렇지 않다’ (30/34.5%)로 나왔다. 전체적으로 ‘약간 그렇다’ 는 의견이 47.2%, ‘별로 그렇지 않다’ 가 35.8%로 수강생 증대에 약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재정안정성 및 수익 증대

<표 IV-8> 재정 및 수익 변화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1/4.2	3/3.7		4/3.4
약간 그렇다	6/25.0	18/22.2	3/25.0	27/23.1
별로 그렇지 않다	10/41.7	28/34.6	6/50.0	44/37.6
전혀 그렇지 않다	7/29.2	32/39.5	3/25.0	42/35.9
계	24/100.1	81/99.9	12/100	117

재정안정성 및 수익 증대에 관해서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별로 그렇지 않다'(10/41.7%)와 '전혀 그렇지 않다'(7/29.2%)고 응답한 기관이 70.9%에 달하며, 평생학습관의 경우도 '별로 그렇지 않다'(28/34.6%)와 '전혀 그렇지 않다'(32/39.5%)가 74.1%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73.5%가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이전과 비교하여 재정 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직원 연수기회 증대

직원 연수기회 증대와 관련하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약간 그렇다'(12/50%), '매우 그렇다'(3/12.5%)는 응답을 합치면 62.5%이었다. 반면, 평생학습관은 '별로 그렇지 않다'(32/38.1%), '전혀 그렇지 않다'(20/23.8%)는 응답이 61.9%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부정적인 평가가 56.7%, 긍정적인 평가가 43.3%로 직원연수기회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전혀 그렇지않다'가 21.7%로 나타난 것은 문제라고 본다.

<표 IV-9> 연수기회 변화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3/12.5	6/7.1		9/7.5
약간 그렇다	12/50.0	26/31.0	5/41.7	43/35.8
별로 그렇지 않다	7/29.2	32/38.1	3/25.0	42/35.0
전혀 그렇지 않다	2/8.3	20/23.8	4/33.3	26/21.7
계	24/100	84/100	12/100	120

다섯째, 운영의 전문성 증대

<표 IV-10> 전문성 변화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4/16.7	6/7.4		10/8.5
약간 그렇다	10/41.7	28/34.6	4/33.3	42/35.9
별로 그렇지 않다	10/41.7	37/45.7	5/41.7	52/44.4
전혀 그렇지 않다		10/12.3	3/25.0	13/11.1
계	24/100.1	81/100	12/100	117

기관의 운영면에서 전문성이 증대하였는가와 관련해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긍정적인 반응이 약간 더 많고 평생학습관의 경우는 부정적 반응이 약간 더 많다. 전반적으로 센터나 학습관으로서의 전문성이 충분히 강화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규제와 간섭의 증대

<표 IV-11> 규제 변화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6/7.2		6/5.0
약간 그렇다	10/41.7	38/45.8	5/41.7	53/44.5
별로 그렇지 않다	12/50.0	33/39.8	6/50.0	51/42.9
전혀 그렇지 않다	2/8.3	6/7.2	1/8.3	9/7.6
계	24/100	83/100	12/100	119

규제와 간섭이 증가하였는가라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학습관의 경우 약간의 규제 증가를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곱째, 업무량 증가

<표 IV-12> 업무량 변화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13/54.2	38/43.2	2/16.7	53/42.7
약간 그렇다	9/37.5	44/50.0	9/75.0	62/50.0
별로 그렇지 않다	2/8.3	4/4.5	1/8.3	7/5.6
전혀 그렇지 않다		2/2.3		2/1.6
계	24/100	88/100	12/100	124

업무량 증가와 관련해서는 전체의 92.7%가 긍정하여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덟째, 기관 성격의 모호성 야기

<표 IV-13> 기관 성격의 혼란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5/20.8	19/22.9		24/20.2
약간 그렇다	7/29.2	34/41.0	9/75.0	50/42.0
별로 그렇지 않다	9/37.5	21/25.3	1/8.3	31/26.1
전혀 그렇지 않다	3/12.5	9/10.8	2/16.7	14/11.8
계	24/100	83/100	12/100	119

기관 성격의 모호성이 야기되었는가와 관련해서 전체의 62.2%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매우 그렇다가 20.2%에 달해 새로운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관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상에서 언급된 변화 이외의 다른 변화가 있었다면 자유롭게 적어 달라는 문항을 제시였다.

위의 설문에서 언급된 변화 이외의 것에 대해 적어달라고 했지만 중복되는 것도 있었다. 회수된 127개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있는 것만 정리하였다. 되도록 기술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부합하여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항목들을 묶어 다시 정리하면서 빈도수도 함께 고려하였다. 전체 응답빈도가 20개도 되지 않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의 응답을 분류하여 정리하진 않았다.

<표 IV-14> 지정이후 기타 변화

		변화	빈도
긍정적 변화	인지도 및 인식	· 기관 인지도 강화 · 도서관 홍보 및 독서유발 효과 ·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주민참여 그리고 교육청 추진의지를 인식하는 계기	1 1 1
	학습자	·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졌다. · 이용자 수의 증가	1 2
	프로그램	· 평생학습 강좌의 선호도 높아짐 : 타 기관에 비해 도서관의 강좌에 대해 신뢰도 높음, 내용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함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자원 활용으로 인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증가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양과 질이 높아짐	1 1 1
	기관 운영	· 평생교육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 · 강사 정보 확보에 노력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으로 지역센터 역할 활성화에 기여 · 재정지원으로 그동안 못하고 있던 과목들을 실시할 수 있게 됨.	1 1 1 1
부정적 변화		· 지나친 간섭으로 예산에 비해 업무량이 증가 · 상·하반기 분할 예산 지원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 · 홍보부족으로 특정인만 참석	1 1 1
기타	기관 성격 변화	· 기관의 주요 업무가 열람 위주에서 평생교육 쪽으로 · 도서관 성격이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 건물의 시설에 중요한 변화	1 1 1

응답의 내용을 보았을 때, 크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으로 나뉘어 정리할 수 있었다.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는 부분을 보면,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청의 추진의지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도서관이 평

생학습관이 되면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책도 보는 효과를 얻게 됨으로 이용자가 늘어나 도서관 홍보 및 인지도가 강화되었으며 주민참여도 이전보다 확대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타 기관과 비교하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평생교육실습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양도 많아지고 질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운영으로 인해 지역센터 역할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재정 지원을 얻게 되면서 그동안 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하던 과목들을 신설하여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는 기관도 있었다.

반면 부정적인 변화로 평가되는 부분은, 기관의 성격 변화로 인해 간섭이 이전보다 늘어나 예산에 비해 업무량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상·하반기 분할 예산 지원으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고 하는 행정적인 측면의 지적이 있었다.

기타로는 기관의 성격이 이전의 열람업무(도서관)에서 평생교육 쪽으로 변화하였으며, 기관의 성격도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업무로 인해 건물 시설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기관도 있었다.

이전의 기관의 성격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화의 모습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지만, 대체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지적한 의견이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한 경우보다 많았다.

#### 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이후 사업의 강화 정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이후 주요 사업의 강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총 7개의 사업 항목을 제시하고 ‘매우 강화’, ‘약간 강화’, ‘별로 강화되지 않음’, ‘전혀 강화되지 않음’의 4가지 종류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사업은 법령에 센터와 학습관이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제시된 것들이다.

첫째, 평생교육기관 교류 사업

<표 IV-15> 기관교류 사업 추진정도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강화	5/20.8	2/2.3		7/5.8
약간 강화	17/70.8	54/62.8	4/36.4	75/62.0
별로 강화되지 않음	2/8.3	27/31.4	5/45.5	34/28.1
전혀 강화되지 않음		3/3.5	2/18.2	5/4.1
계	24/99.9	86/100	11/100.1	121

평생교육기관과의 교류 사업이 강화되었느냐는 질문에, 지역평생교육센터는 ‘약간 강화’ (17/70.8%) 되었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매우 강화’ 되었다(5/20.8%)가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전혀 강화되지 않았다’ 고 응답한 기관은 없었다. 평생학습관의 경우, ‘약간 강화’ 되었다(54/62.8%)가 단연 높았지만, ‘별로 강화되지 않았다’ (27/31.4%)가 그 다음으로 많다. 전반적으로 교류사업이 약간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으나 32.1%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센터가 학습관보다 기관교류에 더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약간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경우, ‘약간 강화’ 되었다(11/45.8%)와 ‘매우 강화’ 되었다(7/29.2%)는 입장을 합치면 75%에 달하지만, 평생학습관의 경우 51.2%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 강화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많다.

<표 IV-16>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사업 추진정도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강화	7/29.2	9/10.5	1/9.1	17/14.0
약간 강화	11/45.8	33/38.4	4/36.4	48/39.7
별로 강화되지 않음	5/20.8	33/38.4	4/36.4	42/34.7
전혀 강화되지 않음	1/4.2	11/12.8	2/18.2	14/11.6
계	24/100	86/100.1	11/100.1	121

셋째, 평생교육 정보 수집 및 제공

<표 IV-17> 정보 수집 및 제공 사업 추진정도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강화	7/29.2	11/12.5		18/14.6
약간 강화	16/66.7	61/69.3	8/72.7	85/69.1
별로 강화되지 않음	1/4.2	15/17.0	3/27.3	19/15.4
전혀 강화되지 않음		1/1.1		1/0.8
계	24/100.1	88/100	11/100	123

평생교육과 관련한 정보 수집 및 제공 면에서는 약간 강화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으며, 전체의 83.7%가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하였다.

넷째, 평생교육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강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도 34.5%에 달하고 있다. 지역평생교육 정보센터의 기능상 평생학습관보다 프로그램 개발이나 연구에 더 노력했음을 볼 수 있다.

<표 IV-18>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정도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강화	7/29.2	11/12.6		18/14.8
약간 강화	16/66.7	42/48.3	4/36.4	62/50.8
별로 강화되지 않음	1/4.2	33/37.9	5/45.5	39/32.0
전혀 강화되지 않음		1/1.1	2/18.2	3/2.5
계	24/100.1	87/99.9	11/100.1	122

다섯째,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표 IV-19> 직원연수 사업 추진정도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강화	8/33.3	4/4.8		12/10.1
약간 강화	10/41.7	41/48.8	5/45.5	56/47.1
별로 강화되지 않음	6/25.0	32/38.1	5/45.5	43/36.1
전혀 강화되지 않음		7/8.3	1/9.1	8/6.7
계	24/100	84/100	11/100.1	119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와 관련해서,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약간 강화'(10/41.7%)되었다는 의견과 '매우 강화'(8/33.3%)되었다는 의견이 75%에 달한다. 평생학습관도 과반수를 조금 넘는 기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상당수 있었다. 특히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42.8%가 연수가 강화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여섯째, 평생학습 상담

<표 IV-20> 학습상담 사업 추진정도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강화	2/8.3	3/3.6		5/4.2
약간 강화	13/54.2	24/28.9	2/18.2	39/33.1
별로 강화되지 않음	9/37.5	45/54.2	6/54.5	60/50.8
전혀 강화되지 않음		11/13.3	3/27.3	14/11.9
전체	24/100	83/100	11/100	118

평생학습에 대한 상담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약간 강화’ 되었다(13/54.2%)가 가장 많은 데 비해, 평생학습관은 ‘별로 강화되지 않았다’ (45/54.2%)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62.7%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정보 수집 및 제공은 강화되었지만 학습상담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지역단위 평생학습의 기획, 조정

<표 IV-21> 지역평생학습 기획, 조정 사업 추진정도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강화	1/4.2	1/1.2		2/1.7
약간 강화	16/66.7	38/45.2	4/36.4	58/48.7
별로 강화되지 않음	6/25.0	40/47.6	5/45.5	5/42.9
전혀 강화되지 않음	1/4.2	5/6.0	2/18.2	8/6.7
전체	24/100.1	84/100	11/100.1	119

지역 단위의 평생학습을 기획하거나 조정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약간 강화’ (16/66.7%)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평생학습관의 경우는 약간 강화된 곳과 별로 강화되지 않은 곳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 지역평생교육센터나 평생학습관 지정 이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도

지역평생교육센터나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된 이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도에 대해 총 5개 항목으로 질문을 제시하였고, ‘매우 큰 지원이 있었음’, ‘약간 지원이 있었음’, ‘별로 지원이 없었음’, ‘전혀 지원이 없었음’의 4가지 중에서 응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첫째, 재정 지원

<표 IV-22> 재정 지원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큰 지원이 있었음	6/25.0	9/10.1	1/9.1	16/12.9
약간 지원이 있었음	16/66.7	60/67.4	2/18.2	78/62.9
별로 지원이 없었음	2/8.3	16/18.0	7/63.6	25/20.2
전혀 지원이 없었음		4/4.5	1/9.1	5/4.0
계	24/100	89/100	11/100	124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약간의 재정 지원이 있었다고 대체로 평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별로 또는 전혀 지원이 없었다는 의견도 24.2%에 달하였다. 비슷한 금액이 지원되었겠지만 이에 대한 기관의 상대적 만족도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둘째, 직원 연수 지원

<표 IV-23> 연수 지원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큰 지원이 있었음	2/8.3	2/2.4		4/3.3
약간 지원이 있었음	10/41.7	34/40.0	1/9.1	45/37.5
별로 지원이 없었음	11/45.8	36/42.4	8/72.7	55/45.8
전혀 지원이 없었음	1/4.2	13/15.3	2/18.2	16/13.3
계	24/100	85/100.1	11/100	120

직원 연수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59.1%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직원 연수 기회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별로 지원이 없었다'(11/45.8%)가 가장 많으며, '약간 지원이 있었다'(10/41.7%)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평생학습관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셋째, 프로그램 지원

<표 IV-24> 프로그램 지원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큰 지원이 있었음		2/2.4		2/1.7
약간 지원이 있었음	11/45.8	20/24.1	2/18.2	33/28.0
별로 지원이 없었음	13/54.2	44/53.0	7/63.6	64/54.2
전혀 지원이 없었음		17/20.5	2/18.2	19/16.1
계	24/100	83/100	11/100	118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 전체의 70.3%가 별로 또는 전혀 지원이 없었다는 답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넷째, 평생교육정보 지원

<표 IV-25> 정보 지원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큰 지원이 있었음		4/4.8		4/3.4
약간 지원이 있었음	17/70.8	44/53.0	5/45.5	66/55.9
별로 지원이 없었음	7/29.2	27/32.5	6/54.5	40/33.9
전혀 지원이 없었음		8/9.6		8/6.8
계	24/100	83/99.9	11/100	118

평생교육 정보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가와 관련해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약간 지원이 있었다’ (17/70.8%)가 가장 많고, 나머지는 ‘별로 지원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평생학습관의 경우는 ‘약간 지원이 있었다’ (44/53%)가 과반수를 넘긴 하지만, ‘별로 지원이 없었다’ (27/32.5%), ‘전혀 지원이 없었다’ (8/9.6%)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약간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40.7%에 달하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다섯째, 여성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

특히 여성대상 사업에 지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별로 지원이 없었다’ (18/75%)와 ‘전혀 지원이 없었다’ (2/8.3%)가 83.3%에 달한다.

평생학습관의 경우도 81.8%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평생교육 참여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여성대상 사업에 대한 개발 및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고 여겨진다.

<표 IV-26> 여성사업 지원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큰 지원이 있었음		3/3.7		3/2.6
약간 지원이 있었음	4/16.7	12/14.6	1/9.1	17/14.5
별로 지원이 없었음	18/75.0	49/59.8	7/63.6	74/63.2
전혀 지원이 없었음	2/8.3	18/22.0	3/27.3	23/19.7
계	24/100	82/100.1	11/100	117

## 라. 애로사항

### ■ 운영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

<표 IV-27> 운영상 애로점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운영방향이 불명확함	10/41.7	14/15.4	3/27.3	27/21.4
프로그램(사업) 빈약	2/8.3	16/17.6		18/14.3
재원 부족	6/25.0	28/30.8	4/36.4	38/30.2
전문인력 부족	6/25.0	31/34.1	4/36.4	41/32.5
기타		2/2.2		2/1.6
계	24/100	91/100.1	11/100.1	126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 운영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경우 ‘운영방향이 명료하지 않

다' (10/41.7%)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재원 부족' (6/25%)과 '전문인력 부족' (6/25%)을 들었다. 이에 비해 평생학습관의 경우는 '전문인력 부족' (31/34.1%)에 가장 응답이 많았고, 그 다음이 '재원 부족' (28/30.8%)이며, '프로그램(사업) 빈약' (16/17.6%), '운영방향이 명료하지 않다' (14/15.4%), 기타(2/2.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운영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전문인력 부족', '사업 추진 재원 부족', '운영방향이 불명확함', '구체적인 프로그램(사업) 빈약',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 ■ 기타 문제 및 애로사항

\* 위에서 언급된 사항 이외에 문제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여러 항목들을 지적하였는데 관련 항목들끼리 분류하여 정리하였고 각각의 경우의 응답 빈도를 제시하였다.

지역평생교육 중심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관의 성격이 변화되었지만 기존에 기관이 가진 업무 및 성격들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이 인력부분이었다. 평생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평생교육사)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평생교육과 관련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현행 유지에 급급하다는 점들을 지적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을 위한 전용실이나 기타 시설의 부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점도 상당수가 지적하였고,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인력과 시설 문제는 예산 부족과 상당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시설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한 예산 편성이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 및 애로사항	빈도
인력	· 평생교육사의 미배치	6
	- 실질적인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해 전문인력이 없다.	11
	- 전문성이나 연구 부족으로 현행 유지에 급급한 문제	
	· 인력 부족	2
	- 장기적인 계획이 없음. 전담직원이 없다,	
· 평생교육 담당 부서가 없다.		
· 업무량의 증가	2	
- 직원의 사기 저하		
- 기존의 성격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 지정으로 인해 일의 분리 추진, 보고 등의 중복적인 업무		
· 강사 확보의 어려움		
	- 평생교육강사의 일정 자격 요건의 제시가 필요	2
시설	· 시설 부족, 기자재 빈약	11
	- 평생교육 전용실 없음, 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필요	
예산 및 재정	· 예산, 재정 부족	8
	-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지 못함	
	- 평생교육 사업 목적뿐만 아니라, 예산이나 강사 수당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주면 평생교육사업에 도움이 될 것임.	
업무	· 시청과 교육청의 이분화된 조직에 있어 일의 통합이 어려움	1
	· 단체들간의 협조체계 구축의 어려움	1
	· 지역문화회관, 여성회관, 읍군 사무소 등의 업무 중복	2
	- 참여자를 확대하기 어려움	1
· 새로운 변화에 따른 적응력 문제		
인식	· 학습자의 인식	2
	- 수강생들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부족	2
	- 명문대학 평생교육원에 대한 수강생들의 무조건적 선호	
	· 기관장의 의식	
- 관심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제약이 많음		
	- 기관의 성격 모호성으로 인한 새로운 인식 및 사고를 요함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개발 이후 주변 학습관의 카피 강좌로 어려움	1
	· 수강생 부족, 확보 어려움	1
	-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교육생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1
	· 동적인 프로그램의 선호로 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	
	· 수익자 부담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교육생들의 불성실한 출석과 수업태도. 적은 액수라도 수익자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형식의 교육이 요구됨	
기관 성격	· 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2
	- 도서관 제반 운영이 평생교육으로 흐르는 것 같다	1
	- 명확한 학습관으로서의 역할 정립이 미비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담당 기관(시청, 교육청)들과의 연계가 매끄럽지 못한 측면과 다른 단체들과의 협조 체계가 미흡한 점들을 지적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타 기관들(지역문화회관, 여성회관, 읍면사무소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량만 과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새로운 기관으로의 전환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 및 대처력 부족과 기관 성격의 애매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마.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또는 학습관으로서 기관이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교육이나 사업**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또는 학습관으로서 기관이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교육이나 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다음과 같은 교육이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하였는데, 센터나 학습관으로서의 특성화된 사업이라기보다 기존에 운영하던 교육 및 사업을 그대로 제시한 경우가 많다.

	교육 및 사업	빈도
교양 교육	· 문해 교육 : 한글 강좌(한글학교) 10	10
	· 독서지도교실 : 초등학생 대상 6, 유아대상2	6/2
	· 독서토론회 / 시낭송의 밤 / 수필 문학회/ 동화읽는 어른 모임, 글쓰기,시창작/ 1일 독서 교실	각 1
	· 문예창작교실 : 성인대상 2	2
	· 논술 교실	1
	· 동양학: 풍수지리 2, 주역, 서각	2
	· 수화교실	1
	· 예절교육 2	2

	교육 및 사업	빈도
취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예</li> <li>· 전통문화강좌 : 가야금, 단소, 장구, 판소리반/ 풍물놀이/ 다도</li> <li>· 한국화, 문인화, 사군자/ 민화</li> <li>· 꽃꽂이</li> <li>· 미술교실: 수채화/ 유화</li> <li>· 바이올린</li> <li>· 사진교실/ 비디오&amp;디지털 카메라 편집 강좌</li> <li>· 축향여성 합창단</li> <li>· 종이접기/ 한지공예/ 도자기 공예/ 종이공예 교실/ 수직공예교실 / 구슬공예교실/ 뜨개질/ 퀼트</li> <li>· 건강관리 프로그램 : 발맞사지/ 단전호흡/ 댄스 스포츠/ 건강 수지침/ 건강 달리기 교실/ 생활요가/ 생활한방과 건강/ 수영교실/ 탁구교실/ 건강특강 년 2회 실시/ 배드민턴</li> </ul>	<p>21</p> <p>2/1/1</p> <p>6/1</p> <p>5</p> <p>5/3/1</p> <p>1</p> <p>2/1</p> <p>1</p> <p>1/5/4/2/1 /2/1/4</p> <p>2/1/1/2/1 /1/1/2/2/1/2</p>
문화 교육 및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주의 접근 : 생태학교/ 미니정원/ 숲체험 교육</li> <li>·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탐구 공동체 등</li> <li>· 체험프로그램: 생태체험, 역사탐방, 곤충체험, 전통문화체험, 문학캠 프 등</li> <li>· 현장에서 배우는 문화기행(각급 학교 어머니 회원들을 중심으로)</li> <li>·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 독서캠프, 도서관 문화제, 청소년 문화제</li> <li>· 도서관 활동 전반의 내용을 책으로 발간 : 독서문화 및 발표회</li> <li>· 내고장 문화유산 교실</li> <li>· 문화프로그램 발표회</li> <li>· 평생학습축제</li> <li>· 독서퀴즈 대회</li> <li>· 문화교육 : 초청강연 및 영화상영(학부모와 여성 대상)</li> </ul>	<p>1/1/1</p> <p>1</p> <p>1</p> <p>1</p> <p>1</p> <p>1</p> <p>1</p> <p>1</p> <p>1</p> <p>1</p>
어학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회화, 기초영어/ 일어회화/ 중국어 회화/ 한문</li> </ul>	11/8/7/6
어린이 프로 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짓기/ 종이접기/ 동화와 함께 하는 그림교실/ 엄마와 함께 하는 가베놀이(유아들의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 서예교실/ 동화구연/ 레고 닥터/ 인형극 체험교실/ 영어동화구연/ 어린이 미술/ 어린이 연극/ 수채화교실, 칼라믹스</li> </ul>	2/2/2/1/2 /6/1/2/1/1/1/1
부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의식교육/ 부모에게 '약이 되는 이야기' 공개 강좌/ 자녀 학습관, 대화기법/ 독서·글쓰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내고장 탐방/ 부모역할훈련교육/ 특강형식의 운영/ 부모-자녀 합일 훈련/ 독서 지도 교실</li> </ul>	1/1/1/4/1 /2/1/1/7
의식 교육, 시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교육, 의식교육을 위한 행정기관과 연계한 위탁운영교육</li> <li>- 서귀포시민대학(21세기 지도자과정, 서비스아카데미, 인터넷정보화 과정, 시민공개강좌), 남군위탁강좌(남군여성대학, 남제주군 지역경영대학), 도청위탁강좌(2002월드컵자원봉사자 외국 어회화교육, 산남지역 여성지도자 리더쉽개발 워크숍)</li> </ul>	1

	교육 및 사업	빈도
직업 교육	· 정보화교실 : 실버 컴퓨터 및 주부(재래시장과 연계, 상인층 대상)	5
	· 컴퓨터 교육 : 워드프로세서 자격증반/ 소외계층	8/1/1
	· ITQ 자격증반 : 파워포인트, 엑셀 자격증반 운영(주부대상)	1
	· 피부관리, 메이크업/ 미용사 자격증반	1/1
	· 꽃꽂이 자격증 반 운영	1
	· 호스피스, 아동호스피스	2
	· 여성 기능인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 미용자격증 취득, 미용연구반, 컷트 특강반	1
	· 취업강좌 : 창업강좌 / 직업, 부업훈련교육 3	3/1
	· 소외계층을 위한 직업 훈련 : 조리기능사 자격과정, 전문인력 양성과정 민간 자격증 취득 과정 :	1
	· 독서 지도자 과정(영어동화, 동화구연, 글쓰기, 자녀인성과정, 논술)	3
	· 신문활용교육 지도자 과정	1
·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제과제빵사 자격증	1	
· 부동산 전문과정	1	
·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 특수아동지도사	1/1	
소외 계층 프로 그램 및 운영	· 한마음 음악교실(시각장애우, 보육원생들 대상)/ 한울림 풍물교실, 민들레 독서회, 푸른나무 도예교실(지역 내 공부방 아이들 대상)	1
	· 무료운영으로 좋은 반응	1
	· 청소년 역사교실, 청소년 요리사, 해운대 사랑문화체험, 책사랑 대출문고 및 도서관 체험학습(어린이집, 공부방 아이들 대상), 어르신 단전호흡(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어르신 대상)	1
	· 노년층 수강기회 확대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수강료 30% 할인/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에 대한 수강료 30% 할인	1
	· 농촌 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교육 사업	1
	·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1
	· '찾아가는 도서관 이동 문화교실'(접근이 어려운 공부방, 보육원 친구들 대상)	1
	· 장애우 대상 : 찾아가는 동화구연	1
	· 무장애 마을 만들기 : 장애인 인권 학교, 장애체험, 마을축제	1
	· 장수대학강좌	3
여성 교육	· 지역 여성을 위한 여성대학 교육	1
연수	· 지역평생교육 기관 실무자 및 기관장 연수	2
	· 교사 연수	1

	교육 및 사업 내용	빈도
사업	· 지역 네트워크	
	-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모임 및 교육	3
	- 시, 교육청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의 장 마련	1
	- 교육 네트워크 구성	2
	- 프로그램 강사간 연결	1
	· 학습동아리 구성 및 운영 : 장구와 민요	4
	· 금빛평생교육 봉사단 파견	1
	· 평생학습 상담	1
	· 지역내 평생교육관련 정보 제공	2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및 홍보자료 발간 사업	1
	· 2003년 평생학습관 기관운영 현황 조사사업	1

응답한 내용들을 검토하여 분류하기 위해 교육영역에 대해서는 설문외의 초반에 제시된 분류를 따랐다. 먼저, '교양교육', '취미교육', '문화교육 및 문화사업'을 따로 분류하였고, '직업교육(컴퓨터교육 포함)', '어학교육'으로 분류하였다. 그 외 학습자를 기준으로 '어린이 프로그램', '주부 대상 프로그램', '소외계층 프로그램 및 운영', '여성교육'으로 나누었으며, 기타 '연수', '사업'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교양, 취미, 문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의 빈도가 가장 많았다. 교양 프로그램 가운데서는 한글 문해교육이 가장 많았으며, 도서관과 관련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및 글쓰기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취미교육에서는 서예가 가장 많았으며, 건강관리 프로그램, 공예 관련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문화교육에서는 생태주의적 관점을 통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역 문화 탐방 프로그램이 눈에 띄며, 도서관과 연계한 문화행사와 평생학습 축제 사업도 있었다.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컴퓨터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가장 많았고 기타 전문가 과정 및 취업교육프로그램들이 있었다.

그 외 어린이와 주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다수 있었는데 이는 기관의 특색을 살린 독서관련 프로그램과 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특기할만한 것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에 신경을 쓰고 있는 곳들이 다수 있었다는 것이다. 노약자, 농촌 지역민, 지역의 공부방 아이들과 보육원 및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해 놓고 있었고, 장애우들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이동 문화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기관까지 올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펼치는 곳도 있어 주목할 만하다.

그밖에 기관장 및 교사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주 적은 수였고, 지역네트워크를 위한 협의회 및 모임을 개최하고 교육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또한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기도 하고, 평생학습 상담을 진행하는 곳도 있었다. 그 외 홍보자료 발간 사업 및 조사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었다.

대다수가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열거하였고, 센터 및 학습관으로서의 특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관계자 연수, 평생학습축제, 기관교류, 정보와 상담 등의 사업은 미흡하여 앞으로 일반 기관과의 차별성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 2. 여성교육 실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일반적 실태와 함께 여성교육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의 여성평생교육 지원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에 대한 인식도 조사하였다.

### 가. 현황

#### ■ 담당자

담당자의 여성평생교육기관 인지도 및 여성교육 이해도와 관계되는 6개의 질문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여성평생교육기관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표 IV-28> 담당자의 지역여성평생교육기관 인지도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2/8.3	10/11.0	1/9.1	13/10.3
약간 그렇다	14/58.3	37/40.7	3/27.3	54/42.9
별로 그렇지 않다	7/29.2	38/41.8	7/63.6	52/41.3
전혀 그렇지 않다	1/4.2	6/6.6		7/5.6
계	24/100	91/100.1	11/100	126

지역여성평생교육기관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약간 그렇다’ (14/58.3%)가 가장 많았고, ‘별로 그렇지 않다’ (7/29.2%)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평생학습관의 경우도 ‘별로 그렇지 않다’ (38/41.8%)는 입장이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약간 더 높은 정도이므로, 지역여성평생교육기관들에 대해 약간 아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 응답도 46.9%에 달해 지역여성평생교육기관과의 교류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표 IV-29> 담당자의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인지도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2/8.3	12/13.2		14/11.1
약간 그렇다	17/70.8	34/37.4	5/45.5	56/44.4
별로 그렇지 않다	3/12.5	37/40.7	5/45.5	45/35.7
전혀 그렇지 않다	2/8.3	8/8.8	1/9.1	11/8.7
계	24/99.9	91/100.1	11/100.1	126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경우 ‘약간 그렇다’ (17/70.8%)가, 평생학습관은 ‘별로 그렇지 않다’ (37/40.7%)가 가장 많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율이 약간 높긴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율도 44.4%에 달해 대표적 여성평생교육기관인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여성평생교육기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센터나 학습관을 통한 여성교육정보 제공 기능 수행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여성사회교육정보DB에 접속해 본 적이 있는가

<표 IV-30> 담당자의 여성사회교육정보 접속 경험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4/4.4		4/3.2
약간 그렇다	10/41.7	21/23.1	4/36.4	35/27.8
별로 그렇지 않다	10/41.7	40/44.0	5/45.5	55/43.7
전혀 그렇지 않다	4/16.7	26/28.6	2/18.2	32/25.4
계	24/100.1	91/100.1	11/100.1	126

여성사회교육정보DB에 접속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경우 ‘별로 그렇지 않다’ (10/41.7%), ‘약간 그렇다’ (10/41.7%)가 같은 응답율을 보였다. 평생학습관의 경우 27.5%만이 ‘그렇다’ 고 응답하였으며, 전체의 69.1%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이에 친숙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전혀 접속해보지 않은 비율도 25.4%에 달해 여성사회교육정보DB의 인지도, 활용도가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여성들의 정보 접근가능성도 낮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여성교육관련 연수기회가 있었는가

<표 IV-31> 담당자의 여성교육 연수기회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1/4.2			1/10.8
약간 그렇다	3/12.5	6/6.7		9/7.2
별로 그렇지 않다	12/50.0	40/44.4	7/63.6	59/47.2
전혀 그렇지 않다	8/33.3	44/48.9	4/36.4	56/44.8
계	24/100	90/100	11/100	125

여성교육 관련 연수 기회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92%가 부정적 응답을 하여 여성교육관련 연수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연수결과 여성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증진되었는가

<표 IV-32> 담당자의 여성교육 이해도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1/1.4		1/0.95
약간 그렇다	5/21.7	8/11.1		13/12.4
별로 그렇지 않다	14/60.9	32/44.4	7/70.0	53/50.5
전혀 그렇지 않다	4/17.4	31/43.1	3/30.0	38/36.2
계	23/100	72/100	10/100	105

연수 결과 여성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증진되었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86.7%가 그렇지않다고 응답하여 담당자의 여성교육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연수교육 기회의 확대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에 있어 여성교육과 관련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여성을 위한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표 IV-33> 여성사업 강화에 대한 담당자의 인식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7/29.2	29/32.6	4/36.4	40/32.3
약간 그렇다	10/41.7	44/49.4	5/45.5	59/47.6
별로 그렇지 않다	6/25.0	13/14.6	2/18.2	21/16.9
전혀 그렇지 않다	1/4.2	3/3.4		4/3.2
계	24/100.1	89/100	11/100.1	124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이 여성을 위한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79.9%에 달하지만 담당자들은 여성사업 강화의 필요성을 약간 느끼는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여성 교육기관들과의 교류

여성교육기관들과의 교류 상황과 관련하여 3가지 질문을 하였다.

일곱째,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평생교육기관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가

<표 IV-34> 여성평생교육기관과의 교류 경험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2/8.3	1/1.1		3/2.4
약간 그렇다	13/54.2	21/23.1	3/27.3	37/29.4
별로 그렇지 않다	6/25.0	41/45.1	6/54.5	53/42.1
전혀 그렇지 않다	3/12.5	28/30.8	2/18.2	33/26.2
계	24/100	91/100.1	11/100	126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평생교육기관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지는 질문에, 전체의 68.3%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여성평생교육기관들과 교류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약간 그렇다’ (13/54.2%)가 가장 많은 데 비해, 평생학습관의 경우는 ‘별로 그렇지 않다’ (41/45.1%)가 가장 많고, ‘전혀 그렇지 않다’ (28/30.8%)가 그 다음으로 많아 85.9%가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학습관이 기관교류 기능 수행도가 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덟째, 여성평생교육기관들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가

<표 IV-35> 여성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경험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2/8.3	1/1.1		3/2.4
약간 그렇다	8/33.3	17/18.9	3/27.3	28/22.4
별로 그렇지 않다	11/45.8	39/43.3	5/45.5	55/44.0
전혀 그렇지 않다	3/12.5	33/36.7	3/27.3	39/31.2
계	24/99.9	90/100	11/100.1	125

여성평생교육기관들에게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가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가 44.0%로 가장 많고, 75.2%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여성평생교육기관들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관교류도가 낮은 것이 선행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홉째, 여성평생교육기관들에 연수기회를 제공한 적이 있는가

<표 IV-36> 여성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연수기회 제공 경험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1/4.2			1/0.8
약간 그렇다	9/37.5	11/12.2		20/16.0
별로 그렇지 않다	6/25.0	34/37.8	7/63.6	47/37.6
전혀 그렇지 않다	8/33.3	45/50.0	4/36.4	57/45.6
계	24/100	90/100	11/100	125

여성평생교육기관들에 연수기회를 제공한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83.2%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약간 그렇다’ (9/37.5%)가 가장 많고, 평생학습관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45/50%)가 가장 많았다.

■ 여성계의 자문

열 번째, 기관 운영 시 여성전문가, 여성단체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가

<표 IV-37> 여성계의 자문 경험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3/3.4		3/2.4
약간 그렇다	7/29.2	11/12.4	1/9.1	19/15.3
별로 그렇지 않다	12/50.0	37/41.6	6/54.5	55/44.4
전혀 그렇지 않다	5/20.8	38/42.7	4/36.4	47/37.9
계	24/100	89/100.1	11/100	124

기관 운영시 여성전문가, 여성단체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82.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여성교육프로그램

여성교육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하여 4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열한 번째, 지역여성의 교육요구를 조사하거나 참고하고 있는가

<표 IV-38> 여성교육요구 반영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5/20.8	16/17.8		21/16.8
약간 그렇다	8/33.3	40/44.4	6/54.5	54/43.2
별로 그렇지 않다	8/33.3	23/25.6	4/36.4	35/28.0
전혀 그렇지 않다	3/12.5	11/12.2	1/9.1	15/12.0
계	24/99.9	90/100	11/100	125

지역여성의 교육요구를 조사하거나 참고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54.1%가 평생학습관은 62.2%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주 사업으로 하는 학습관이 더 요구조사를 활발히 하는 듯하다. 그러나 여성을 주 사업대상으로 하면서도 여성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전체의 40%)이 높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열두 번째, 여성의 의식, 몸, 삶, 지도력에 관한 교육을 운영한 적이 있는가

<표 IV-39> 여성의식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8/9.0		8/6.5
약간 그렇다	7/29.2	25/28.1	2/18.2	34/27.4
별로 그렇지 않다	11/45.8	32/36.0	4/36.4	47/37.9
전혀 그렇지 않다	6/25.0	24/27.0	5/45.5	35/28.2
계	24/100	89/100.1	11/100.1	124

여성의 의식, 몸, 삶, 지도력에 관한 교육을 운영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70.8%가 평생학습관의 경우 63%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다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여성을 특화한 프로그램(여성의 의식, 몸, 삶, 지도력에 관한 교육) 운영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

열세 번째, 성평등 교육을 어떤 형태로든 하고 있는가

<표 IV-40> 성평등교육 운영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3/3.3		3/2.4
약간 그렇다	6/25.0	14/15.6	1/9.1	21/16.8
별로 그렇지 않다	10/41.7	40/44.4	3/27.3	53/42.4
전혀 그렇지 않다	8/33.3	33/36.7	7/63.6	48/38.4
계	24/100	90/100	11/100	125

성평등 교육을 어떤 형태로든 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75%가 평생학습관의 경우는 81.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성

평등 교육의 실시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열네 번째,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표 IV-41> 취약계층여성교육 운영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1/4.2	5/5.6		6/4.8
약간 그렇다	6/25.0	19/21.3		25/20.2
별로 그렇지 않다	7/29.2	24/27.0	4/36.4	35/28.2
전혀 그렇지 않다	10/41.7	41/46.1	7/63.6	58/46.8
계	24/100.1	89/100	11/100	124

취약계층 여성(저소득, 저학력, 이혼, 한부모, 미혼모, 폭력피해 여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에 75%가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학습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많다. 여성대상프로그램 대부분이 유한계층 주부가 대상이고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 여성학습자 지원

여성학습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4가지 질문을 제시하였다.

열다섯 번째, 여성들에게 지역여성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표 IV-42> 지역여성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3/12.5	4/4.5		7/5.7
약간 그렇다	8/33.3	18/20.5	3/27.3	29/23.6
별로 그렇지 않다	5/20.8	37/42.0	4/36.4	46/37.4
전혀 그렇지 않다	8/33.3	29/33.0	4/36.4	41/33.3
계	24/99.9	88/100	11/100.1	123

여성들에게 지역여성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 70.7%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54.1%, 학습관은 75%가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열여섯 번째, 탁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표 IV-43> 탁아서비스 제공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4/4.4		4/3.2
약간 그렇다	1/4.2	4/4.4		5/4.0
별로 그렇지 않다	5/20.8	17/18.9	2/18.2	24/19.2
전혀 그렇지 않다	18/75.0	65/72.2	9/81.8	92/73.6
계	24/100	90/99.9	11/100	125

탁아서비스를 제공하는가와 관련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92.8%가 탁아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여성들의 학습 지원환경이 상당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열일곱 번째, 여성학습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가

<표 IV-44> 여성학습동아리 지원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3/12.5	14/15.7	1/9.1	18/14.5
약간 그렇다	9/37.5	27/30.3	3/27.3	39/31.5
별로 그렇지 않다	2/8.3	24/27.0	2/18.2	28/22.6
전혀 그렇지 않다	10/41.7	24/27.0	5/45.5	39/31.5
계	24/100	89/100	11/100.1	124

여성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가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약간 그렇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같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는데 부정적인 답이 54.1%로 약간 더 많다. 기관에 따라 지원상황이 다양한 듯하다.

열여덟 번째, 여성들을 위한 전문적인 학습상담(생애학습설계나 직업설계 등)을 제공하고 있는가

<표 IV-45> 여성학습상담 제공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1/4.2	3/3.4		4/3.2
약간 그렇다	4/16.7	12/13.5	2/18.2	18/14.5
별로 그렇지 않다	12/50.0	38/42.7	2/18.2	52/41.9
전혀 그렇지 않다	7/29.2	36/40.4	7/63.6	50/40.3
계	24/100.1	89/100	11/100	124

여성들을 위한 전문적인 학습상담(생애학습설계, 직업설계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의 82.2%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일반적인 실태 파악을 위한 질문의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여성을 위한 전문적인 학습상담(생애학습설계나 직업설계)서비스 제공이 절대적으로 미흡함을 알 수 있다.

### 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의 여성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 ■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의 여성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7가지 사업 영역을 제시하여,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여성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기능 강화

<표 IV-46> 여성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사업의 필요성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필요하다	12/50.0	40/44.9	6/54.5	58/46.8
약간 필요하다	11/45.8	42/47.2	2/18.2	55/44.4
별로 필요하지 않다	1/4.2	6/6.7	1/18.2	9/7.3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1	1/9.1	2/1.6
계	24/100	89/99.9	11/100	124

여성평생교육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관에서 ‘매우 필요하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91.2%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여성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표 IV-47> 여성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의 필요성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필요하다	14/58.3	55/61.8	7/63.6	76/61.3
약간 필요하다	8/33.3	29/32.6	2/18.2	39/31.5
별로 필요하지 않다	2/8.3	4/4.5	1/9.1	7/5.6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1	1/9.1	2/1.6
계	24/99.9	89/100	11/100	124

여성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서, 기관의 성격에 관계 없이 ‘매우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의 92.8%가 여성대상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평생교육기관의 여성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원 연수기회 확대

<표 IV-48> 여성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원 연수사업의 필요성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필요하다	11/45.8	43/47.8	7/63.6	61/48.8
약간 필요하다	13/54.2	38/42.2	2/18.2	53/42.4
별로 필요하지 않다		6/6.7	1/9.1	7/5.6
전혀 필요하지 않다		3/3.3	1/9.1	4/3.2
계	24/100	90/100	11/100	125

평생교육기관의 여성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원 연수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는 반응이 91.2%를 차지하고 있다. 학습관의 10%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넷째, 여성평생교육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표 IV-49> 여성평생교육기관과의 교류사업의 필요성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필요하다	12/50.0	39/43.8	6/54.5	57/45.96
약간 필요하다	12/50.0	41/46.1	3/27.3	56/45.2
별로 필요하지 않다		6/6.7	1/9.1	7/5.6
전혀 필요하지 않다		3/3.4	1/9.1	4/3.2
계	24/100	89/100	11/100	124

여성평생교육기관과의 교류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는 입장이 91.2%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매우 필요하다’ (12/50%)와 ‘약간 필요하다’ (12/50%)에 모두 응답하였다. 평생학습관의 경우 약 10%는 ‘필요하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취약계층 여성대상 교육 및 지원 강화

취약계층 여성(저소득, 저학력, 이혼, 한부모, 미혼모, 폭력피해 여성 등) 대상 교육 및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기관의 성격에 관계없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전체의 91.1%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표 IV-50> 취약계층 여성대상 교육 및 지원사업의 필요성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필요하다	15/62.5	53/59.6	8/72.7	76/61.3
약간 필요하다	9/37.5	27/30.3	1/9.1	37/29.8
별로 필요하지 않다		6/6.7	1/9.1	7/5.6
전혀 필요하지 않다		3/3.4	1/9.1	4/3.2
계	24/100	89/100	11/100	124

여섯째, 여성의식 및 성평등 교육 강화

<표 IV-51> 여성의식 및 성평등 교육사업의 필요성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필요하다	10/41.7	39/43.8	4/36.4	53/42.7
약간 필요하다	13/54.2	40/44.9	2/18.2	55/44.4
별로 필요하지 않다	1/4.2	9/10.1	3/27.3	13/10.5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1	2/18.2	3/2.4
계	24/100.1	89/99.9	11/100.1	124

여성의식 및 성평등 교육을 강화와 관련해서, ‘약간 필요하다’ 는 입장이 전체에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매우 필요하다’ 는 것으로 전체의 87.1%가 필요를 인식하고 있었다. 역시 학습관의 11.2%는 부정적인 의견이다.

일곱 번째, 여성을 위한 시설(탁아, 휴게실 등) 확대

<표 IV-52> 여성시설 확대의 필요성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필요하다	18/75.0	61/68.5	4/36.4	83/66.9
약간 필요하다	3/12.5	22/24.7	3/27.3	28/22.6
별로 필요하지 않다	2/8.3	3/3.4	3/27.3	8/6.5
전혀 필요하지 않다	1/4.2	3/3.4	1/9.1	5/4.0
계	24/100	89/100	11/100.1	124

여성을 위한 시설(탁아시설, 휴게실 등) 확대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매우 필요하다’ 는 입장이 66.9%, ‘약간 필요하다’ 까지 합하면 89.5%에 달했다.

1) 위의 7가지 사업 중 여성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표 IV-53> 여성대상 사업의 우선성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여성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기능 강화		10/11.8		10/8.8
여성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35.0	29/34.1	3/33.3	39/34.2
여성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원 연수기회 확대	2/10.0	7/8.2	1/11.1	10/8.8
여성평생교육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2/10.0	5/5.9		7/6.1
취약계층 여성대상 교육 및 지원 강화	2/10.0	8/9.4	2/22.2	12/10.5
여성의식 및 성평등 교육 강화		4/4.7		4/3.5
여성을 위한 시설(탁아, 휴게실) 확대	7/35.0	22/25.9	3/33.3	32/28.1
계	20/100	85/100	9/99.9	114

이어서, 위에서 제시한 7가지 사업 중 여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였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경우 ‘여성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35%), ‘여성을 위한 시설(탁아, 휴게실 등) 확대’ (7/35%)가 가장 많았던 반면, ‘여성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기능 강화’에는 응답자가 없었다. 평생학습관의 경우도 ‘여성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9/34.1%)이 가장 많았고, ‘여성을 위한 시설(탁아, 휴게실 등) 확대’ (22/25.9%)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여성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여성을 위한 시설(탁아, 휴게실) 확대’, ‘취약계층 여성대상 교육 및 지원 강화’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여성의식 및 성평등 교육 강화’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 위에서 언급한 사업 외에 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자유롭게 써달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및 취업과 관련한 프로그램, 성취의욕 고취 및 자존감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노후생활 설계 프로그램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모자가정 및 여성가장을 위한 직업 훈련의 무료 지원과 편부모 자녀교육 관련 사업을 제안하였다. 특히 교육 이후의 사후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교육을 받고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취업 상담 및 여성관련 상담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교육접근성 제고를 위해 탁아시설 및 셔틀버스 운영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기타로는 여성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과 담당자의 의식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도 있었고, 평생학습 동아리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빈도
교육프로그램	·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 전문지도자 양성과정/ Human Leader 양성 사업/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1/1/1
	· 직업 관련 프로그램	1
	- 주부들을 위한 직업 의식 및 교육 제고	1
	· 성취의욕 고취 프로그램/ 자존감 강화 프로그램	1/2
	· 소양교육 필요(질서의식, 소비, 자녀 교육에 관한...)	1
	· 예비 결혼부부 교육 프로그램	1
	· 노후생활 설계 프로그램	1
	· 취약 계층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 모자가정 및 여성가장을 위한 직업훈련의 무료 지원/ 편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관련 사업	1
사후관리	· 여성 교육 이후 사후관리 필요 : 취업, 자원봉사 등 참여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 제공/ 여성 대상 취업 기회 제공	1/1
	· 취업 상담 프로그램	1
	· 여성상담	1
시설	· 탁아시설/ 노인휴게실/ 셔틀버스 운행	3/1/1
	· 여성교육을 위한 전문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필요하지만 기존 기관에 과중하고 무리한 업무를 과중하는 처사밖에 되지 않는다.	1
기타	· 여성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시범기관 보조금 등 재정적 뒷받침 필요	1
	· 담당자의 의식 강화가 필요	1
	· 평생학습 동아리 사업	2

■ 지역여성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 사업

응답 기관들과 지역여성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 사업과 관련하여 3가지 질문을 하였다.

첫째, 연계 필요성에 대해

<표 IV-54> 지역여성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매우 필요하다	12/52.2	39/43.8	6/50.0	57/45.96
약간 필요하다	11/47.8	43/48.3	4/33.3	58/46.8
별로 필요하지 않다		7/7.9	2/16.7	9/7.3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체	23/100	89/100	12/100	124

응답 기관들과 여성교육기관들과의 연계(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의 92.8%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둘째, 여성교육기관과의 교류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

<표 IV-55> 여성교육기관과의 교류 장애 요인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상호교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11/47.8	46/51.7	3/25.0	60/48.4
추진 경험 및 역량 부족	6/26.1	15/16.9	4/33.3	25/20.2
기관들간 상호 경쟁 및 신뢰 부족	2/8.7	15/16.9	3/25.0	20/16.1
상호 이득이 되는 적절한 교류사업 부재	4/17.4	13/14.6	2/16.7	19/15.3
계	23/100	89/100.1	12/100	124

여성교육기관과의 교류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 보았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상호교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11/47.8%)이 가장 많았고, ‘추진 경험 및 역량 부족’ (6/26.1%)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평생학습관의 경우도 ‘상호교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46/51.7%)가 가장 많았고, ‘추진 경험 및 역량 부족’ (15/16.9%) 및 ‘기관들간 상호 경쟁 및 신뢰 부족’ (15/16.9%)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상호교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이 ‘추진 경험 및 역량 부족’이라고 응답하여 인식이 가장 큰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지역의 여성평생교육 교류의 중심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관

<표 IV-56> 지역 여성평생교육교류 중심기관

단위: 명/%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전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3/13.0	15/16.9	1/8.3	19/15.3
평생학습관		12/13.5	1/8.3	13/10.5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20/87.0	60/67.4	10/83.3	90/72.6
대학		1/1.1		1/0.8
기타		1/1.1		1/0.8
계	23/100	89/100	12/99.9	124

지역의 여성평생교육 교류의 중심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2.6%로 가장 많았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경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3/13%)라고 응답한 사람이 그 다음으로 많으며, 평생학습관의 경우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15/16.9%)가 그 다음으로 많고 ‘평생학습관’ (12/13.5%)이 그 뒤를 이었다.

\* 마지막으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이 여성평생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여성평생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보다 일반적 기관 운영과 관련한 제안들이 대부분이었다. 기관 운영 면에서 볼 때, 여성부 및 여성평생

교육기관과의 연계, 협력과 평생교육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다. 학습상담,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 탁아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차별화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사업들을 보면 기존의 여성회관, 백화점 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고, 센터나 학습관으로서의 특색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은 지역교육기관들의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중추기관으로서 기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여성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여성의식과 전문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자격증이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시민이 아닌 여성위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도 있었다.

여성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한 법적인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여성교육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성평생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	빈도
기관 운영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2
	· 상호보완적이고 교류적인 업무 진행 필요/ 상호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상호보완적 프로그램 개발	3/1/1
	· 여성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 장치 필요	2
	· 여성부와 연계 여성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원 연수 기회 확대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1
	· 학습상담	1
	· 학습동아리 지원	1
	· 탁아문제 해결	2
	· 여성평생교육과 관련한 법적인 조항 마련이 시급	1
	· 소외된 농촌 여성 지원방안 모색	1
프로 그램	·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지원(직업상담, 훈련, 취업후 상담...)	1
	· 여가생활 또는 취미 관련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 한 자아실현 및 사회 봉사 또는 취업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1
	· 시민단체, 여성교육단체, 공공 기관 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차별화,	4
	· 수준 차별화/기관별 성격에 적합한 과정별(기초, 전문, 자격증반) 교육	1/1/3
	· 여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 여성에 대한 인식 교양	1
	· 지역주민들이 여성교육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은 형편에서 너무 앞서가는 여성교육보다는 여성 스스로 또는 사회적으로 순차적으로 변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가 시급하다.	1
	·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 및 실비로 교양 프로그램 지원	1
	· 프로그램 운영이 주로 주부님들 시간에 맞춰져 있어 직장인들의 이용에 불편하다는 요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1
	·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실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2
	· 사후 관리 필요	1
	· 자격증 프로그램의 체계화, 교육프로그램의 학점화, 단체든 기관에서든 수료증을 인증할 수 있는 구체적 제도의 필요	1
	· 기능적 역할분담의 필요성 : 여성의 인권, 시민의식 등의 교육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등이 담당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 평생교육원에 대해 이러한 강좌개설에 따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1
· 평생학습관과 연계한 테마가 있는 여성교육 기회 마련 : 관련 전문기관에서 직접 주관하고 평생학습관은 장소를 지원하는 등 방안 검토	1	

### 3. 소결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관의 주 유형은 도서관(45.7%), 교육청(25.2%), 대학(10.2%) 순이었다. 대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기구로서 다양한 부처에 소속된 지역평생교육기관들을 연계하는 사업에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 타 부처 산하 기관들과의 협력체제 구축이 네트워크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신청 배경에 타율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함으로써 자발적 참여 의지에 역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응답 기관의 대다수 참여자는 여성으로 문화, 교양, 취미 교육에 편중된 교육을 하고 있었고, 기존 직원이 부가적으로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70%이상에 달해 업무부담 가중과 함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의 전문성 미흡을 초래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으로의 지정이후 기관의 지명도 및 수강생은 약간 증대하였다고 느끼고 있으나, 재정 안정이나 수익, 연수기회, 운영의 전문성은 별로 증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 조직 성격과 새로 부여된 기구 성격의 이중적 존재로 기관 운영 방향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에 기대되는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기관 교류와 정보 제공 사업이 약간 강화되었고 학습상담 기능 수행은 별로 강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정부의 지원은 재정과 정보에 있어서 약간의 지원이 있었으나 연수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별로 없었고 특히 여성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기관 운영의 애로 사항으로는 전문인력 부족, 채용 부족, 기관 운영 방향의 불명확성 순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시설 및 사업의 빈약, 기관장의 인식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지난 몇 년간 지역 교육문화시설들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고 평생교육정보 DB의 보급과 관계자 연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 평생교육지원체제 구축이 추진되었으나, 아직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기관관계자들에게 확립이 되어 있지 못하여 다른 평생교육기관들과의 차별화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고, 중요 사업인 지역기관 연계교류와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기존 시설에의 부가적 지정으로 직원들의 이중적 업무부담 인식과 새로운 기관 성격 창출의 실패가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평생교육전문기관임에도 전문인력 배치가 매우 미흡하여 기구 운영의 전문성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여성교육 실태에 있어서는,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포함하는 지역여성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지도가 미흡하여 여성평생교육기관들과의 연계교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성사회교육정보 DB와 같은 여성정보에의 접근성이 매우 미흡하여 여성들에게 필요한 교육정보를 적절히 제공해주기 어려운 상태이며, 여성교육에 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연수교육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자들의 여성교육 전문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의식이나 지도력교육, 성평등교육, 취약계층 여성교육도 매우 미흡한 상태이고 전문적인 여성학습상담이나 탁아서비스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응답자들이 향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에서의 여성교육 사업의 필요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지침과 지원이 요구된다. 응답자들은 여성을 위해 필요한 우선 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탁아서비스, 취약계층여성 지원, 여성교육정보와 연수기회 순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여성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관들의 인식 및 상호 신뢰 부족, 경쟁분위기, 교류경험 및 역량 부족 등을 장애로 보고 있었다. 지역여성평생교육 교류의 중심 기관으로는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현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이 여성교육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나 관계자들의 인식의 기반은 긍정적이므로 정책적 독려와 실질적 지원이 있다면 여성교육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 사례 조사: 기관유형별 사례

---

1. 지역평생교육전담기구 유형: 지역사회시설 기반형	113
2. 유형별 사례	116
3. 소결	136

---



학습자들에게 평생교육정보 및 학습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는 크게 지역사회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와 웹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은 지역시설을 기반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웹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 영국의 Learndirect, 캐나다의 Canlearn Interactive 등이 있다. 우리나라도 평생교육정보 DB를 운영하고 있지만, 웹상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이 아직 미약하여 초보적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 1. 지역평생교육전담기구 유형: 지역사회시설 기반형

Ironside(1981)는 지역시설기반 서비스체제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장, 단점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아래 유형들은 운영 철학, 프로그램에 있어 공통점이 있지만, 운영구조로부터 유래되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 유형구분은 우리나라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을 유형화하는 데 시사를 준다.

### 가. 기관부설형(Institution-Based Model)(대학이 지원하는 기관):

대학과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서비스형으로 하나의 교육기관이 주변의 지역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대학의 지원을 받아 재정지원의 연속성, 프로그램에 대한 기관의 지원이 강점이나 단일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계도 있다. 단일 기관이 모든 지역과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고객들에 효과적으로 봉사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기관들은 이런 기관에 위협을 느껴 비협조적이 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교육정보 제공시 지원기관에 우호적인 배타적 자세를 취하거나 지원기관의 정치적 입장에 민감하여 기관 독자의 목소리를 내거나 요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대학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많은 여성들이 대학지원 센터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센터들이 필요한 면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기관으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의 지원을 받는 여성자원센터(Woman's Resources Center(WRC))가 있다. WRC는 교육, 노동 시장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여성들의 요구에 봉사하기 위해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이다. 전문직원과 훈련된 자원봉사 상담자들이 근무하면서 학습자원과 기회에 대한 정보, 직업설계와 구직 지원, 개인면담과 집단면담, 심리검사, 집단토론, 교육프로그램, 생애설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주부인데 센터의 서비스는 이제 남자들에게도 확대해 가고 있다.

#### 나. 협의회/ 컨소시엄형(Community Council/Consortium model):

이 유형은 지역 역량을 학습기회에 대한 지역적 접근을 증진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여러 교육기관들의 대표가 참여하므로 광범한 지원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적 안정성의 부족이 주 약점이고 순수한 컨소시엄 모델의 경우 기존 기관들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혁신적 교육형태의 발전을 억누를 수도 있다. 기관의 참여도가 약한 협의회만의 모델은 혁신적 시도를 할 의지나 자신이 없을 수 있다.

이 유형의 사례로는 캐나다 Brantford시의 교육정보센터(Education Information Center)가 있다. 1975년 시민과 다양한 교육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시의 계속교육협의회(Council of Continuing Education)는 첫 사업으로 교육정보센터를 설립하였다. 협의회는 센터 운영외에 교육기관들간의 협력 프로그램 지원, 중복과 격차의 확인, 실험적 사업 추진, 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도적,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센터는 학습기회, 지역별 전국적 교육과 고용훈련,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밖에 경력 및 직업설계, 개별 상담, 파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여성이용자가 남성의 두 배 정도로 주 이용연령대는 23세에서 35세, 5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 다. 지방정부 사업형(Local Government Model):

이 유형은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있어 장점이 있으나 시민들은 시의 서비스로 인식하며 변화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다.

여기에는 독일의 교육자문센터(The Education Advice Center)가 해당한다. 독일연방공화국의 Cologne은 유럽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상담센터를 설립하였다. 1976년 연방정부는 실업성인들을 위한 실험적 상담센터들을 10개 지역에 설립하였다. 이 특별사업 중 하나가 Cologne의 교육자문센터에 의해 운영되었다. 1972년 설립된 센터는 시의 예산 지원과 주, 연방정부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았다.

#### 라. 독자적인 교육브로커형(Brokerage Model):

자발적인 지역기반 서비스 조직으로 재정적, 조직적으로 독립적이다. 모든 교육제공기관들로부터의 독립성이 강점이므로 정보와 상담 제공시 고객이해를 대변할 수 있으나 재정적 취약성, 불안정성, 그리고 기관들로부터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기 어려운 것이 약점이다.

북아일랜드의 성인교육안내서비스(Educational Guidance Service for Adults/ EGSA)가 이 유형이다. 성인들을 위한 독립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1967년 설립되었다. EGSA는 기관들의 강력한 네트워크로 발달하였는데 재정적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독립적 기반을 유지해오고 있다. 직업안내를 중심으로 하고 생애설계, 경력 및 교육상담도 제공한다.

한국도 평생교육의 지역기반 강화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이 발전하고 있다. 대학들이 평생교육원을 통해 지역에 대한 교육적 봉사 또는 영리적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차원에서 주민의 평생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광명시 평생학습원같은 시의 사업형도 성장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독자적인 서비스 기관들도 많으나 재정적 불안정성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단체들의 여성교육 사업이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역의 여러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협의회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는 형태의 발전은 미약한 편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 평생교육센터와 평생학습관의 전국적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강력한 지원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독립적 센터의 설립보다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교육서비스를 기존 교육, 복지, 문화기관에 부가하는 기관부설형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실질적인 서비스의 전문화에 있어 아직 취약한 점이 많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센터와 학습관으로 지정된 다양한 기관들의 사례를 독립기관형, 대학부설형, 도서관부설형으로 구분하여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세 유형을 선정한 이유는, 현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선정 비율상 도서관과 대학부설형이 가장 많으며, 독립센터형은 사례 수는 적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정기관들과 달리 이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교육서비스기관으로서의 특성상 검토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관할 기관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도서관 자체가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교육청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교육청운영형’ 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센터형 가운데도 교육청 직속기관이 있어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다.

## 2. 유형별 사례

평생학습관은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대학과 도서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정기관의 고유 목적과 자원에 따라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소수이긴하나 지자체 평생교육센터와 같이 평생교육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시설을 지정한 경우도 주목할만하다. 면담조사에서는 대학과 도서관, 그리고 독립적인 평생교육센터 등 평생학습관의 세 유형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유형별로 평생학습관의 기능 수행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성교육에 어떠한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모든 기관유형이 포함되지 않았고 유형별 사례수의 제한성으로 결과의 일반화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나 이는 설문조사 결과로 보완이 될 것으로 본다. 분석 사례 유형과 수는 다음과 같다.

<표 V-1> 사례분석 대상 기관

기관 유형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독립센터부설형	1	1
도서관부설형	1	1
대학부설형	2(1개는 컨소시엄)	1

### 가. 독립적인 평생교육센터형

여기서 독립적인 평생교육센터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지자체나 교육청이 사업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 (1) 사례 1: 평생학습관

A시가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는 지정이전부터 사실상 지역학습관으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어서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새로운 기능이 특별히 부각되고 있지는 않다. 평생학습 정보 제공, 지역평생교육기관 지원 및 연대사업, 시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평생학습정보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상담경험이 있는 시민학습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학습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모 대학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이 기관은 시 산하 기관으로서의 장 단점을 갖고 있다. 장점으로는 예산과 인력지원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시의 간섭과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될 수 있다. 시도 큰 예산을 투자하는 기관이므로 예산 활용, 인력배치에 있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는 기관의 자율적 운영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첫째는 지원이 확실하다는 것.. 예산지원같은 경우 과연 이 정도  
 런 어느 시가 해줄 수 있을까....인력지원 이런 것... 단점으로는 초반  
 에 시의 규제가 굉장히 심했어. 왜냐면 시도 그렇게 큰 예산을 등  
 이는데 자기네 뜻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하면 곤란하잖아. 초반에  
 시와 센터가 부딪치는 것이 엄청났어. 예산의 활용이라든가 인력의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프로그래머라든가 이런데서...뭐 시  
 원의 수가 많이 오는 걸로 해야 한다 시에서는...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니까...또 시의원이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해줘야한다든가...뭐 그  
 령게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았어... 시의회에서 이해를 잘못해서  
 그 쪽을 공약하는 전략을 많이 썼어. 시의회용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그들을 초대하거나.. 보이지 않게 정치적인 것이 있죠, 사실  
 은..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연두에 두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내부적으로는...그때도 시가 나중에 많이 규제를 풀어서 프로그램 운  
 영하는 거나 이런 거는 제약이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

이 기관은 지역교육기관과의 연계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시가 운영  
 하므로 기관 동원력이 있고 연계사업을 하기가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 기관들을 모으기 쉽기는 하나 관공서 차원의 행사라는 인식에서 형식적  
 참여에 그칠 우려가 있다.

“센터는 지역연계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산도 많고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많아. 지역내 기관에 프로그램 지원  
 이라든가 연수프로그램 이런 거 무한히 다 해줘요...시가 작은 지역  
 일수록 시의 권한이 크거든요... 공적 라인들에서는 기관모으기는 쉬  
 워요. 하지만 형식적으로 그칠 수가 있어요. 일단 모을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어요.”

평생학습관에 대한 중앙 및 지역정보센터로부터의 지원은 형식적 연수와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주는 소액의 예산지원 외에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관의 주 이용자는 중년 여성이며 프로그램시간대의 제약으로 직장여성의 이용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주 이용자가 여성임에도 기관 운영에 있어 여성에 대한 전문적 고려가 미흡한 이유 중 하나로 기관운영의 전문성 부족을 들기도 한다.

“전문성이 없어 학습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구요. 프로그램개발에도 요구분석, 고객분석 같은 과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거죠. 프로그램 운영하고 평가가 약하고...학습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분석이라든가, 우리 기관의 역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같은 전략적 측면에서의 마인드가 없고, 있다하더라도 한번의 교육을 받고 스쳐지나가는 ...연수를 통해 지속적인 마인드 형성이 되어서 현장에서 일을 해가는 그런 기능적, 철학적 측면이 없기 때문에...”

시가 지원하는 독립적인 평생학습관의 경우 시의 강력한 지원으로 인한 안정적 재정기반위에서 전 지역을 아우르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교육정보 수집이나 지역교육기관 교류 등의 사업에 있어 강력한 동원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비전문적인 시 관계자의 기관 운영에 대한 개입으로 기관운영의 전문성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시민’의 개념속에 ‘여성’이 포함된다는 인식 때문인지 여성에 대한 별도의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2) 사례 2: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K 센터는 교육청 직속기관으로 2002년 지역센터로 지정되었다. 자료집, 지역평생교육백서를 발간하는 등 지역정보 구축에 노력했고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학습관관계자 연수, 기관교류 추진 등의 사업을 수행했다. 센터 고객은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으로 학습자와의 직접적 접촉은 거의 없다고 한다. 학습자가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기관네트워크 작업은 기관의 소속 차이에 따른 협조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같은 경우 스스로를 평생교육기관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아 평생교육기관 연계에 대한 협조를 얻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한다. 이는 다른 기관 면담에서도 지적되는 문제이다.

“그 사람들은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을 잘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복지관은 복지관으로서의 이념을 갖고 있고 주민자치센터는 독특한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잘 인식을 하지 않았어요.... 담당자나 기관장들이 필요에 의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들에 대한 세미나같은 것을 개최해서 그 분들을 초빙했어요. 그 분들이 와서 배워가는 것이 있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경쟁관계가 아니라 서로 기관들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끼기 시작 하더라고요.”

“기관들이 경쟁을 느껴요. 자기네 강사나 강사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려고 해요... 다른 기관들이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습관에 대한 센터의 지원은 관계자 연수 정도에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엔 학습관이 연계관계가 별로 없어요. 교육청이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담당자 연수를 한두 번 하는 정도의 관계...”

교육청산하 기관이 센터가 되는 것으로의 장점은 평생교육체육과와의 원활한 연계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교육청은 공교육에만 관심이 있고 성인교육에는 관심이나 의욕이 없다는 점이다. 성인교

육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나 “뭘 하라는 이야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나마 교육청 담당자의 교체로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

“교육청에서는 애들 교육에만 관심을 갖지 성인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니까...애들 가르치는 것도 바빠 죽겠다...매일 막나는 대담이 그런 대담이었어요. 소신이 없는 사람이면 시키는대로 하자 적당히 하자 이런 생각이 들죠... 알아야 지시를 하죠... 하지말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뭘 하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귀찮으니까...”

“어느 기관이든간에 직속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은 교육청의 평생 교육체육 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성을 가진다면 또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일을 배우다가 한 일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일을 잘 안하려고 하죠.”

## 나. 대학평생교육원형

### (1) 사례 3: 평생학습관

S 여대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평생학습관 지정이 형식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고 말한다. 500만원의 예산지원 외에는 별 지원이 없었으며 사업을 지정해서 지원한 것도 아니어서 지원금액을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했다고 말한다. 교육청에서 1박2일 연수가 있었으나 학습관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은 없었으며, 중앙센터, 지역센터로부터의 특별한 지원도 없었고 학습관끼리의 교류도 잘 안되었다고 한다. 지역기관들에 만나자고 연락을 해도 일체의 반응이 없어서 교류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한 번 모이자고 연락해도 도대체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제가 인근에 있는 지역학습관을 우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해보려고 했는데 당면이 없어요...같이 만나서 좀 해보자 자리를 좀 보내주세요 하면 깡깡 무소식이었어요...그렇게 몇 번 해볼려고 했는데...작년에 센터가 회의를 주관한다 해서 가 봤는데 가면서 느낀 것은 그 사람들은 같은 교육청소속 공무원들이더라구요. 그런 분들끼리는 서로들 알기 때문에 교류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같은 사립 대학들이 비집고 들어가기가 되게 힘이 들더라구요...”

센터에서 회의개최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끼리는 교류하나 사립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며, 학습관 운영방향, 금빛 자원봉사단의 활용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느꼈다고 한다. 시청, 도청이 주도하는 회의에는 가나 지역여성기관과의 교류는 하고 있지 않았고 그래도 여성회관에는 정보수집차 자주 간다고 하였다. 교류를 못하는 이유는 프로그램 운영에 급급하다보니 교류를 생각하고 추진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 주 원인이라고 하였다. 동종 기관인 대학평생교육원끼리의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별 교류는 안 되고 있었다. 시, 도청중심 교류는 민간 기관을 종적으로 다루는 분위기여서 거부감이 있으며, 수평적 교류를 원하나 지시, 규제하는 분위기가 싫다고 하였다.

피면담자는 평생교육정보 DB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기관정보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적은 있다고 하였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교육 정보 제공에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이 기관에 없는 프로그램은 소개하려고 해도 정보가 부족하여 어렵다고 한다. 학습관 지정후 고객증가나 인지도 증가는 없었다고 보며 행정서류 작성의 부담만 생겼다고 평하고 있다.

고객은 여자대학이다보니 여성이 100%이고 30대가 다수이며 50세 이상도 많다고 한다. 거의 주부로 취업과 자기계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주간, 야간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나 주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학교에 학과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으며, 학교 교수가 강의를 하므로 다른 기관과 교육의 질에 있어 학습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탁아서비스도 학교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이지도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등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는 이점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연수를 통해 경험이 많은 기존 직원들에게 자격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에 접근하며 근래 나이 든 여성들도 인터넷을 통해 평생교육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부가 교육비, 교재비, 강사료를 지원하는 “여성자원봉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면담자는 평생학습관의 운영 방향으로 다음 사항을 지적하였다.

- 기관운영지침이 필요
- 사업지정 예산 지원
- 지역특성 프로그램 개발 지원, 공모 방식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여성부)
- 기관정보화체제는 잘 되어 있으므로 최신 정보, 동향의 자료 갱신에 대한 지원이 필요
- 민간기관에 대한 지배분위기 지양
- 교육부가 평생학습관이 주는 자격증 통일할 필요

#### (2) 사례 4: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J 대학교 평생교육원은 국립대학이 독립적으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독특한 사례이며 일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원 행정실과 지역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센터가 어느 정도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구 지정 방식에서 생길 수 있는 기관 담당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없으며 본 센터의 지정이 지역에서 기관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되며, 전국적으로도 아주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인정받고 있다.

“업무가중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담당자들이 부

정적인 반면, 저희 기관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원 운영과 병행하여 새로운 사업과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그랬던 것 같군요. 기관의 성격변화는 당연 크다고 봅니다. 프로그래밍 운영차원의 교육원과 지역의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센터의 기능은 당연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센터 지정 이후, 중앙 센터(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의 지원 내용은 사업비 지원이 있고 이에 대해 지방비대응투자 형식으로 해서 8천만원 정도와 개별 사업비로 더 추가 지원되고 있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와 비교하면 충분치는 못한 실정이다. 지역평생학습관 실무자들의 연수 및 네트워크 사업, 프로그램제공(이동평생학습관), 전북 현황 발간자료 등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반응은 센터 지정 이후 훨씬 좋아졌다고 평가한다.

여성교육적 관점에 대해서는 여성을 주 고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관장 및 담당자들이 여성에 대한 교육서비스에 관심도 높은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었다. 여성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원 정규강좌로는 우선 여성이 주로 관심 있어 하는 요리, 꽃꽂이, 장식, 공예 등의 프로그램과 특별강좌로 지자체와 연계하여 여성 1인 1기 전통공예, 문화관광안내교육, 호스피스 교육, 그리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PC정비사, 전자상거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 과정들의 성격은 주로 정규과정은 교양강좌 중심이고 특별강좌에는 직업교육작 비중이 크다.

여성학습자를 위한 지원서비스에 있어서는 우선, 여성관련 정보(여성교육기관, 훈련기관, 노동시장 정보, 여성전문사이트 등)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여성학습자의 교육정보 접근은 주로 인터넷 상담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Q&A)과 방문 상담도 많다. 제공되는 교육정보 유형은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과 특기교육(전통공예 등), 기타 타 기관 프로그램소개 등이 있다. 한편, 타 서비스는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방안으로 아동 대상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따라오는 아동들을 꼭 보호할 것이지 아니나, 아이들 대상으로 학습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연령과 수준이 다양할 테니 일방적인 것으로 간단히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편이 보육을 담당하는 지도교사도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보육시설 자체를 어린이드서관처럼 꾸며도 좋을 것 같구  
 인.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용될테니 희망사항이구요. 놀이터처럼 꾸미기보다는 학습시설로 꾸미구요. 체험활동, 놀이학습이 가능하게요. 프로그램진행시간도 연차가 교육받는 시간과 맞추면 좋을 것 같네  
 인.”

평생교육정보센터가 여성 학습자들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은 여성이 학습하는 데 가장 제약이 되는 가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우선 탁아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다같이 수강토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지역 여성교육기관과의 연계 교류의 필요성은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실제 여성회관과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추진되고 있다. 여성 학습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여성교육네트워크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프로그램의 중복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지역내 잘 살펴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활동등을 하는 기관 몇 단체들이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단체 몇 기관들의 프로그램 몇 사업을 보면 50% 이상은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특별한 차이가 있기보다는 이용자를 나누는 것 밖에 없습니다. 기관간의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런 중복을 피하고 좀 더 잘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관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맡아 하고 하는 것이 혼용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이런 협력이란 것이 기관 성격상 그리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래서

기관마다 다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지역에서 전부 똑같이 하고 있는 거겠죠. 저 기관에서 하니까 우리 기관에서도 꼭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평생교육정보센터가 특별히 여성학습자에 대한 배려가 많다고 보지는 않는다. 현재 교육프로그램 주 대상이 여성이었으니 여성의 학습 요구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 이제 사회 중심에서 소외된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정보센터의 기여 방안을 생각할 때라고 판단된다.

### (3) 사례 5: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컨소시엄형)

C 대 평생교육원은 같은 재단의 C 외국어대학 평생교육원과 통합·운영하고 있다. 도학생회관이라는 공공 사회교육기관과 G대학교 평생교육원이 함께 컨소시엄 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이다. 교육청 산하의 사회교육기관의 공공성과 대학평생교육원의 전문성이 상승효과를 보이고 있어 많은 컨소시엄 평생교육정보센터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센터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 내의 200여개의 평생교육기관·단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연찬회, 협력 사업을 위한 회의에는 40-50개 기관이 참여하며, 그 가운데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YWCA 등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다만 여성 전문 사회교육기관·단체에서는 여성 관련 프로그램개발이나 관련 연구, 사업 등의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본 센터의 교육과정에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은 없지만 과정마다 (예:유아교육관련 강좌와 식품관련강좌) 여성 수강생이 많은 강좌들은 있다. 기관에서 여성이 평생교육의 주 대상이기 때문에 여성이 선호하는 과정 등의 발굴에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성의 욕구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교육서비스는 거의 없다. 여성 참여 프로그램도 대체로 취미관련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있다.

“대체로 여성 취미관련 프로그램이 대다수이다. 과정마다 다른 경

향을 보이는데 자격증과정은 직업적으로 좀더 더 활용범위를 넓히기 위해 (예: 유아교육관련 : 대상자들은 실제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 등도 포함) 배우는 경우도 있고 또한 취미로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배우 사람들도 있다. 여성의 의식향상, 전문 직업취득을 위한 과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여성 대상으로만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정보제공도 일반적으로 일반인(남녀공통)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문적 상담에 있어서도 여성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일반 교육행정직을 맡고 있는 담당자들이 강좌운영 전반에 대해 수강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상담에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각종 검사나 생애설계, 경력설계, 학습설계 프로그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여성부의 여성사회교육정보DB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으며 활용해본적도 없었다. 아직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여성부의 여성사회교육정보체제와는 어떠한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여성을 위해 효율적인 교육정보 제공 방안에 대해서 우선은 기관장의 여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여성교육 정보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여성관련 평생학습기관(인력개발센터 등)의 워크숍과 신직종 패스티빙, 여성창업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이 타기관과 연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적인 활동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산업체를 통한 교육정보가 제공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산업체와 협력을 하여 여성교육(취미, 자격증 등)을 적극 권장하므로 여성들의 교육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평생교육정보센터 여성들의 불만은 많은 기관에서 유사한 자격증 혹은 취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전문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수강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 또한 여성들이 센터나 학습관 이용에 있어 아이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여성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는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 센터나 학습관 근처에 탁아소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들이 쉽고 자유롭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정보센터가 여성학습자를 위해 해야 하는 일로는 우선 여성 학습자들이 배울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과 직장 여성들을 위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결혼한 여성들은 아이 때문에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배우고 싶은 강좌들은 많은데 아이 때문에 못 배운다는 여성들이 전화상담을 통해 많이 말하고 있다. 각 센터마다 아니더라도 근처에라도 탁아소가 마련되어 그러한 욕구불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직장여성들을 위한 적성검사나 다양한 검사를 통해 자신들이 적성에 맞는 배움 거리들을 제공해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저것 배운다고 배우는데 적성에 잘 맞지 않고 관심이 처음에는 있다가 점점 없어져 중도에 포기하는 여성들도 많다. 그러므로 교육서비스차원에서 상담부분에서 검사서비스를 포함시켜 좀더 체계적으로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의 여성교육기관과의 연계 교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지역 발전적인 의미에서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나름대로 지역 평생교육기관이라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었고 이미 많은 실제적인 교류는 추진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C시여성회관의 사업계장은 매해마다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연수에 참여하였고 최근에는 본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 참여하여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여성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여성평생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 지침 등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여성서비스 강화를 위해 여성전문기관들과의 협조 필요성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여성서비스를 위해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전문기관을 통해 여러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홍보 제공시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할 경우 전문기관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평생학습의 주 대상인 여성에 대한 배려는 거의 초보 단계이며, 센터의 기관장은 물론 프로그램개발자의 의식에도 아직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평생교육정보센터의 여성학습자에 대한 기여방안으로는 여성의 평생교육 요구 파악과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여성을 생애주기별로 살펴볼 때, 또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심리적 특성에 따라 분석할 때 이등이 필요로 하는 또 이등을 필요로 하는 일등은 무궁무진하다. 한편, 여성 관련 복지단체에서 일한 경험을 비추어 볼때, 아직 교육분야 특히 평생학습관련에서는 중앙 부처의 지원이 거의 없으며 기관의 관심도 없다는 평가를 하게 된다.”

“여성학습자의 대부분은 교육을 통한 자아실현(취업, 봉사), 사회 참여를 원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성향(자아존중감이 낮다)으로 인해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에 한계를 느낀다. 이의 특성을 센터 및 학습관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을 위해 관련 기관들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평생교육정보센터와 관련하여 여성학습자 지원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은 여성 학습자의 특성, 예를 들어 생애주기별, 개인의 성격 성향 등의 파악이 필요하며, 다음은 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기관장이나 실무자들의 의식 개혁을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나 여성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노인교육지도자양성과정 등과 유사한 여성교육 관련 전문자격증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정보센터 중심으로 여성교육 관련 전문가 집단의 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여성 학습자를 위한 탁아서비스 설치나 자원봉사센터 등을 운영하는 것도 시급하다.

## 다. 도서관형

### (1) 사례 6: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지정된 B 평생학습관은 면담결과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과 학습관의 이중적 기능 수행으로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다. 도서관 대 학습관의 업무비중은 70 대 30 정도이다. 평생교육사 없이 사서가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문직원이 없어 애로는 있으나 사서도 교육에 문외한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문화교실 운영의 전통이 있어 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문화교실은 이용자 유치를 위한 방편으로 70년대부터 시작하여 80년대 활성화 되었다고 한다. 주변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수집, 검토하는 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이용자 유치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저희가 문화센터라고 운영해보고 있지만 너무 특성이 없어요. 아직은 도서관 기능하고 같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 일반 교양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해야 할 거 같아요. 지금은 교양보다는 취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할 거 같아요. 하지만 실적 때문에... 좀 낫해하거나 어렵거나 재미없거나하면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머리 아프지 않고 쉽게 던져둘 수 있는 강좌에 많이 몰리다보니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저희 나른대로는 인근의 백화전 문화센터나 각종 기관,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연구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연수기회가 교육청 등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은 도서관인지 학습관인지 혼동을 느끼고 있는 듯 하다고 한다. 아직 뭔가 제대로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학습관 지정이후 긍정적 변화라면, 도서관은 한정적 서비스를 하는 반면 학습관은 주변 주민에 보다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기능의 확대,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관이 된 후 이용자가 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부정적 변화라면, 도서관과 학습관 기능의 이원화로 어느 한 쪽에도 충실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긍정적인 변화라면 금세요... 일당은 지역주민들한테 도서관은 어떤 한정된 인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주변에 이런 교육기관이 있다는 인식, 폭 넓은 봉사단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 도서관이기에 더 구조적으로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있죠”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우선은 도서관기능하고 평생학습관의 기능이 이원화되어 움직이다보니 어디 한 쪽에도 충실하지 못하다는 거겠죠. 도서관기능만 집중할 수도 없고 학습관만 신경쓸 수도 없고... 아무래도 교육전문직원이 없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평생교육 쪽으로 영 문화하는 아니구요 전부터도 도서관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문화교실을 운영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노하우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는 건 못 느끼고 다만 이용자 유치가 어려운 거 같아요.”

지역정보센터와 학습관의 관계에 있어 센터로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받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 상호 프로그램은 지원하고 있으며, 비문해과정은 지역정보센터가 주축이 되어 교재개발과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소외계층 프로그램으로는 비문해과정이 이제 시작단계이며 다른 프로그램은 특별히 없다.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 활동은 매우 미흡하여 현재 거의 교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호 프로그램이 유사해서 학습자 유치를 위한 경쟁관계에 있어 협조적 분위기 구축이 어려워 협조요청의 경우 쉽게 호응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소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기관에 대한 정보는 있는데 각종 단체 등의 연계협조관계가 좀 어려운거 같아요. ....그런 기관들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같이 하나의 경쟁상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보니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협조를 해주는 상황이 아닌 거 같아요...어떤 면에서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비슷해서... 강차가 다양하다면 서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겠죠. 아직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다보니 상호연계협조체계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이 있는 거 같아요.”

교육프로그램 문의와 답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적 상담은 하고 있지 않으나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여성사회교육정보DB는 인식,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저희로서도 아직은 미비한 상황이지만 시스템이 갖춰지면 상담으로 집중을 해야 할 거 같아요. .. 물어오는 질문들이 간단해요...내가 이런 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있냐 이 정도지 그렇게 전문적인 상담이나 직의는 없는 편이에요.”

주 이용자는 주부, 미취업남녀로 20대가 30-40대보다 많다. 노인들의 이용도가 낮은 것은 그 세대가 도서관 이용 습관이 낮은 세대적 특성이 원인인 듯하다고 보고 있다.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여성을 특별한 사업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다. 교육프로그램 시간대상 주로 주부들이 참여하고 있다. 남성은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누구나가 같은 평등한 상황에서 생각하지 여성에게 치중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생학습관 운영하다보면 그 시간대에 볼 수 있는 계층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주부들이예요...지금 우리 학습관같은 경우 여성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성들은 낮에 직장생활이나 이런 걸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성들은 전업주부같은 경우 활동이 활발해요...지금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주로 여성들을 채워져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여성들한테 치중해서 해야겠다는 거 보다는 저희들은 전체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여성에 한정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죠... 학습관으로서 여성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거라면...어려운 질문이네요. 여성에 한정해서 생각은 안 해 봤고 전체 지역 주민들한테,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봉사, 부족한 부분에 대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주5일제, 정년 이렇게 복잡한 상황들에 맞춰 다양한 대상을 위한 폭 넓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성부가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학습관에서 개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체제이다. 학습관은 교육청 산하기관이므로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을 통해서 전달되어야만 할 수 있다. 중앙부처간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어디까지나 운영주체인 서울시교육청을 통해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하고 지방의 그런 연계가 필요한 거 같아요. 저희 직속기관하고 이렇게 중앙하고 연계되기 힘들거든요. 중앙하고 운영주체인 서울시교육청이 연계되어서 어떤 체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지 다이렉트르 뭐가 이루어지기 어렵죠...단계적으로 내려놔야죠..”

(2) 사례 7: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된 D 도서관은 학습관관계자 연수, 지역평생교육기관 연계, 소식지 제작 및 보급, 학습축제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평생교육관계자들에게 연수 참여를 안내할 경우 전체 안내대상 500여개 기관중 60-70여개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한다.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교육청 지원으로 지역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학습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센터의 주요 기능인 지역교육기관 연계에 있어서는 지역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학습자에게 타 기관 교육프로그램을 매개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애로가 있고, 교육청 산하기관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나 교육기관들의 관할 부서가 다를 경우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도서관이 학습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관들의 연결고리가 좀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대학과의 컨소시엄을 이루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네트워크 구축에서 어려운 점은 우리같은 기관은 교육청 산하이고 여성회관은 시 산하에 있고 어떤 기관은 노동부에 속하고 이거다 보니까 서로 연경이 어려운 것 같아요...지금은 연경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특히 센터가 운영하는 금빛봉사단이 복지관 등 타 기관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기관연계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한다. 즉, 이는 형식상의 연계 요구보다는 실질적인 필요와 혜택을 기반으로 한 연계가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센터 운영의 애로점으로 피면담자는 무엇보다 인력의 비전문성을 들었다. 비전문가는 교육기획 및 전문적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현재 있는 프로그램의 활용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도서관 사서가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 없어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회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교육전문직이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다른 데로 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활성화가 되기 어려운 면이 있죠. 애초사항은 인력문제가 가장 크고요. 인력만 있으면 현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면이 더 많거든요...사람들의 고정관념, 타성이 있어서 새롭게 변화해가고자 하는 의욕이 별로 없어요. 평생교육사 자격과정 이수 경우도 자격 하나 더 따기 위해서 하는 건지 동기가 의문시되구요.”

또한 도서관등에 부가 지정된 경우보다는 독립기관으로서 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육청에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나 현재 학원감독 업무에 치중하여 평생교육에 신경을 제대로 써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학원외에 실질적으로 평생교육 업무를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었다.

센터나 학습관의 피교육자 중 여성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가 필요하나 현장에서 개발하기 어려우므로 여성부가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방법, 여성개발원이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주는 것을 희망하였다.

“사실 여성이 학습관의 90% 이상이니까 지역에 맞는 여성교육프로그램을 투입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걸 하기 어려워요... 현재는 배운 사람들 위주로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서 배운 여성과 못 배운 여성간의 갭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성개발원같은 곳에서 다양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내주면 시행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협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 3. 소결: 지역평생교육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여성교육 기능의 문제점

사례조사 결과 학습관은 부가성, 비전문성, 폐쇄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파악된다. 기관의 주 기능에 학습관 기능이 부가되어 2차적인 업무로 접근되고 있는 점, 전문직원의 부재로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점, 교육청 산하조직으로 지역기관들과의 폭 넓은 교류와 협조체제 구축이 어렵다는 점 등이 주요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평생학습관들은 대부분 원래 유사한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에 부가 지정된 상태로 본 기관의 운영과 학습관으로서의 이중적 기능 수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관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기관의 기능을 거의 유지하면서 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첨가해야하므로 애로가 많으며, 따라서 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아직 이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운영 지도에까지는 중앙의 힘이 미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가면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평생학습관의 취지와 기능을 이미 수행해오고 있던 기관들(독립적인 평생교육센터형)은 큰 변화없이 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독립적인 교육센터형이 평생학습관으로서 바람직한 듯 하다. 특히 도서관이 장래 지역평생교육정보 제공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필요성이 인정되나 현재로선 학습관 지정이 도서관 업무에 부가적인 업무로 간주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여 평생학습관에 요구되는 정보와 상담 제공 기능을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 사서가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 접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평생교육원형은 대학의 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학습관이나 센터로서의 기능 재정립에 노력하기보다 기존의 평생교육원 운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보인다. 영리를 추구하다보니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 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다.

유형별 문제점 외에 무엇보다 대부분의 학습관에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는 점이 학습관의 전문적 운영에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단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학습관의 임무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며 정보와 학습상담 부분에 심각한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전문직원 미확보로 학습관 운영의 전문성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연수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전문성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속히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거나 전문적인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습관은 지역내 타 기관들과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보다 정보 제공과 상담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기관들과의 경쟁적 관계를 넘어 협조적 관계로 갈 수 있으며 학습자와 교육기관과의 매개기능(brokering)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타 기관들이 하기 어려운 공공적 성격의 교육 또는 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교육을 주로 해야 한다. 학습관이 또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서만 존재해서는 안 되며 다른 교육기관들이 하지 못하는 지역교육 구심점으로서의 기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만 현재는 제 위치를 찾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학습관관계자 가운데는 평생교육정보DB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여성사회교육정보DB나 지역여성기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인지,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여성에 대한 교육정보서비스에 제한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성들이 여성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여성부는 여성사회교육정보DB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학습관이나 센터에 홍보, 보급 노력을 해야 한다.

학습관은 교육청 산하 조직으로 교육청의 통제만 받으므로 활동범주에 제약이 있다. 도서관은 도서관, 대학은 대학 등 같은 유형의 학습관끼리만 교류하는 경향이 강하며 지역교류의 중심 기능 수행에 별 관심이 없거나 있더라도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반적으로 센터와 학습관 관계자의 성인지 의식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 특히 학습관의 주 이용자는 전업주부, 미취업여

성이다. 교육 시간대상 주부가 주 고객이나 여성을 특별한 사업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광범하게 잡고 있으며, 성별, 연령별 등 고객세분화 접근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주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학습관의 이용율이 낮은 집단(여성노인)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전업주부와 미취업여성의 이용율이 높다면 그들의 의식 및 교양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소개 기능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여성부는 센터, 학습관에 여성교육정보 제공, 여성프로그램, 여성상담 지원을 해야 한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시도해야 한다. 즉, 여성평생교육을 위한 중앙부처간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하의 일반평생교육과 여성부하의 여성평생교육이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분리와 통합이 병행되어야 효율적이다. 즉,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특화기관들의 활성화와 함께 일반평생교육기관 및 조직들이 성인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성부는 교육인적자원부 여성정책실의 협조를 구하여 센터 및 학습관 운영에 영향을 행사하고 여성을 위한 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학습관과의 기능 차이를 뚜렷이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관계자 연수, 자료집 발간, 지역정보의 수집 등의 사업 외에 평생교육연구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학습관 지원 사업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듯하다. 센터와 학습관의 기능과 사업을 차별화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센터는 학습관에 대한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센터와 학습관의 고유 사업을 선정하여 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및 정책 제언

---

1. 결론	141
2. 정책제언	144



## 1. 결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은 1999년에 관련법이 제정되고 2000년에 첫 지정이 이루어져 이제 겨우 시행된지 4년째 접어드는 제도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중앙평생교육센터 산하에 전국적인 조직망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앞으로 지역중심 평생교육체제의 거점기구로서 다양한 지역평생교육 기관들의 교류, 연수, 정보 관리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평생학습기회 및 정보와 학습상담을 관리하는 기구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교육기관들로서는 상호 정보교류와 중첩되는 교육프로그램의 조정, 기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흩어져있는 교육정보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아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교육정보를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에 기대되는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지역교육기관 교류를 통한 지역 교육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학습자에 대한 정보 제공기능으로 생각된다.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기능은 현재 학습관 관계자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기능이지만 다른 평생교육기관들도 수행하는 기능으로서 학습관의 중심 역할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학습관을 다른 교육기관들과 유사한 또 하나의 교육시설로서만 운영해서는 안되며, 다른 교육기관들과 차별화되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거점 교육시설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습관의 핵심 역할에 대한 학습관 관계자들의 인식이 미흡하여 다른 기관들과 경쟁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이 문제이다.

조사결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관계자들은 이 기관으로 지정 이후 기관교류 사업과 정보 관리에 약간의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직원 연수기회나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학습상담 등에 있어서는 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답하고 있다. 연수기회는 년 1-2회 정도에 그쳤으며,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학습자 참여 실적에 얽매어 소위 인기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치중하

고 있었으며 소외계층 교육 등 공공성 강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미흡한 상태로 보인다. 정부로부터 약간의 재정 지원이 있었으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자력으로 아무 사업이나 집행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관계자들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는 상당수 기관들이 교육청의 지시에 의해 타율적으로 지정을 받아 이를 본연의 중요한 임무로 의식하고 있지 못한 점, 기존 기관에 부가적으로 임무가 부여되어 본래 소속 기관의 성격과 학습관의 성격이 충분히 통합되지 못한 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지정 이후에도 평생교육전문가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본적으로 인력의 전문성이 미흡한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이해된다. 전문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을 받아 지역내 기존의 다른 기관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모방 운영을 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지정이후 기관장 및 관계자 연수교육으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일반적인 문제점은 정부 및 중앙 센터에서도 파악되고 있어 차후 역량이 축적되고 관리가 강화되면서 차츰 개선되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여성교육기능 강화에 관한 것이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나 중앙센터에서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적극적 조치가 개입되지 않는 한 주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평생교육시설의 주 이용자는 조사결과에서도 대다수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난다. 낮 시간대의 운영으로 인해 주 이용자는 주부로 직장여성이나 남성들의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 이용자가 여성임에도 관계자들 대부분은 이 기구가 여성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의 개념 속에 ‘여성’이 함몰되어 시민을 대상별로 접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관계자들의 교육전문성 부족이 주 원인이다. 고객을 추상적으로 설정할 뿐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이해하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접근을 취하

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을 고객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배려하지 않으면서 추상적인 시민교육 운운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기관의 성인지적 운영 차원에서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남성들의 교육기회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실질적 이용자 집단인 여성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현실에도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기관 담당자들은 현재의 몰성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향후 여성에 대한 교육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사결과 기관 담당자들은 지역여성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으며, 여성사회교육정보 DB에 접속한 경험도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여성들에게 교육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줄 수 없으며 여성평생교육기관과의 교류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관계자라면 최소한 지역내 교육기관과 여성평생교육기관들에 대한 정보는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교육기관들의 소속 관할 부처가 다양하여 그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것도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여성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주요 부서 산하의 평생교육기관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크며, 이러한 통합 정보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에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에 대한 교육 정보 제공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노력도 요구되지만 여성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여성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에 제공함으로써 이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소한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조직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과 긴밀한 연계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여성 학습자에게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 부처 차원의 협조체제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각 부서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이 전국적 조직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전략이 요구된다.

여성교육정보의 통합적 제공과 함께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학습상담 분야

이다. 현재 학습상담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론상으로나 실천상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이 매우 취약한 분야이다. 그러나 평생학습을 위해서 전문적인 학습상담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여성의 삶과 경험을 고려한 여성상담과 결합된 전문적 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와 국책연구전문기관의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일선 특히 평생학습관 수준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교육인적자원부나 여성부에서 여성의 의식,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선에 보급할 필요성이 크다. 다른 기관들과 중첩되는 문화, 취미 위주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적인 실적 제고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공공성이 강화된 교육의 제공을 강화하여 교육적 혜택의 확산과 균형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에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탁아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친화적 학습환경의 조성도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탁아, 교통, 저소득층 학습비 지원 등의 제반 여건의 조성도 향후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 2. 정책 제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여성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방안으로 다음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평생교육 사업의 통합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등의 중앙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여성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중앙 부처 차원에서 상호 연계·협력 없이 개별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사업의 실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단독 사업으로는 지역평생교육기관들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어려우므로, 여성부는 물론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서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중앙평생교육센터도 연구 및 정책 개발, 각종 사업 추진에 한국여성개발원이나 여성전문 연구자의 참여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센터의 대표적 연례 사업인 평생학습축제의 참가기관들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기관들에 국한되고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복지관 등 타 부서 관할 기관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로 진행되는 등 독자 사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에 여성교육기관대표나 여성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부 측에서도 산하 기관 뿐 아니라 타 부서 평생교육기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부는 교육인적자원부내의 평생직업교육국 및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여성평생교육 관련 정책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다음의 하위 과제를 제시한다.

- ▶ 정부 각 부서 (여성)평생교육관계자 회의 운영
- ▶ 평생교육협의회에 지자체 여성정책담당자, 여성교육기관 대표 참여
- ▶ 현재 학교교육 단계의 여성문제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의 평생교육 사업 강화 또는 평생직업교육국 내에 여성평생교육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 설치
- ▶ 여성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공동으로 평생학습축제 개최

둘째, 중앙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 전담기구와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의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연결되는 여성교육 전담기구 간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양 체제 모두 나름대로의 교육정보시스템 등 평생교육체제를 갖추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중복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평생교육센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한국여성개발원·여성교육기관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동일 부서 산하, 동종 기관 위주의 교류체제에서 타 부서, 이종 기관간의 교류체제로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센터 및 학습관은 최소한 여성부의 주요 교육시설인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와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학습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과 여성평생교육기관들이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이다. 양 기관의 교류 활성화 및 여성의 교육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본처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시설과 주요 여성교육 시설을 한 건물에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과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협조관계 강화
- ▶ 공동 사업 및 프로그램 기획
- ▶ 평생교육정보 DB와 여성사회교육정보 DB 통합 활용
- ▶ 지역평생교육네트워크에 여성회관의 적극적인 참여 권고

**셋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일부는 여성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센터내에 여성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2년 12월 현재 학습관 네 곳만이 여성기관인데, 전국 센터 중 일부와 지역내 학습관 중 일부를 여성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여성중심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고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지역센터에 여성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여성교육기관이나 여성학습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여성관점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평생교육기관이 여성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하나, 주 참여자가 여성이라고해도 여성을 위한 의미있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여성대상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제공에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기존 직원에 대한 업무나 부담추가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시 여성교육기관 지정 고려
- ▶ 지역교육청에서는 평생학습관 지정시 여성교육기관 지정 비율 제고
-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에 여성센터 부설
- ▶ 여성부는 센터 및 학습관 부설 여성센터 운영 지원

**넷째,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는 여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현장에서의 여성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현장 관계자들은 전문성과 시간 부족으로 현행프로그램 유지에 급급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고 다른 일반 교육기관들과 차별화되는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문가들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여 보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는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공모제를 시행하여 지원하거나, 지정된 여성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 ▶ 여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여성교육프로그램 공모제 실시
- ▶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다섯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지정후 관계자 연수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이 때 여성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와 여성학습자와 여성교육 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교육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관계자 연수는 중앙센터에서 하다가 현재는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데, 지역센터나 평생학습관에서 시행되는 연수시 여성교육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같은 기관에서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뿐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관계자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핵심 기능은 교육정보와 상담 제공에 있으므로 이 부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침이 교육되어야 한다.

- ▶ 관계자 연수시 여성교육 강화
- ▶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관계자 연수 실시

**여섯째, 평생교육의 전문화를 위하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은 물론 여성교육기관에도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능력, 직원의 전문성인데, 현재와 같이 비전문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평생교육 거점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기존 직원의 연수교육 강화도 방안이지만 단기의 연수로 전문성을 크게 제고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무엇보다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론 이 전문인력 양성 및 유지과정에서의 질 관리와 전문성 함양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여성교육에 대한 이해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 ▶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화 및 인건비 지원
-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서 여성교육 전문성 강화

**일곱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여성친화적 학습환경을 강화해야 한다.**

도서관과 같은 시설에의 부가적 지정은 교육시설 및 학습환경의 미비함을 야기하고 있다. 여성교육의 기본 전제인 탁아서비스조차 거의 제공되지 않는 실정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 밖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

평생학습관에 대한 시민 및 여성들의 인식 제고,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시설 개선 등 학습자 참여율 제고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에 탁아시설 설치(예산 지원)
-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홍보 강화
- ▶ 여성상담 강화

**여덟째, 현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의 평생교육업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여성부서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학교교육을 주로 담당해온 교육청의 특성상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자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열의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업무추진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평생교육 업무를 독립하든가, 평생교육체육과의 평생교육 업무를 강화해야 하며, 지자체 여성부서와의 협조관계를 강화하여 여성평생교육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의 평생교육 업무 강화
- ▶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와 여성부서의 협조 강화

**아홉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이 기능 차별화를 통해 여성교육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센터는 학습관이나 지역평생교육기관 관계자들의 여성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여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여성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여성학습자 상담지침 개발 등의 학습관 지원사업, 그리고 학습관과 여성교육기관의 교류를 지원해야 한다. 학습관은 여성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여성학습자와 교육기관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문화취미교육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여성의식과 여성문

제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외계층여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공공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여성평생교육 연수 및 연구 기능 강화
- ▶ 평생학습관 여성교육프로그램의 공공성 강화

## 참고문헌

- 김재인(1998), 「아·태지역 여성사회교육 비교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형식(1997). 「호주의 사회와 문화」. 서울 : 지구문화사.
- 고인아(2001). “독일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의 일 고찰.”  
한국여성사회교육회. 「여성사회교육」 제6집. pp. 1-39.
- 고혜원(2002). “호주의 여성사회교육.” 「직업과 인력개발」 5권 1호.  
서울: 직업능력개발원
- 경기지역평생교육센터(2002). 「경기평생교육백서」,  
교육인적자원부(2000). 교육법·평생교육법시행령·평생교육법시행규칙  
해설자료」. 서울 : 교육부.
- 교육부 (1999), 「평생교육백서 제3호」.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0). 「평생교육백서」  
\_\_\_\_\_ (2001). 「평생교육백서」  
\_\_\_\_\_ (2002). 「평생교육백서」
- 박성정·김재인·곽삼근·정민승(2001). 「여성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박성정·정민승(200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 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이혜영·이희수·백은순·김태준·오혁진·이정희(2000). 「평생교육센터  
및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발전계획」.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수·양병찬·한승희·이현석·허준(2002). 「지역평생학습사회의  
실현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2000).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관계관 연찬회자료」  
\_\_\_\_\_ (2001). 「지역평생학습관 관계자 연찬회자료」  
\_\_\_\_\_ (2002). 「평생학습관 운영매뉴얼」  
\_\_\_\_\_ (2002). 「2002년도 평생교육센터 운영업결과보고서」  
\_\_\_\_\_ (2003). 「2003년 평생교육관계관 연찬회 자료」

- 최돈민·변중임·이지혜·권재현·이세정·이현석(2003). 「주요국의 평생교육체제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 Adult, Community and Further Education Board in Victoria(2002). *Adult, Community and Further Education 2001-2002 Annual Report*.
- ANTA(2003). *Choice, participation, outcomes. Women in VET 2003: Consultation report*.
- DIE(2001). Vgl. Volkshochschul-Statistik.
- Eberhardt, G(1994). Frauenerwerbslosigkei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Folgen und Auswege.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6-94, S.22-23.
- Ironside, D.J.(1981). "Community counseling for adults". DiSilvestro, F. R.(ed.). *Advising and counseling adult learners*. New Directions for Continuing Education, 10.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7-17.
- Longworth, N. (2000). *Making Lifelong Learning Work: Learning Cities for a Learning Century*. London : Kogan Page.
- McIntyre, J.(1991).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TAFE) and Adult Education in Australia". Mark Tennant.(ed.).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in Australia : Issues and Practic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小林文人·藤岡貞彦 編(1990). 「生涯學習計劃と社會教育の條件整備」. 東京 : エイデル研究所.
- 三輪建二(2002). 「ドイツの生涯學習 : おとなの學習と學習支援」. 東京 : 東海大學出版會.
- 千葉(치바)縣女性센터(2003). 「전기강좌모집안내」.
- 佐賀(사가)縣 평생학습센터 아반세(2003). 「아반세의 사업안내」.
- 文部省(1998, 2003). 「文部統計要覽」.



부 록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여성교육기능 강화 방안』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2003년 기본과제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여성교육기능 강화 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교육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지의 각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사지의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면 아래 연구진에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신 조사지는 여성개발원 박성정 앞으로 8월 8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동봉한 회송용 봉투 사용). 감사합니다.

2003. 7

연구진 : 박성정, 양병찬  
전 화 : 3156-7124  
e-mail : sjpark@kwdi.re.kr  
f a x : 3156-7279

###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서울 은평구 불광동 1-363 (우 122 -707)

### A.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일반 실태

1. 귀 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

- 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 ② 평생학습관
- ③ 둘 다 해당
- ④ 기타

2. 귀 기관은 원래 다음 중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

- ① 대학(전문대학 포함)
- ② 도서관
- ③ 문화회관(문화원, 문화의 집 등 문화교육기관 포함)
- ④ 복지관
- ⑤ 지역사회교육협의회
- ⑥ 여성센터
- ⑦ 초등, 중등, 고등학교
- ⑧ 학생회관
- ⑨ 교육청
- ⑩ 기타

3. 귀 기관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을 신청한 주요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만 응답하세요)

- ① 지역평생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싶어서
- ② 재정지원을 기대하고
- ③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요구, 상부의 명에 의해서
- ④ 명예를 위해서
- ⑤ 기타:(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4. 귀 기관 평생교육 수강생 중 여성의 비율은? (        )

- ① 대부분이 여성이다
- ② 남성보다 많은 편이다
- ③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비슷하다
- ④ 남성보다 적은 편이다

5. 귀 기관의 주요 교육영역은? (        )

- ① 직업교육(컴퓨터교육 포함)
- ② 문화, 교양, 취미교육
- ③ 의식교육, 시민교육
- ④ 어학교육
- ⑤ 기타

6. 귀 기관의 평생교육 업무는 주로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        )

- ① 교육 전문인력(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등)
- ② 직원의 기존(기본) 업무에 부가(사서, 일반직원 등)
- ③ 기타

7.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으로의 지정이 귀 기관에 어떤 변화를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른 편 해당 칸에 √ 하시오)

	매우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지명도 제고				
② 수강생 증대				
③ 재정안정성(수익) 증대				
④ 직원 연수기회 증대				
⑤ 운영의 전문성 증대				
⑥ 규제와 간섭의 증대				
⑦ 업무량 증가				
⑧ 기관 성격의 모호성 야기				

8. 위에 언급된 변화외의 다른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9.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이후 아래 사업이 어느 정도 강화되었습니까? (오른 편 해당 칸에 √ 하시오)

	매우 강화	약간 강화	별로 강화 되지 않음	전혀 강화 되지 않음
① 평생교육기관 교류 사업				
② 소외계층 교육프로그램 운영				
③ 평생교육 정보 수집 및 제공				
④ 평생교육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⑤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⑥ 평생학습 상담				
⑦ 지역단위 평생학습의 기획, 조정				

10.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 지정 이후 아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도는? (오른 편 해당 칸에 √ 하시오)

지원항목	지원정도	매우 큰 지원이 있었음	약간 지원 이 있었음	별로 지원 이 없었음	전혀 지원 이 없었음
① 재정 지원					
② 직원 연수 지원					
③ 프로그램 지원					
④ 평생교육정보 지원					
⑤ 여성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					

11.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 운영상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            )

- ① 센터나 학습관의 운영 방향이 명료하지 않다.
- ② 구체적인 프로그램(사업)이 빈약하다.
- ③ 사업을 추진할만한 재원이 부족하다.
- ④ 전문인력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
- ⑤ 기타

12. 위에 언급된 사항이외의 문제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13.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또는 학습관으로서 귀 기관이 중점적으로 수행한 교육이나 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교육프로그램이나 사업명 기재/ 간략한 내용을 소개해주셔도 좋습니다)

## B.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여성교육 실태

14. 여성교육 실태 (오른 편 해당 칸에 √ 하시오)

항목	질문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 담당자	①지역여성평생교육기관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②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③여성사회교육정보DB에 접속해 본 적이 있다.				
	④여성교육관련 연수기회가 있다				
	⑤연수결과 여성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증진되었다				
	⑥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이 여성을 위한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 여성교육기관들과의 교류	⑦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평생교육기관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				
	⑧여성평생교육기관들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⑨여성평생교육기관들에 연수기회를 제공한 적이 있다				
다) 여성계의 자문	⑩기관 운영시 여성전문가, 여성단체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				
	⑪지역여성의 교육요구를 조사하거나 참고하고 있다				
라) 여성교육프로그램	⑫여성의 의식, 몸, 삶, 지도력에 관한 교육을 운영한 적이 있다.				
	⑬성평등 교육을 어떤 형태로든 하고 있다				
	⑭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저소득, 저학력, 이혼, 한부모, 미혼모, 폭력피해 여성 등)				
	⑮여성들에게 지역여성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마) 여성학습자 지원	⑯탁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⑰여성학습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다				
	⑱여성들을 위한 전문적인 학습상담(생애 학습설계나 직업설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15.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의 여성평생교육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사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른 편 해당 칸에 √ 하시오)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① 여성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기능 강화				
② 여성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③ 평생교육기관의 여성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원 연수기회 확대				
④ 여성평생교육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⑤ 취약계층 여성대상 교육 및 지원 강화				
⑥여성의식 및 성평등 교육 강화				
⑦ 여성을 위한 시설(탁아, 휴게실 등) 확대				

16. 위 사업 중 앞으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이 여성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번호를 쓰시오

( )

17. 위에 언급한 사업 외에 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18. 다음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과 지역여성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18-1. 귀 기관과 여성교육기관들과의 연계(교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약간 필요하다
-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18-2. 여성교육기관과의 교류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호교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② 추진 경험 및 역량 부족
- ③ 기관들간 상호 경쟁 및 신뢰 부족
- ④ 상호 이득이 되는 적절한 교류사업이 없음
- ⑤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면담조사 질문

### 가. 실태파악(일반적 사항)

- 센터 및 학습관 지정 배경
- 지정에 대한 기존 직원들의 반응/ 기관의 성격 변화(기능 재정립 정도)
- 지정 이후, 중앙 센터(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의 지원 사항  
: 교육정보, 직원연수, 프로그램, 재정, 기타 등
- 새로운 기능 부여에 따른 자체의 변화 노력. 주요 사업
- 긍정적 변화/ 부정적 변화, 애로사항
- 고객들의 반응: 센터, 학습관 지정 이후
- 평가: 센터, 학습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대한 직원의 자체평가
- 센터 및 학습관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

### 나. 여성교육 실태 및 기능 강화 방안

- 기관의 운영 방향 및 목적에 여성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있는가?  
여성이 주요 대상(고객)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기관장 및 담당자들이 여성에 대한 교육서비스에 관심이 있는가
- 여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무엇이 있는가?  
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무엇을 들 수 있는가  
여성의 어떤 차원의 성장에 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의식, 직업, 교양, 취미 등
- 여성학습자를 위한 지원서비스(정보제공, 학습상담, 탁아, 재정지원)  
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성학습자에게 교육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가  
: 여성관련 정보(여성교육기관, 훈련기관, 노동시장 정보, 여성전문사이

트 등)가 별도로 관리, 제공되는가? 그냥 일반적인 정보(남녀공통)만 제공되는가

여성학습자의 교육정보 접근가능성, 방법: 여성들이 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직원과의 상담, 인터넷, 동료, 기타

여성학습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정보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가: 센터 및 학습관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가?

탁아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가? 효율적인 탁아서비스 제공 방안은?

학습상담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가?: 상담 전문직원(또는 자원봉사자)이 있는가? 상담에 관한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가? 상담을 위한 매뉴얼이 있는가? 각종 검사(적성, 흥미, 성격 등)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생애설계나 경력설계, 학습설계 등의 프로그램이 있는가?

여성을 위한 특화된 정보 및 상담서비스의 필요성은? 그 적절한 방안은?

여성부의 여성사회교육정보 DB에 대해 알고 있는지

(평생교육센터의 정보 DB를 활용하고 있는가? 그 효용성은?)

여성을 위해 효율적인 교육정보 제공 방안은?(여성들의 정보접근성 제고 방안은?)

센터 및 학습관 이용에 있어 일반 고객 및 여성들의 불만은 무엇인가? 여성들이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불만해소책, 접근성 제고 방안은?

- 센터 및 학습관이 여성학습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지역 여성교육기관과의 연계 교류 방안, 가능성

여성회관과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단체와의 연계 필요성, 효과에 대한  
생각은?

여성서비스 강화를 위해 여성전문기관들과의 협조 필요성은?

다. 총평: 센터 및 학습관의 여성학습자에 대한 기여(배려)  
실태 및 기여 방안

2003 연구보고서 220-15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여성교육  
기능 강화 방안

---

---

2003년 12월 27일 인쇄  
200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장 하 진

발행처 : 한국여성개발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3156-7000 (대)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313-7593 (대)

---

---

<정가 5,000원>

ISBN 89-8491-073-2 93330